

2021년도 제25차 정기총회

2021년도 제25차 정기 총회 자료집

일 시 | 2021년 1월 27일(수) 19:00

장 소 | 평화여성회 회의실 및 온라인 zoom 회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21년도 제25차 정기총회

2021년도 제25차 정기 총회 자료집

일 시 : 2021년 1월 27일(수) 19:00

장 소 : 평화여성회 회의실 및 온라인 zoom 회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차 례

■ 정기총회 순서	
■ 제24차 정기 총회 회의록	1
■ 2020년 감사 보고	5
■ 2020년 사업보고 및 평가	8
I. 사업 총평	9
II. 사업보고 및 평가	
【1】 조직 사업	12
【2】 평화·통일 사업	18
【3】 정보·홍보 사업	52
【4】 연대 및 협력사업	55
【5】 부설기구 갈등해결센터	7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80
■ 2020년 결산보고	87
■ 임원 인선안	95
■ 2020년 평화회원상	98
■ 2021년 사업계획(안)	
사업기조와 방향	101
부설기구 갈등해결센터	107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08
조직사업	
■ 2021년 예산안	110
■ 부록	
평화여성회 정관	114
평화여성회 조직도	121
2020년 성명서 목록	122
2020년 홍보자료	180
회원가입서	

정기총회 순서

I부. 회원등록 및 인사나누기 (오후 6:30~7:00)

II부. 본 회의 (오후 7:00~9:00)

1. 개회선언
2. 서기임명
3. 성수보고
4. 회순채택
5. 전차회의록 낭독
6. 2020년 감사보고
7. 2020년 사업보고와 승인
8. 2020년 결산보고와 승인
9. 평화회원상 시상
10. 임원 선출 및 승인
11. 2021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12. 2021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13. 기타토의
14. 회의록 받음
15. 폐회

2020년도
제24차 정기 총회 회의록

- 일시 : 2020년 1월 31일(금) 18:3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서기 : 김지선, 이덕경
- 주요 내용

1. 개회선언

- 김정수 의장이 19:10에 개회를 선언하고,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2. 서기임명

- 김경선, 김지선 회원을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하다.

3. 성수보고

- 김경선 활동가가 재적회원 53명중 위임 19명, 참석 25명 총 44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김정수 의장이 정관에 의거 성회되었음을 선언하다.

4. 회순채택

- 김정수 의장이 자료집의 회순을 낭독하다.
- 임원선출 및 승인과 모범회원상 시상을 함께 할 것을 김정수가 제안하다.
- 최안진경 회원 동의, 이현숙 회원 재청으로 모두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5. 전차회의록 낭독

- 이덕경 회원이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다.
- 김정아 회원이 동의, 김성은 회원 재청으로 모두 가하여 회의록을 받다.

6. 2019년 감사보고

- 여혜숙 회원이 사업 감사 보고서를 대독하다.
- 윤수경 회원이 회계감사 보고서를 낭독하다.
- 법인 회계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회비 수입의 구체적 내역인 개인별 회비 총액을 자료집에 포함할 것을 안수경 회원이 제안하다.

7. 2019년 사업보고와 승인

- 김정수 의장이 2019년 사업 총평을 보고하다.
- 여혜숙 소장이 부설 갈등해결센터 사업을 보고하다.
- 김귀옥 원장이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을 보고하다.
- 안수경 회원이 동의하고, 김희은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가하여 받다.

8. 2019년 결산 보고와 승인

- 별도 자료를 토대로 김경선 활동가가 보고하다.
- 회계감사가 앞서 회계보고를 했음에도 결산보고를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김희은 회원이 문제제기 하다. 이에 대해 윤수경 회원과 안수경 회원이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 받다.
- 보고서에 '본회'라는 표현 대신 정식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조윤희 회원이 제안하다.
- 보고서 활자를 현재보다 크게 해서 자료집을 제작해 줄 것을 조윤희 회원이 제안하다.
- 정현백 회원이 동의하고, 한정숙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가하여 받다.

9. 2020년 모범회원 시상 및 임원선출 및 승인

- 정기총회순서를 모범회원 시상을 먼저 할 것을 김정수 의장이 제안하여 바꾸다.
- 모범회원 상장의 격을 높여 제작할 것을 정현백 회원이 제안하다.
- 회원상 이름에 '모범'을 뺄 것을 김희은 회원이 제안하다.
- 회원상 명칭 대안으로 '평화회원상'으로 할 것을 한정숙 회원이 제안하다.
- 김정아 인선위원회위원장이 인선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임원선출안을 설명하다.
- 김정수 상임대표, 여혜숙 공동대표가 연임하게 됨을 보고하다.
- 부설기구인 여성평화연구원과 갈등해결센터의 김귀옥 원장과 여혜숙 소장이 연임하게 됨을 보고하다.
- 서민순 회원이 동의하고, 이애덕 회원의 재청하여 모두 가하여 받다.

10. 2020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 신임 대표 김정수가 원안대로 보고하다.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김귀옥이 원안대로 보고하다.
-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여혜숙이 원안대로 보고하다.
- 조윤희 회원이 여성평화연구원의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질문하고, 이에 대해 여혜숙 공동대표가 부설기관의 예산은 2020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했음을 답하다.
- 부설기관 명칭이 '센터'와 '연구원'으로 되어있는데, 위상의 차이를 가지는 명칭이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김희은 회원이 제안하다. 의장이 부설기관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후에 논의하기로 하다.
- 연구원은 연구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공모사업을 부수적으로 하기를 제안하고, 회비 증액을 위해 회원들에게 증압감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을 김희은 회원이 제안하다.

- 한 기관에 이사회가 두 개가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직도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윤수경 회원이 제안하다.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내에 부설기구 간 일정 조율을 하여 회원에게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참여를 활성화할 것을 김희은 회원이 제안하다.
- 매년 동일한 내용인 사업기조와 방향을 자료집에 실기 보다는 해당년도에 집중할 사업만을 자료집에 포함시킬 것을 윤수경 회원이 제안하다.
- 거대담론 중심의 평화운동 보다는 회원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일상의 여성평화운동을 확대해나갈 것을 윤수경 회원이 제안하다.
- 부설기관인 여성평화연구원이 갈등해결센터에 필요한 담론을 제공해 왔는지 질문하고 부설기구 간 협력을 최안진경 회원이 제안하다.
- 센터와 본회 예산이 예전에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부설 기관인 갈등해결센터의 예산이 크지 않음에도 계속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안수경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의장과 갈등해결센터 소장이 독립채산제임을 답하다.

11. 2020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 김정수 신임의장이 원안대로 보고하다
- ‘잡수입’이라는 표현을 ‘기타수입’으로 바꿀 것을 김희은 회원이 제안하다.
- ‘교부금’을 ‘전입금’으로 바꿀 것을 안수경 회원이 제안하다.
- 김성은 회원 동의, 손희정 회원 재청으로 가하여 받다(사업안과 예산안을 통합하여 받을 것에 대해 동의 재청을 받다)
- 이상의 모든 논의사항에 대해 25주년 TF팀에서 논의할 것을 김희은 회원이 제안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다.
- 안수경 회원이 본 회의 재정확보를 위해 갈등해결 교육의 홍보안을 주면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로 하다.
- 부설기관의 예산안을 자료집에 꼭 넣을 것을 조윤희 회원이 제안하다.
- ‘잡수입’ 등 수정하기로 한 표현에 대해 수정하여 보관용으로 두기로 하다.

12. 기타토의

13. 회의록 받음

- 김희은 회원이 서기의 회의록 낭독을 하지 말고, 회의록 검토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모두 동의하다.

14. 폐회

- 20:52에 김정수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20년 감사 보고

2020년 사업감사 보고

1. 2020년도에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는 단체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성실히 매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상황으로 점철된 2020년임을 감안할 때, 사업을 비대면 온라인-오프라인 회의 및 프로그램 병행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여성주의적 성찰을 위하여 계획한 다양한 사업을 크게 축소하지 않고 대부분 진행하였음은 다행입니다.
3. 평화여성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한 여가부 연구용역 2018년-‘1325 매뉴얼 연구’, 2019년-‘WPS 의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결함’을 통한 성평등한 한반도 담론구축’에 이어 2020년에 ‘1325 컨텐츠 발굴과 대중화 작업’을 진행하여 “쉽게 설명하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동영상 제작하여 평화여성회의 개설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고 국내·국제회의 등 주요 행사에 공유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평화여성회의 사업과 활동이 일반대중에게 다가가는 면모를 갖추는 지속적인 모습으로 2021년도 이후로 이어질 사업의 연속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될 언택트 시대에 유용한 소통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3기 국가행동계획에 평화여성회가 제안한 행동계획이 포함되고, 2020년 하반기 K-1325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구성을 주도한 성과는 평화운동의 리더 단체로서의 역량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갈등해결센터의 회원들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평화여성회의 조직적 강점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4. ‘평화여성회’는 부설기구인 ‘갈등해결센터’와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평화와 갈등 해결의 메시지를 한국사회에 전달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훈련과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연구모임의 지속으로 참여형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교육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과 조직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특히 10년 만에 복간된『여성과 평화』 6호의 출간을 이사회와 연구원의 후원금 모금으로 출판한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6. 2021년도에도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와 동북아를 만들기 위한 ‘여성 평화역량 강화’와 ‘자체조직력 강화’를 조화롭게 추구하시면서 여성평화운동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평화여성회’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021. 1. 27.

이사 박유희 (인)



2020년 회계 감사 보고서

감사 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

감사 일시 : 2021. 1. 21

감사 장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실

감 사 : 안 수 경

2020년 (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계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본 감사는 본회를 비롯 부설 갈등해결센터,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을 포함합니다.

1. 감사개요

제출한 결산보고서,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통장 등의 대조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의견

1)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등을 잘 비치하고 있었고, 계산도 정확하였으며, 통장과도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영수증 첨부 시 계좌이체 확인증에 영수인의 개인 자필서명을 명기한 영수증 첨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카드 영수증의 경우 감열지이기에 복사본을 첨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2) 본회의 주요 수입원인 회비(회원과 이사)와 후원금이 예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발생한 듯합니다. 회원회비와 이사회비 납부와 후원금 모금을 위한 방안 모색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 부설기관 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 후에 지출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4) 김세민 간사의 성실하고 꼼꼼한 회계 집행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21일

감사 안 수 경



2020년 사업보고 및 평가

I. 2020년 사업 총평

II. 2020년 사업 보고 및 평가

I. 2020년 사업 총평(안)

1. 2020년 변화된 환경과 정세에 대한 대응

○ COVID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 2020년은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되어 코로나19로 마무리되었을 정도로 전대미문의 감염병 시대를 열었다. 사람들 사이의 비대면 방식의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시민운동의 주요 방식인 어드보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면서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면서 1년의 사업을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및 프로그램 진행으로 전환하여, 계획한 사업은 크게 축소하지 않고 대부분 진행할 수 있었다.
- 코로나19는 돌봄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된 여성들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켰다. 여성평화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평화 개념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의 삶의 안녕과 안전, 보건, 의료, 생계, 기후 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인간안보와 여성의 삶의 평화를 포함한 여성안보 개념으로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요구되었다. 평화여성회는 남북관계 실질적 개선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방비 축소와 평화군축 등 코로나19 시대 취약해진 여성의 인간안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평화여성회 회원의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고, 정기적 소식지 발송을 통한 소통도 미흡했다. 따라서 2021년에는 코로나19라는 뉴노멀 환경에서 회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여성평화운동의 방식을 개발하고 구현할 과제를 지닌다.

○ 한국전쟁 70년, 종전 67년, 6.15 공동선언 20주년

-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년, 6.15 공동선언 20주년 등 한반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전환적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다. 오히려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북측으로 보낸 대북 전단으로 인해 남북관계에 신뢰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급기야 6.15 정상회담 20주년 다음 날인 2020년 6월 16일 북측의 개성공단 지역에 설립된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정세의 영향으로 남북여성교류와 만남의 기회가 거의 사라지고 2019년과 같이 팩스 소통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 그럼에도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국전쟁 70년 종전 평화캠페인을 시작하였고, 평화여성회도 상임집행위원 단체로 참여하였지만, 여성평화운동 분야를 견인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는 못해, 2021년으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한 한반도 분쟁과 갈등 예방, 평화 구축 활동의 과제를 넘기게 되었다.

2. '여성·평화·안보'(WPS) 의제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연대와 본회 사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 2020년은 국제여성·평화운동 차원에서 베이징행동강령 25주년, 1325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20주년, 대한민국 1325 국가행동계획 2기(2018~2020) 마감 및 3기(2021~2023) 준비 등 주요한 시기였다.
- 평화여성회는 2018년 여가부 용역으로 진행한 '1325 매뉴얼 연구', 2019년 WPS 의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결합을 통한 '성평등한 한반도 담론구축 등의 성과를 이어받아 2020년에는 1325 콘텐츠 발굴과 대중화 작업 진행하여 “쉽게 설명하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동영상을 제작하여 본회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경기도, 민주평통, 경기여성단체연합, 여성평화외교포럼, Korea Peace Now, GPPAC NEA 등이 주최한 국내·국제 회의와 같은 주요 행사를 통해 평화여성회가 발굴한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3기 국가행동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에 참석하여 제안하였다. 그 결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3기 국가행동계획 초안에 평화여성회가 여성평화안보의 포괄적 발전 차원에서 제안한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동북아 지역화와 국내적 차원의 지방화 차원의 행동계획 추진이 포함되었다. 또한 민주평통에 1325결의안 3기 국가행동계획 이행부처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여, 민주평통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21년부터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담론 발굴, 전략적 개입, 대중화 작업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여성시민사회에서 평화여성회의 본 의제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하였고 이는 2020년 하반기 K-1325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구성을 주도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 특별히 본회는 1325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대중화를 위해 2회의 사회적 대화 진행과 “쉽게 설명하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사회적 대화는 갈등해결센터 활동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수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갈등해결 전문가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동시에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으로 성장될 수 있었다. 또한 1325 동영상은 여성운동, 평화운동계에 1325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평화여성회가 개설한 YouTube 채널을 통해 공유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소통의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3. 부설기관인 갈등해결센터와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조직력과 활동력 강화

- 2020년 본회의 부설기관인 갈등해결센터와 여성평화연구원은 코로나19 환경에서 온라인 소통을 꾸준히 진행하여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조직적 성장을 이끌어냈다.
- 갈등해결센터는 평화교육 진행자 심화과정과 매뉴얼팀 운영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본회의 1325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WPS 의제와 1325 국가행동계획에 대해 학습하고,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험으로 향후 여성평화교육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쌓게 되었다.
-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여성과 평화』 6호를 10년 만에 복간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통해 기획과 출판을 주도하였고, 출판비 또한 평화여성회 이사회와 연구원 후원회의 모금을 통해 자체 조달하여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학술토론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여성주의적 성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었다.

4. 본회의 조직적 활동 미흡과 홍보활동 약화, 재정적 어려움의 지속

- 이상의 활동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활동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조직적 차원의 활동이 여전히 미흡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한계는 평화여성회가 처한 조직적, 실무적, 재정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여성평화운동의 주요 의제가 전체 여성운동 속에 유기적으로 결합하거나 청년여성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2021년부터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여성운동 의제와 결합시키고 청년여성들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가 있다.
- 이러한 조직적, 실무적 취약성은 온라인 소식지 발행과 홈페이지 활성화 약화 등 전반적으로 회원들과의 소통이 축소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평화운동 역량 강화, 회원 사업 발굴, 재정 자립을 위한 후원회원 확대 등의 과제가 있다.

II. 2020년 사업 보고 및 평가

【1】 조직사업

1. 회의

1-1. 총회

1) 역할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 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2) 구성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내용 : 2020년 사업계획 수립,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4) 사업내용

(1) 정기총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1월 28일(월) 18:00~21:00,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성원보고 : 재적 회원 53명 중 참석 25명, 위임 19, 총 44명
- 주요안건 : 2019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 변경, 조직 변경의 건 등

(2) 2021년 총회준비위원회

- 구성 : 김정수(위원장/본회 상임대표), 김귀옥(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여혜숙(공동대표/부설갈등해결센터 소장), 김정아(이사), 김세민(활동가), 김태원(간사)

① 1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0 12월 3일(수) 20:00 온라인 zoom 회의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김세민, 김태원
- 위임 : 김귀옥, 김정아
- 안건 : 총회 날짜 결정, 총준위 일정 및 절차 논의, 2020년 사업 평가(브레인스토밍), 2021년도 사업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총회 준비 자료 분담, 2019년 1~11월 사업결과 보고 등

② 2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12월 23일(수) 20:00 온라인 zoom 회의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여혜숙, 김세민, 김태원
- 안건 : 2020년 사업 평가 (본회, 센터, 연구원), 2020년 결산(안) 보고(본회, 센터, 연구원), 2021년 사업계획안 검토 (본회, 센터, 연구원), 2021년 예산안 개괄적 검토(본회, 센터, 연구원), 모범회원상 추천 등

③ 3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1년 1월 20일(수) 20:00 온라인 zoom 회의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여혜숙, 김태원
- 배석 : 김세민
- 안건 : 2020년 총회 인선위원회 구성 및 인선 관련 보고, 2019년 사업 총평 및 본회, 부설기관 사업평가, 2020년 사업계획안 검토, 총회 순서, 총회참석회원 명단 확인 등 총회 준비

1-2. 이사회

- 1) 역할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구성

- 이사장 : 김성은
- 이 사 :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박현선, 여혜숙, 이나영, 조영희, 한정숙 (존칭 생략, 가나다순)

3) 회의

(1) 1차(55차) 이사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1월 16일(목) 11:30, 신촌 동강참치
- 참석 : 김성은(이사장), 김정수(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지영, 김정아, 한정숙 이사
- 위임 : 김귀옥, 박현선, 이나영, 조영희, 박현선 이사
- 배석 : 김경선 활동가, 김태원 간사
- 내용 : 2019년 사업과 결산 보고, 2020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검토, 신임이사 추천(백미순)과 통과 등

(2) 2차(제56차) 이사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12월 29일(월) 14:00, 온라인 zoom 회의

- 참석 : 김성은,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여혜숙, 한정숙 이사
- 위임 : 박현선, 이나영 이사
- 배석 : 김세민, 김태원
- 내용 : 2020년 추경안 검토/결의, 2020년 사업보고, 2021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의견 수렴, 2020년 결산안, 임원 연임(이사, 사업감사), 신임이사 추천 및 통과 등

1-3. 운영위원회

1) 역할 :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2) 구성 : 공동대표,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 김정수 (상임대표)
- 위 원 : 김정수(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귀옥(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3) 회의

(1) 제1차

- 일시와 장소 : 2020년 2월 11일(화) 15:00,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여혜숙
- 배석 : 김세민, 김태원
- 안건 : 제24차 총회 회의록 검토 및 총회 평가, 2~3월 사업계획 공유, 운영위원 확대의 건,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추진 방안 논의

(2) 제2차

- 일시와 장소 : 2020년 4월 10일(금) 10:00,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여혜숙
- 배석 : 김세민, 김태원
- 안건 : 2~3월 사업보고 및 4~5월 사업계획 논의 등

(3) 제3차

- 일시와 장소 : 2020년 7월 15일(수) 17:00,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여혜숙
- 배석 : 김세민, 김태원
- 안건 : 4~6월 사업 보고 및 7~8월 계획 공유, 온라인 회의 등 향후 사업 진행 방식 관련 논의

(4) 제4차

- 일시와 장소 : 2020년 8월 28일(금) 20:00, 온라인 진행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여혜숙
- 배석 : 김세민, 김태원
- 안건 : 7~8월 사업보고 및 9~10월 사업계획 공유 등 논의

(5) 제5차

- 일시와 장소 : 2020년 10월 20일(화) 20:00, 온라인 진행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여혜숙
- 배석 : 김세민, 김태원
- 안건 : 9~10월 사업보고 및 11~12월 사업계획 공유, 총회 준비위원회 일정 및 안건 공유 등

1-4. 사무국회의

-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 김정수(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세민(활동가)
- 3) 내용 : 주 1회 혹은 격주 1회 시행. 일정 및 업무 공유. 주간 사업 논의.
- 4) 일시 : 1/8, 2/10, 3/16, 3/23, 4/1, 4/7, 4/23, 5/8, 5/14, 5/22, 5/29, 6/9, 6/15, 6/23, 6/29, 7/17, 8/4, 8/10, 8/20, 8/25, 9/7,9/16, 9/24, 10/6, 10/14, 10/28, 11/3, 11/9, 11/18, 11/23, 12/8

2. 법인.행정

2-1. 감사

- 1) 역할 : 본 회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 2) 구성 : 사업감사 (박유희 전 이사), 회계감사 (안수경 회원)
- 3) 결과 : 감사보고서 참조

2-2. 법인, 행정, 사무

- 1) 목표

- 본 회 법인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이행한다.
- 여성평화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실천,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2) 통일부 법인 업무

- (1) 평화여성회 비영리법인 운영보고서 제출 (일시 : 3월 11일)
- (2)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일시 : 3월 30일)
-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일시 : 3월 30일)
-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유지여부 점검표 제출 (일시 : 10월 28일)

3) 법인 세무 업무

- (1)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환급신청서 제출 (일시 : 1월 3일)
-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기부금 납입내역 제출 (일시 : 1월 7일)
- (3)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신고 (일시 : 1월 7일)
- (4)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과세자료 제출 (1월 7일)
- (5) 법인 등기이사 변경 서류 제출 (일시 : 2월 6일), 완료(일시 : 2월 12일)
- (6) 여성가족부 2019년 프로젝트 관련 정보공시 (일시 : 2월 7일)
- (7) 통일교육협의회 2019년 프로젝트 관련 정보공시 (일시 : 2월 7일)
- (8) 사업장 가입자 및 피보험자(김세민) 취득신고 및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일시 : 2월 10일)
- (9) 사업장 가입자 및 피보험자(김경선)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일시 : 2월 10일)
- (10) 2019년 보수총액신고 (일시 : 2월 11일)
- (11) 김세민 활동가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일시 : 3월 30일)

(12) 홈택스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정보공시 및 홈페이지 업로드 (일시 : 3월 30일)

(1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영등포 세무서 제출 (일시 : 6월 22일)

(1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과세자료 제출 (일시 : 7월 6일)

(14) 원천세 신고서 접수 (일시 : 7월 6일)

(15) 2020년 상반기 주민세 및 지방세 납부 (일시 : 8월 14일)

(16) 4대 보험 과오납 환급 신청 (일시 : 8월 18일)

4) 행정 업무

(1) 갈등해결센터 호스팅 3년 연장 (일시 : 1월 20일)

(2) 갈등해결센터 도메인 1년 연장 (일시 : 1월 29일)

(3) 홈택스 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 (일시 : 1월 30일)

(4) 김세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일시 : 3월 26일)

(5) 오즈메일러 SMS 5,128통 구입 (일시 : 3월 30일)

(6) 구글 드라이브 1년치 용량 업그레이드 (일시 : 4월 21일)

(7) 오즈메일러 1년치 메일 서비스 결제 (일시 : 9월 8일)

(8) 온라인 zoom 회의 요금제 구입 (일시 : 11월 13일)

(9) 오즈메일러 SMS 5,128통 구입 (일시 : 12월 9일)

【2】 평화·통일 사업

1.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형성을 위한 적극적 평화만들기 활동

【2020년 사업계획】

2020년은 국내외적 차원에서 여성과 평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이다. 아울러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에 평화여성회는 정세와 현안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현안에 대한 논평과 성명서 등 입장문을 발표하여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 성명서, 논평 발표 (B 언론 활용 등)
- 21대 총선 대응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법, 제도, 정책 제안활동
- 통일, 외교, 안보 관련 시민사회 연대활동 참여

1) 성명서/기자회견문/논평 발표

- 1월 10일 [기자회견문]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No War on IRAN!
- 1월 17일 [성명서]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주권침해 발언에 대해 사과, 철회하라!
- 1월 22일 [기자회견문] 한국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 1월 22일 [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성명] 평화를 위협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철회하라!
- 2월 18일 [기자회견문]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 2월 19일 [기자회견문] 미국의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를 규탄한다
- 2월 22일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 2월 28일 [성명서] 삼성의 ‘꼼수사과’를 규탄한다
- 3월 17일 [기자회견문] 강압으로 50억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 3월 19일 [기자회견문] [삼성 불법 사찰 꼼수사과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불법사찰 감추는 꼼수사과, 삼성을 규탄한다”
- 3월 31일 [성명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 3월 31일 [성명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 4월 21일 [성명서]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4월 21일 [성명서] 현직 의원 비서관의 가정폭력에 대해 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와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에 책임을 다하라.
- 4월 27일 [성명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건강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공동체 만들자!
- 5월 11일 [성명서] 통일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라!
- 5월 12일 [성명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파병이 웬 말이나!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분쟁이 우려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
- 5월 12일 [성명서]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 5월 22일 [기자회견문]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 7월 27일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 8월 14일 [성명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성명서 - 여성의 힘을 모아 식민과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자!

2) 성명서 기획 및 진행

- 4월 27일 [성명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건강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공동체 만들자! - 여성신문, 통일뉴스 보도
- 5월 11일 [성명서] 통일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라!
- 여성신문 등 기사화
- 통일부장관 앞 공문으로 전달함
- 5월 22일 [기자회견문]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 경향신문(사진), 한겨레신문(사진), 여성신문(기사) 보도 등
-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성명]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깨어진 신뢰의 회복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 8월 14일 [광복75주년 8.15 민족자주대회를 맞이하여,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성명] 여성의 힘을 모아 식민과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자!

3) 성과와 과제

- ① 성과 : 평화여성회는 2021년 6.15 여성본부 및 여성단체연합,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단체들과 함께 4.27 판문점 선언 2주년 기념 성명('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건

강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공동체 만들자'), '통일부는 양성평등담당관 신설하라',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 8.15 민족자주대회 '여성들의 힘을 모아 식민과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자' 성명서 등을 발표하여 주요 시기마다 성인지적 관점의 입장을 드러냈다.

동시에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작성한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법, 제도, 정책 제안을 기반으로 하여 2020년 한해 통일법제(남북교류협력법)개정에 대한 여성 참여와 성인지적 관점/원칙 반영, DMZ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 전달, 특별히 성인지적이고 인도주의적 대인지뢰 문제 해결 촉구 등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② 과제 : 이러한 활동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 그리고 여성대중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2021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체 여성운동 차원에서 어드보커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여성협력기반 조성 활동

【2020년 사업계획】

남북여성교류는 지난 해 북미 하노이협상 결렬 이후 다시 남북관계가 교착되면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성평화운동은 남북협력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남북여성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지닌다. 본회는 2020년 글로벌 여성 여성평화운동의 기조에 발맞춰 동아시아의 여성평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북한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남북여성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6.15 여성본부, 민화협 여성위원회 등 연대활동에서 리더십 발휘
- WPS 글로벌 의제의 동아시아 여성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북한여성들과의 협력 모색

■ 개요 및 성과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거의 단절되었고, 남한정부에 대한 북한당국의 신뢰는 대북전단 문제를 명분으로 하여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를 생중계하면서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나 여성교류를 시도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6.15여성본부와 민화협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여성계 의견 전달, 남북여성교류 재개 준비를 위한 과제 발굴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시에, 여성·평화·안보(WPS) 의제를 중심으로 GPPAC 동북아협의회, UNDPPA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여성운동 차원의 소통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줌 회의,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여성회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 북한여성들을 동북아 WPS 대화의 장에 초청할 것, 북한의 1325 NAP 수립 제안 등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

3.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2020년 사업계획】

2020년은 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이 마무리되고 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해이다. 평화여성회는 여성가족부 1325 국가행동계획 민간자문단 활동을 통해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내실화와 여성·평화·안보(WPS) 글로벌 의제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특별히 2018~19년에 수행한 WPS 의제 관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1325 국가행동계획 교육방법론 수립과 대중적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여성·평화·안보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WPS 글로벌 의제의 한반도 평화과정에의 적용을 위한 콘텐츠 발굴
- 1325 국가행동계획 대중적 확산 사업

1) 여성가족부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 신청 : 2020년 1월 31일/ 발표일 : 2020년 2월 말
- 제목 :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홍보영상 제작**
- 총사업비: 19,800,000원 (보조금: 18,000,000원, 자부담 1,800,000원)
- 사업 취지

① 평화여성회는 2019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여성·평화·안보’(WPS) 의제를 한반도 평화과정과 결합하여 성평등한 한반도를 구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전문가 워크숍 6회, 여성·평화 토크쇼(주제: 2030년 통일 한국의 모습, 여성과 청년이 기대하는 것은?) 1회, 그리고 『여성·평화·안보(WPS)와 성평등한 한반도 교육자료집』 제작 및 ‘여성·평화·안보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안내 리플렛 제작 등 세 부사업으로 진행되었다.

② 전문가 워크숍에는 시민단체활동가, 대학원생, 언론인, 국회의원 보좌관, 공무원 등 55명 이상이 참여신청 하여 6회 워크숍에 평균 30명 이상의 참여하였고, 여성·평화토크쇼에는 60명 정도가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③ 2019년 사업 결과를 평가해 보면 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1325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산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즉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한 대부분 동의하는 현실이다. 이렇듯 참여, 예방, 보호, 구호와 회복 영역의 구체화 그리고 여성의 실질적 삶의 문제와 결합시키기 어려움 등이 있다.

④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회가 2018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을 통해 발간한 『여성·평화·안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 개발』을 기반으로 전문가들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참여, 예방, 보호, 구호와 회복에 관한 1325 결의안의 네 기둥에 대한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한다.

⑤ 2020년 올해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 20년이 되고, 안보리 결의 1325호 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이 마무리 되는 해로 한반도적 맥락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와 1325 국가행동계획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년 ‘여성·평화·안보 전문가 네트워크 워크숍’의 참여자 중에서 1325 국가행동계획을 대중적 확산에 관심을 지닌 인재들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함으로써 여성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⑥위의 과정을 통해 논의된 여성·평화·안보 글로벌 아젠다와 1325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용 유튜브 자료를 제작하여 대중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 프로젝트 진행 주요 행정업무

- ① 예산변경 (2020년 5월 13일, 7월 1일), 중간보고서 제출(2020년 8월 7일)
- ② 2차 사업비 신청(2020년 9월 1일)
- ③ 3차 예산변경 (2020년 9월 10일)
- ④ 사업보고 워크숍 (2020년 11월 18일)
- ⑤ 사업결과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2020년 12월 7일)

■ 세부사업1 : “여성·평화·안보 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과 성평등한 한반도 콘텐츠 발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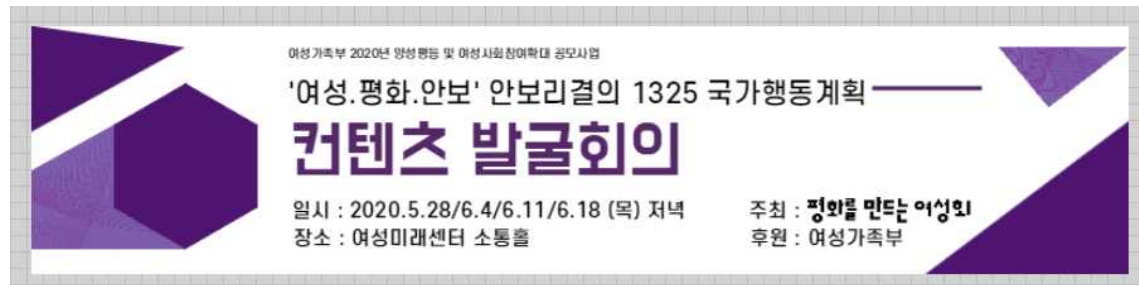
(1) 추진 방법

- 1325 국가행동계획 4개의 기둥인 참여, 예방, 보호, 구호와 회복 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발굴하고자 함
- 발굴된 내용을 1325 국가행동계획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교육용·홍보용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함

(2) 콘텐츠발굴회의의 준비를 위한 자문회의

- 일시와 장소: 2020년 4월 7일(화) 저녁 6시,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참석: 김경선, 김정아, 조영주, 조영숙, 조정아, 여혜숙, 김정수, 김세민
- 내용: 사업개요 설명, UNSCR 1325 콘텐츠 발굴 방향(귀납적, 연역적) 및 의미 등

(3) 진행 내용 (목요일 저녁 6시 30분~9시)



		주제와 핵심 쟁점	발제
1차 ▪ 5월 28일	참여	여성평화안보 의제와 1325 국가행동계획에서 "참여"의 핵심 과제는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여성참여의 확보이다. 그러나 장기간 고착된 분단, 정치군사화된 남북/북미 협상의제, 남성 전문가 중심주의에서 여성/성인지적 참여의 의미를 드러내고 참여의 방법을 구현하는 난제가 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법, 제도, 정책, 실현 혹은 개입 전략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조영주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2차 ▪ 6월 4일	예방	여성평화안보 의제와 1325 국가행동계획에서 "예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분쟁 하 성/젠더 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성, 이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예방의 의미, 즉 분쟁의 예방인가 혹은 분쟁 하 성/젠더 폭력의 예방인가에 대한 논의 속에 여성평화 운동의 과제도 발굴해 본다.	조영미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3차 ▪ 6월 11일	보호	여성평화안보 2기 1325 국가행동계획에서 "보호"의 주요 대상은 해외의 분쟁 하 성폭력 피해자 지원, 국방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탈북 여성 및 난민 지원 등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외교부의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보호의 영역을 확대할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 여성단체의 주도로 진행되는 1325 경기행동계획 수립 구상을 통해 WPS 의제의 지역화(localization)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정아 경기여성 단체연합 상임대표
4차 ▪ 6월 18일	구호와 회복	여성평화안보 2기 1325 국가행동계획에서 "구호와 회복"은 주로 우리 정부의 해외 개발협력과 분쟁지역 여성참여와 보호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남북여성협력, 특히 경제협력 분야로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3기 국가행동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 내용을 마련해 본다.	조영숙 한국여성 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4) 콘텐츠 발굴회의 참여자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김숙임	(사)조각보 이사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윤보영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강사	박인혜	평화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덕경	평화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
전희정	여성평화외교포럼 프로그램 디렉터	김정아	평화여성회 이사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세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활동가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신화경	지구톤 PD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민산	지구톤 DIRECTOR
고유경	WILPF 컨설턴트		
최수산나	한국YWCA 중점운동본부장	정현백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 여성가족부 장관

▣ 세부사업2 : “여성.평화.안보 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과 성평등한 한반도 담론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진행(2회)

(1) “여성.평화.안보 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과 성평등한 한반도 담론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준비회의

① 7월 21일(화) 저녁 (장소: 이디야 카페)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김정아, 박인혜, 이덕경
- 내용 : 1차 사회적 대화 진행안 검토
 - 사회적 대화 발제 내용 공유
 - 사회적 대화 질문 내용 검토 및 수정
 - 사회적 대화: 조별 나눔 및 고려해야 할 것, 피해야 할 점 논의 등

② 8월 13일(목) 저녁 (장소 : 이디야 카페)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김정아, 박인혜, 이덕경
- 내용 : 2차 사회적 대화를 마친 후 전체 진행 중 잘된 부분, 개선할 부분 논의
 - 1차 사회적 대화에 비해 잘된 점과 차이
 - 여성의 삶, 나의 삶에서 평화적 참여에 대한 질문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
 - 1325 동영상 자료에 대한 의견 등

1차	일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7월 23일(목) 오후 6:30~9:00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 여혜숙 공동대표 (갈등해결센터 소장) ○ 특강: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를 아시나요? 강의 이현숙(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사회적 대화(1) - 조별 Facilitation 방식으로 운영 <table border="1"> <tr><td>사회적 대화 진행방식 소개, 조별 진행자 소개, 경청규칙 안내 (3분)</td></tr> <tr><td>휴식과 자리 배치 (12분)</td></tr> <tr><td>진행자 인사, 경청토의 규칙 확인, 참여자 소개</td></tr> <tr><td>질문1: 강의를 들은 후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0분)</td></tr> <tr><td>질문2: 여성·평화·안보와 내 삶의 연관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5분)</td></tr> <tr><td>질문3: 여성이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15분)</td></tr> <tr><td>전체 모이기 (발표 준비)</td></tr> <tr><td>조별 발표: (각 2분 이내, 중복되지 않게) 1조·3조: 질문2, 2조·4조: 질문3</td></tr> <tr><td>소감 나누기와 마무리</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 진행자 : 박인혜, 이덕경, 김정아 ○ 사회적 대화 참석자 : 15명 	사회적 대화 진행방식 소개, 조별 진행자 소개, 경청규칙 안내 (3분)	휴식과 자리 배치 (12분)	진행자 인사, 경청토의 규칙 확인, 참여자 소개	질문1: 강의를 들은 후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0분)	질문2: 여성·평화·안보와 내 삶의 연관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5분)	질문3: 여성이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15분)	전체 모이기 (발표 준비)	조별 발표: (각 2분 이내, 중복되지 않게) 1조·3조: 질문2, 2조·4조: 질문3
사회적 대화 진행방식 소개, 조별 진행자 소개, 경청규칙 안내 (3분)										
휴식과 자리 배치 (12분)										
진행자 인사, 경청토의 규칙 확인, 참여자 소개										
질문1: 강의를 들은 후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0분)										
질문2: 여성·평화·안보와 내 삶의 연관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5분)										
질문3: 여성이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15분)										
전체 모이기 (발표 준비)										
조별 발표: (각 2분 이내, 중복되지 않게) 1조·3조: 질문2, 2조·4조: 질문3										
소감 나누기와 마무리										
2차	일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8월 13일(목) 오후 6:30~9:00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 여혜숙 공동대표 (갈등해결센터 소장) ○ 특강: 여성들이 평화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강의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사회적 대화(2) - 조별 Facilitation 방식으로 운영 <table border="1"> <tr><td>사회적 대화 진행방식 소개, 조별 진행자 소개, 경청규칙 안내 (3분)</td></tr> <tr><td>휴식과 자리배치 (12분)</td></tr> <tr><td>진행자 인사, 경청토의 규칙 확인, 참여자 소개</td></tr> <tr><td>질문1: 강의를 들은 후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0분)</td></tr> <tr><td>질문2: 여성이 평화롭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생각한 때는 언제인가요? (15분)</td></tr> <tr><td>질문3: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5분)</td></tr> <tr><td>전체 모이기 (발표 준비)</td></tr> <tr><td>조별 발표: (각 2분 이내, 중복되지 않게) 1조·3조: 질문2, 2조·4조: 질문3</td></tr> <tr><td>소감 나누기와 마무리</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 진행자 : 박인혜, 이덕경, 김정아 ○ 사회적 대화 참석자 : 13명 	사회적 대화 진행방식 소개, 조별 진행자 소개, 경청규칙 안내 (3분)	휴식과 자리배치 (12분)	진행자 인사, 경청토의 규칙 확인, 참여자 소개	질문1: 강의를 들은 후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0분)	질문2: 여성이 평화롭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생각한 때는 언제인가요? (15분)	질문3: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5분)	전체 모이기 (발표 준비)	조별 발표: (각 2분 이내, 중복되지 않게) 1조·3조: 질문2, 2조·4조: 질문3
사회적 대화 진행방식 소개, 조별 진행자 소개, 경청규칙 안내 (3분)										
휴식과 자리배치 (12분)										
진행자 인사, 경청토의 규칙 확인, 참여자 소개										
질문1: 강의를 들은 후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0분)										
질문2: 여성이 평화롭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생각한 때는 언제인가요? (15분)										
질문3: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5분)										
전체 모이기 (발표 준비)										
조별 발표: (각 2분 이내, 중복되지 않게) 1조·3조: 질문2, 2조·4조: 질문3										
소감 나누기와 마무리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과
성평등한 한반도 담론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지하1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1 차	2 차
일시	2020. 7. 23(목) pm6:30 ▶ 9:00	2020. 8. 13(목) pm6:30 ▶ 9:00
1부	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소개 동영상 보기	
특강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를 아시나요?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여성들이 평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2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사회적 대화I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사회적 대화II
대상	사회적 대화 참여자 (20명 선착순 / 참가비 무료) 2030 청년세대, 평화통일교육자, 여성·평화·시민단체 활동가 등	
신청	https://bit.ly/3fm5NeZ	
문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929.4846/4847	

주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원  여성가족부

■ 세부사업 3 : 대중화를 위한 동영상 제작 작업

(1) 동영상제작팀 미팅

- 일시와 장소: 2020년 3월 10일(화) 오후, 본회 회의실
- 참석: 지구톤 제작자와 프로듀서 2명(신화경, 김민산), 김경선, 김정수
- 내용: 사업개요 설명, 동영상 제작 방향

(2) 여가부 1325 대중화 동영상 제작 준비회의(3)

- 일시 : 8월 20일(목) 저녁
- 장소 : 바오밥나무 카페
- 참석 : 김정수, 김세민, 신화경 & 김민산 PD
- 내용 : 사회적 대화에 진행된 것에 대한 의견 나눔
1325 동영상 제작을 위한 계약 체결
 - 동영상 제작 일정 - 11월 10일 완료까지 일정표 대강 마련
 - 동영상의 구성: 설명 - 인터뷰 - 사회적 대화 등 배치

(3) 1325 동영상 제작 관련 진행 내용

① 동영상 제작 관련 온라인 회의(9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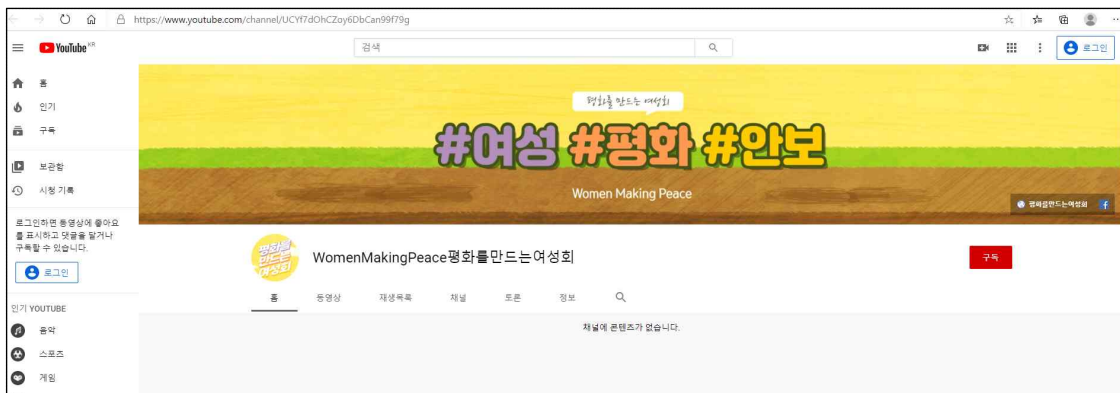
참석 : 김정수, 김세민, 신화경/김민산 pd

- 내용 : 1. 이현숙 조영숙 선생님 (평여 먼저 연락해두고) 직접컨택해 촬영 확정
2. 청년층 토크용 질문 각 3개씩 (9.23까지 골라서 확정은 9월말까지)
3. 청년층 토크 섭외 완료 (9월 말까지), 김경선, 김현지, 이가람 3명
4. 청년층 토크 (참가 4명 진행)
5. 민주평통 여성평화외교포럼 토크 유튜브 시청 (참고)
6. 전체적인 원고 + 큐시트 작성 (9월말. 추석전 완료)
7. 10월 16일 이전 전체적인 촬영 마치고 이후는 편집

② 단편 영상 제작(사회적 대화 스케치 영상 제작)

③ 이현숙 선생님 인터뷰 (10월 13일) - 신화경 pd (인터뷰 자료 아래 박스)

④ 평화여성회 Utube 채널 개설 (10월 14일)



⑤ 청년층 인터뷰 (10월 14일) - 신화경/김민산 pd : 김경선, 이가람

질문 :

1. 평화나 안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2. 평화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3. 내일 아침 눈을 떠 한반도에 전쟁이 재개됐다는 뉴스를 본다면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요?
4. 나의 삶의 평화란 무엇인가요? 일상은 평화로운가? 평화롭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삶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과거형이 아닌 지금도 진행되는 분쟁지역 성폭력 문제와 연결되는 데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6. DMZ가 없다면 청년들 삶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없다면? 왜?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7. 인상 깊게 본 전쟁 관련된 영화가 있나요?
8. 당신이 생각하는 '평화로운 나라'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9.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하고 있나요?
10. 전쟁이 재개되었을 때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나요?

1325영상제작 인터뷰 질문 (이현숙선생님)

1. UNSCR1325가 채택되기 까지 90년대, 오랜 기간 여성(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특히 한국여성들은 비엔나세계인권회의(김복동 할머니의 증언), 북경세계여성회의에 어떤 식으로 함께 했는지요?

2. 1325에서 이야기하는 참여, 예방, 보호, 구호와 회복의 논의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1325와 우리의 일상과의 연결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3. 우리는 1325결의와 국가행동계획과 관련해서 국가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변화들을 위해, 활동가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지)

4. No Women, No Peace 로 강의를 맺어 주셨습니다. 외교 안보 평화 구축 관련된 논의는 늘 남성의 영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성이 만들어가는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평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1325 동영상 콘티 작업(1차) 및 검토 (아래 박스 참조)

<쉽게 설명하는 1325> 일러스트 모션그래픽용 - 원고1차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성과 남성, 군인과 시민이 모두 같은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히 여성의 경험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분쟁 상황 속에서 죽음, 대량 학살, 고문 등의 폭력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큰 트라우마가 됩니다.

여성들은 여기에 더해 성폭력, 집단강간, 강제 임신, 기존에 존재하는 성차별에 연장으로 인한 불평등,

여성에 대한 지원 부족 등, 여성에게만 자행되는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지요.

*2차 세계대전 일본군'위안부'로 피해를 받은 여성의 수는 20만명으로 추산
1994년 르완다에서는 인종청소라는 명목 하에 약 50만명의 여성이 강간
시에라리온 내전에서 이주여성 6만여명이 성폭행 피해*

하지만 아주 오랜 기간, 분쟁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문제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폭력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는 인식이나 규정조차 없었으니까요.

분쟁이 끝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여성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전세계 평화협정의 서명자 중 여성은 5%
평화협상 중재자 중 여성은 2%, 평화 협상가 중 여성은 8%
1990년 이후 평화조약에서 585건의 분쟁 하 성폭력 중 단 17건 언급*

전 세계의 분쟁과 안보와 관련된 사건에 공식 의견을 결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국제기구인 유엔안보리에서도, 2000년 이전까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쟁 상황을 다룬 결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문제를 느낀 여성들은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며 문제제기를 하였고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회의 : 무력분쟁 하 여성인권 침해는 국제인권법 및 인도주의법 위반 규정
1995년 제4차세계여성회의 :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의 기본이 되는 '북경행동강령' 채택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에 강간, 성노예, 강제매춘 등의 성폭력을 '전쟁범죄'로 규정*

평화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촉구하고, 무력분쟁 상황에서 여성 인권의 보호를 위한 꾸준한 외침은

2000년10월31일 국제사회에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분쟁상황에서 여성인권을 보호할 것과, 평화 안보 의제에 관한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가 채택된 것입니다.

참여 : 분쟁 예방과 모든 평화과정의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 촉구
 보호 : 분쟁 상황에 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것
 예방 : 여성의 권리와 책임성 향상과 가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폭력 예방
 성주류화 : 분쟁예방, 평화구축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

안보리결의는 유엔구성원들이 이를 수락하고 이행해야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규범으로 영향력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권고 사항을 지켜가야 합니다.

2020년 10월 현재 86개국에서 1325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2014년 1기 국가행동계획, 2018년 2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고, 2021년부터 3기가 이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왔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25결의안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관심을 가져야 하나?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 이런 건 전문가들이 하는 말 아니야?

하지만, 조금만 둘러보면 이것은 내 삶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삶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받는 일은 일상 속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꼭 나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소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미투운동, N번방 사건, 여성혐오범죄, 유리천장, 묻지마 살인..

한국은 전쟁 경험이 있고, 아직 휴전 상태이며, 일본군'위안부' 피해 경험이 있습니다. **분단 상황 속에서 군사주의 문화가 강화되었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도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전쟁 이후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쌓여온 젠더에 기반한 불평등과 차별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식하고** 모든 폭력과 차별에 불평등에 저항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인간 안보에 기반한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삶에 찾아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 1325결의안과 이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이라는 도구적 장치(?)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1325결의안과 국가행동계획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운데, 당위적이지 않고, 설득적 표현으로 바꾸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잘 생각이 안나네요)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이 반영되지 않은 평화가 의미가 있을까요?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의 주체자로서 여성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⑦ 1325 동영상 디자인 이미지 검토

⑧ 완성 및 유튜브 업로드

업로드한 동영상 ▶ 모두 재생

 <p>여성평화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4:01</p>	 <p>인류의 절반이 참여하지 않는 평화가 어떻게 온전한 평화? 2:29</p>	 <p>쉽게 설명하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15:59</p>
<p>여성평화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조회수 34회 · 2주 전</p>	<p>인류의 절반이 참여하지 않는 평화가 어떻게 온전한 평화?... 조회수 28회 · 3주 전</p>	<p>쉽게 설명하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조회수 618회 · 4주 전</p>

- a. “쉽게 설명하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12월 9일)
- b. “인류의 절반이 참여하지 않는 평화가 어떻게 온전한 평화?”(12월 18일)
- c. “여성평화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12월 19일)

▣ 사업보고서 제작 및 여성가족부 보고

3) 여성가족부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 제2기 국가행동계획 민간자문단 활동

(1) 2기 국가행동계획 민관합동 이행점검회의

- ①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 제3차 민관합동 이행점검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2월 14일(금) 오후 3시, 광화문 여성가족부 회의실(17층)
 - 안건 : 2기 국가행동계획 2019년도 이행점검 결과 발표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보완
제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방안
 - 비고 : 여성가족부 내 1325 추진단 신설, 여성평화안보 국제회의 개최(9월 예정)
 - 참석 : 김정수
- ②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 제4차 민관합동 이행점검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8월 7일(금) 16:00 정부종합청사 1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정부측) 여성가족부장관 및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여가부 유엔안보리결의1325 추진단장 직무대리, 경찰청, 교육부, 한국국제협력단 1325 관련 담당자 (민간위원단) 김귀옥, 김정수, 박형빈, 신혜수, 장미란, 장필화, 조영숙
 - 안건 :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보완 등

(2) 여성가족부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 ① 북경행동강령 25주년, 1325 20주년 기념사업 : 시민사회 액션플랫폼
(2020 대한민국 성평등포럼 사전 프로그램)
 - 일시 : ① 7월 15일(수) 14:00(2차 워크숍), ② 7월 29일(수) 14:00(3차 워크숍)
 - 참여자 : 성평등 아젠다 관련 활동가 약 20명
 - 진행방식 : 온+오프라인 회의 - 워크숍 3회 및 의제별 활동 + 활동결과 발표(국제회의 등)
 - 의제 (1) 여성평화안보 분야의 성주류화 : “여성과 지역의 언어로 평화 안보 분야 변화”, (2) 젠더폭력(Gender based Violence), (3) 경제, 노동, 일, (4) 기후 변화와 젠더행동

② 2020 대한민국 성평등포럼 세션 참여

- 주제 : 성평등과 코로나19 위기
- 일시 : 2020년 9월 3~4일,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
- 프로그램 : 세션2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과 새로운 세대
좌장: 한미미 세계YWCA부회장
발표: 재클린 오닐 캐나다 여성, 평화, 안보 대사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 한국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의 성과와 과제
토론: 수미타 바수(남아시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3)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제 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관련

- ①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연구] 자문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5월 26일(화) 10: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 참석자 : (연구원) 조영주, 문희영, 윤지소, 김효경, (자문위원)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박형빈(서울교대 교수),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안건 : 1기 및 1기 국가행동계획 평가 및 3기 국가행동계획 방향
- ②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호 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연구’ 자문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8월 19일(수) 15: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 참석자 : (연구원측) 조영주, 윤지소, 문희영
(자문인사) 김정수, 조영숙, 정혜원(경기도가족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안건 : 3기 국가행동계획 방향

(4)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공청회

- 주최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일시와 장소 : 2020년 11월 26일(목) 14: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비대

면 온라인 중계)

- 내용 : 개회사, 축사,

o 발표(유엔안보리 결의안 제3기 국가행동계획안: 최혜민 여성가족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추진단 팀장)

o 지정토론 :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정진호(외교부 인권사회과장), 전은정(통일부 운영지원과장), 박순향(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

(5) 외교부 여성과함께하는평화 이니셔티브 자문회의

① 2020년 2월 5일(수) 오전 15:00, 외교부 양자회의실

- 주제: 2020년도 국제기구 사업 추진 계획

UNEFA 사업 추진 현황 및 인도적 수요, 신규 사업 제안

KOICA 민관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2020년도 민관협력사업 선정 결과 및 추진 계획

- 참석: 김정수

② 서면 자문회의 등

(6)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국가안보실 비서관 면담

- 일시 : 2020년 8월 28일(금) 15:00, BH 연풍문 2층

- 참석 : 통일비서관,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 내용 : 1325 국가행동계획과 WPS 글로벌 의제를 대통령 정책과제 강화 방안

- 여성가족부 이니셔티브

- 목표 수립과 성과 미흡 사이의 갭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진단,

-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함

- 비고 : 2012년 대통령 후보 공약(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 2018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등의 논거를 통해 대통령 정책과제로의 전환, 충실한 이행 촉구 등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여성가족부의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능함.

4) K-1325 네트워크 결성

(1) 준비위원회 회의

o 일시: 2020년 10월 20일(화) 오전 11시, 한국언론재단 19층 코리아프레스클럽

o 참석: 이현숙, 조영숙, 김정수, 이정아, 전희정

o 내용

① 취지/목적, 명칭, 역할, 조직구성, 참여단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눔

② 조직구성

1) 고 문 : 이현숙

- 2) 대 표 : 김정수
 - 3) 자문위원 : 정경란, 조영숙, 조영주
 - 4) 운 영 위 : K-WPS working group
(평화여성회,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연합, 경기여연, 한국YWCA)
 - 5) 사 무 국 : 평화여성회, 여성평화외교포럼
- ** K-1325네트워크는 국내 기반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함

③ 운영위(안) 모임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 공유하고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출범행사 진행하기로 함 - 여성연합 & 한국YWCA에 오늘 준비회의 내용 알리고 운영위 참여 제안하기로 함

(2) K-WPS 워킹그룹 3차 회의/K-1325 Network 2020 1차 운영위원회

- 일시: 2020년 11월 2일 (월) 오후 3시
- 장소: 내일신문사 4층 회의실
- 참석자: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최수산나(한국YWCA 연합회), 이정아 (경기 여성단체연합), 전희정 (여성평화외교포럼)
- 내용 : K-WPS워킹그룹 3차 회의를 통해서 K-1325Network 2020년 1차 운영위원회로 넘어가기로 함, 2020년 초동회의 결과 공유, K-1325네트워크 출범하고 기존의 K-WPS워킹그룹이 운영위원회가 되는 것에 모두 동의하다. 워킹그룹 3차 회의는 종료

K-1325 Network 2020 1차 운영위원회

○내용 : K-1325네트워크 발족에 대한 경과 보고, K-1325 네트워크 발족에 대한 의견 나눔, K-1325네트워크 조직, 역할,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 나눔 및 합의, 출범은 합의가 되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 역할에 “(3) 남북여성교류 촉진 및 한반도 여성평화운동 전략 마련”을 넣고, 사업은 별도 비고 란으로 빼기로 하다. K-1325네트워크 발족 기념 세미나 개최에 대한 의견 나눔 및 결정, K-1325 네트워크 출범식 (기자회견 방식 등의)은 별도로 2월에 출범식을 갖기로 한다. (출범식: 2월 19일 오후 1시~4시, 장소: TBC), 30~50명 참석 예상,

○ K-1325네트워크 조직의 건 : 네트워크 조직 범위: 기존2014년에 참여했던 단체를 아래 단체 목록을 기초로 조직을 시작하기로 함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연합, 새세상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

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WCA연합회, 조각보)

- 이후 단계별 결합을 해 내가는 방식으로 하기로 함

(3) K-1325 Network 2020 1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020sus 12월 18일(목) 오후 2시
- 회의 : 온라인 줌회의
- 참석 : 이현숙, 김정수, 이정아, 전희정, 최수산나

<p>■ K-1325 네트워크의 핵심 사업</p> <p>1) 1325 거버넌스: 3기 NAP Monitoring & Evaluation 평가지표 개발 및 ME Report 제출</p> <p>2) Capacity Building : 네트워크 단체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ining 프로그램/커리큘럼 개발 - NGO & GO(1325 참여 정부부처 관계자) 참여 교육프로그램 참여 <p>⇒ 3기 NAP 중 “이행 점검” 분야 세부 계획으로 포함 및 성과지표에 포함</p> <p>3) K-1325 네트워크 사업을 1325 NAP의 Budget으로 운영하도록 함</p> <p>4) 여성가족부, 조영주 자문위원 등과 논의하여 3기 NAP 공청회 이전에 위 내용 포함하도록 진행</p>
--

(4) K-1325 네트워크 & 대화문화아카데미 협력사업

WPS 전문가 포럼

주제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한 위한 여성평화 전략 모색”
일시	2020년 12월 1일 (화) 오후
장소	서머셋팰리스 회의실 (온라인-오프라인 통합회의)
프로그램	<p>1부 “COVID-19 이후 분단극복과 남북관계 개선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이현숙(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 발제 : 고유환(통일연구원 원장) ○ 토론 : 도지인(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 교수)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p>2부 “COVID-19 이후 한반도 여성평화운동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장필화(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발제 :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토론 <p>(1) 유엔안보리결의 1325 채택 20주년의 의미 (조영숙 양성평등 대사 /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p>

	(2) 평화과정 여성 참여 확대와 평화역량 강화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3)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교육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연대 과제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 총괄부장)
	3부 전체 토론
공동 주최	대화문화아카데미, 동아시아평화회의 K-1325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경기여성단체연합, 여성평화외교포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5) 기타 WPS 의제 및 1325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① UNSCR 1325 채택 20주년 여성평화전략 모색 준비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2월 11일(화) 12:00, 내일신문 건물 1층 카페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대표, (여성평화외교포럼 이현숙 명예대표, 장필화 이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 한국YWCA연합회-최수산나 부장,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 김엘렌 연구원 등)
- 내용 : 1325 채택 20주년 기념 공동사업 논의 및 (가칭) KWPS NGO Working Group 결성 등
- 후속활동 : 코로나19로 진행되지 않음

② 2020 Virtual Stockholm Forum on Peace and Development

- 주제: Geopolitics and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North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 일시 : Tuesday 19 May, 14:00-15:00 CEST
- 공동주최 : SIPRI, UN DPPA, Swedish Dialogue Institute for the MENA
- 참여 : 시리아, 예멘, 일본, 한국의 WPS 관련 활동가, 교수, 외교관 등
- 참석 : 김정수

③ Center for Humanitarian Dialogue 인터뷰 (온라인)

- 일시 : 2020년 7월 17일(금) 15:00
- 내용 : ① CHD는 평화과정의 여성참여 중 Track 1 단계의 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한반도 맥락에서 진행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인터뷰를 진행함, ② 향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북여성이 참여하는 track 1 단계의 대화를 후진하고자 함
- 인터뷰어 : 정지윤 CHD 싱가포르오피스 Project Associate
- 인터뷰 참가 : 김정수

③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20주년 기념 2020 경기여성 평화심포지엄- 325 경기행동강령의 선언의 날

- 일시와 장소 : 2020년 8월 31일(월) 14:00 (파주) 민족화해센터 회의실 - 온라인 회의
- 주관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참석 김정수(토론 : 북경행동강령채택+25,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20 지역화의 성과)

④ "평등한 미래를 위한 세대평등 행동 Generation Equality Action for an Equal Future" 포럼

- 주최 : 여성평화외교포럼
- 일시와 장소 : 2020년 9월 26일(토) 14:00~ 장소: 코리아나호텔 컨벤션홀 (온-오프라인)
- 주제 : "UNSCR 1325 이행을 위한 사회적 대화 : 국가행동계획과 시민사회의 역할"
- 토론 : 김정수

6) 성과와 과제

① 2020년 평화여성회가 가장 집중적으로 활동한 영역으로, 여성가족부 성평등 지원 사업을 받아 (1) 1325 국가행동계획 콘텐츠 발굴 회의를 통한 예방, 참여, 보호, 구호와 회복, 이행점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정책 과제 발굴, (2)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를 통해 '여성들의 관점에서 평화의 개념 재구성'과 '여성들의 평화 만들기 찾아보기' 등을 통해 전문가와 여성평화 단체 중심으로 논의되던 WPS 아젠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 (3) '쉽게 설명하는 1325' 비디오를 제작하고 평화여성회의 '여성, 평화, 안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탑재하고 홍보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여성가족부가 1325 국가행동계획 2기를 2020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3기 국가행동계획수립을 준비하였는데, 평화여성회는 위 콘텐츠 발굴 회의(4회 진행)를 통해 주요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들이 3 국가행동계획 초안과 세부 행동계획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경기여성단체들이 추진하는 지역화 작업도 담론, 내용, 발굴전략 등 차원에서 지원하고, 역시 3기 국가행동계획에 지역화 행동계획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개최 2020년 글로벌성평등포럼 발제 등을 통해, WPS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개입에 대한 의견 제안하였고, 이 내용도 3기 국가행동계획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여성가족부와 거버넌스, 수도권-지역(경기도)의 여성단체-동북아 여성운동을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담론화, 행동 계획 콘텐츠 발굴 및 대중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평화여성회의 영향력을 확대게 되어, 하반기 K-1325 네트워크 조직 재개라는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② 과제 : WPS 의제의 전문화와 대중화, 지역화와 국제화 등 차원에서 기여하였으나, 회원들 개개인이 이 의제에 대해 가지는 인식 개선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지니며, 동시에 3기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여성시민사회의 거버넌스와 개입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 2021년에는 이러한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지닌다.

4.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연대활동

【2020년 사업계획】

2019년 한국여성평화운동은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과 연대하여 한국여성들의 평화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적극적 활동을 전개했다.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의 일원으로 기획, 콘텐츠 발굴, 참여의 측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2020년에도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 Korea Peace Now 글로벌 캠페인 연대 및 한국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활동 참여 (네트워크에는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전국여성연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
- 평화협정과 여성참여 사례연구 및 학습
-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수립을 위한 여성시민공공외교 참여
-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GPPAC) 동아시아협의체 활동 등

1)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

-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활동 포함

(1) 운영위원회 회의

① 제9차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2월 7일(금) 오전 10:00 여성미래센터 바오밥나무
- 안건: 2020 KPN 운영위 보고 및 협의사항, DMZ Women Peace Action 관련 협의, CSW 기간 내 UNSC 회원국 방문협력 계획 관련의 건,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의 건

② 제10차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운영위 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3월 17일(화) 오후
- 참석: 김영순(여성연합 상임대표), 한미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미미(세계YWCA부회장), 최수산나(한국YWCA 부장), 김정수(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안건: Women Peace Action 협의 및 대안활동 논의-코로나19로 취소되어 하반기 진행 혹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가능성, End the Korean War 시민사회 연대활동 협력, 단체별 사업기획 점검과 협의 등

③ 제11차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운영위 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5월 15일(금) 오후, 민주평통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한미미, 최수산나, 조영미
- 안건: 5.24 평화와 군축을 이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단체 기자회견 논의, 연대활동 협의의 건: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군사안보에서 시민안전으로 라운드테이블 제안(참여연대), 한국전쟁 종식 평화 캠페인 준비위원회 참여 관련, 한국전쟁 70년 기억사진전 공동 주최 제안(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등

④ 제12차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운영위 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6월 12일(금)오전, 여성미래센터
- 참석 : 김정수, 김영순, 한미미, 최수산나, 조영미, 한미경
- 안건 : 단체별 협력사업 세부내용 협의의 건, 서울평화포럼 관련의 건, 킬러로봇 기금 운영의 건, 기타

⑤ 제13차 긴급운영위원회 (온라인 회의)

- 일시 : 2020년 8월 7일(금) 오후 9시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미미(세계YWCA부회장), 최수산나(한국YWCA부회장), 조영미(집행위원장)
- 내용 : Nobel Women's Initiative 상황공유 및 결정 : 캐나다 기반 NWI 단체 내 유색인 활동가 집단 퇴직 후 사무총장(Korea Peace Now 캠페인 공동집행위원장)이 단체 정비를 위하여 NWI가 활동 중단을 결정하여 이에 대해 대책회의 진행함 - 단체 내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그간의 활동, 특별히 한반도 평화와 여성들을 위한 노력에 대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함

⑥ 제14차 운영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8월 21일(금) 16:00, 종로2가 더빅스터디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외 활동가1인, 한미미(세계YWCA부회장), 최수산나(한국YWCA부회장), 조영미(집행위원장)
- 안건 : 경기DMZ평화포럼 관련의 건, 킬러로봇 캠페인 운영의 건, 기타
- 비고 : 사전 모임("킬러로봇 캠페인 연구 발표 및 관련 협의"(발표: 고유경 WILPF 컨설턴트), 평화여성회 협력사업 : 학습모임(2020년 9월 28일, 월) 주제: 킬러로봇 관련 추가 학습(김자희 변호사, 현재 광주시의회 전문위원), 주한미군

세균전 실험 반대운동 관련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2)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주요 행사 관련

① WPS 의제 - 젠더와 개발협력사업 관련 논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1월 31일(화) 바오밥나무

- 참석 : 조영숙, 조영미, 김정수, SIPRI 정연주 연구원

② 2020 Women Crossing DMZ 행사 협조 요청

- 일시와 장소 : 2020년 2월 5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 참석 : 김정수, 조영미, 한미미, 한미경

- 청와대측 :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창수 통일정책비서관,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

(3) 경기도DMZ포럼 중 여성평화세션

- 전체 주제 : DMZ는 평화를 원한다.

- 일시와 장소: 2020년 9월 18~19, 일산 킨텍스

- 기조연설 : 리마 보위(노벨평화상 수상자)

- 일시와 장소 : 2020년 9월 18일 오전9:30~10:40 일산킨텍스 제1전시장

▣ 평화운동협력세션 :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와 한반도

- 사회: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발표 : 크리스틴 안 Women Cross DMZ 사무총장(여성 평화구축자 : 한반도 평화를 여는 열쇠), 재클린 오닐 캐나다 외교부, 여성, 평화, 안보 대사,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여성들의 참여와 성평등한 한반도: 성과와 향후 방향)**, 잰 셔카우스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평화와 여성 참여에 대한 논평), 이재정 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4) 한반도 평화과정과 성평등한 한반도 학습모임

(평화여성회-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협력사업)

① 1차 : 2020년 9월 28일(월) 15:00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사회 :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 주제1 : 주한미군 세균전 실험: 현황과 문제점

(발제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주제2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동맹의 쟁점과 과제

(강의 : 정한범 교수(국방대 국방정책센터장)

- 참석 : 14명

② 2차: 2020년 10월 19일(월) 15:00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주제: 북한이해(1)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국가비전, 통치전략, 남북/북미관계 전망
(강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자문연구위원)

- 참석 : 13명

③ 3차 : 2020년 11월 30일(월) 15:00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주제 : 미국 대선과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강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자문연구위원)

- 참석 : 12명

④ 4차 : 2020년 12월 21일(화) 15:00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주제 :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와 한반도 정책, 중국의 생각은?
(강의: 홍인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전 경향신문 중국특파원)

- 참석 : 12명

(5) 평화협정과 여성참여 사례연구

1) 1차 준비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10월 7일(목) 오후 4시, 대학로 카페
- 참석 : 김정수, 정은아(기후환경연구소 연구원)
- 내용 : 연구주제에 대한 검토와 목차 관련 브레인스토밍

평화협정 사례연구 (brainstorming)

1. 해외 평화협정 여성참여 사례연구

- 여성참여의 성격 분석: 단순한 참여에서 의미있는 참여 혹은 성인지적 개입까지
- 의미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 : 각각의 평화협정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 각각의 사례에서 WPS 1325 결의안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해외 평화협정 중 여성 조항 사례연구

- 여성관련 조항 내용 검토와 분석

3. 한반도 평화과정을 위한 의미있는 여성참여 제안

- (1장) 한반도 평화과정의 여성참여를 위한 시사점 도출
- (3장) 민의 평화협정' 사례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 (2장) 한반도 평화과정의 의미있는 여성참여를 위한 여성평화리더십의 특징
- 1325 국가행동계획 개선방향 제안 등등

진행일정 - 각 단계 자문 포함

2020년 10~12월 자료 조사 및 검토

2021년 1월 중 목차 정리 및 초안 집필 2월 중 초안 검토 및 자문회의

3월 중 연구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 등

2) 2차 준비회의

- 일시와 장소 : 2021년 1월 2일, 온라인 줌회의
- 참석 : 김정수, 정은아
- 내용 : 해외 사례 연구 내용 검토 및 향후 방향 논의 등

2)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Korea Peace Appeal)

(1) <한국전쟁 70년, End the Korean War, Peace Treaty Now(가안)> 캠페인 기획회의

① 1차 회의 : 2020년 2월 20일(목) 오후 4시-6시, 포레스트99 (안국동)

- 참석 : 김정수, 김세민
- 논의 : 종전 캠페인 제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공유, 캠페인 이름과 Korea Appeal의 내용, 2020년 목표와 3년 타임라인, 주요 활동 아이디어, 각 단체 2020년 계획 공유와 연결 가능성, 캠페인단 구성 계획 등
- 참여 단체 : 6.15 남측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통일의병/평화재단,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 금정굴인권평화재단,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바람, 피스모모 등
- 평화여성회는 아직 캠페인 참여 여부 결정하지 않음

② 2차 회의 : 2020년 3월 11일(수) 오후 2시-4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참석 : 김세민
- 논의 : ▷슬로건, 캠페인 발족일, 비전, 목표와 촉구 대상 등 한국전쟁 종식 평화캠페인 개요 검토 및 결정,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요청 Korea Peace Appeal(가) 검토 및 결정 : 전쟁의 피해(영향)-정부의 한계-그래서 우리가 나선다의 흐름으로 이어가기로 결정, ▷각 집단을 행동층(캠페인을 함께 할 파트너), 지지층(캠페인을 지지하고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파트너), 반응층(최소한 캠페인에 반대하지 않는)으로 나누어 캠페인 파트너를 찾아봄, ▷초동회의에서 참석 의사를 밝힌 단체들을 바탕으로 기획회의 + 1팀. 어필 내용 준비, 정책 전반, 웹사이트 개발, 2팀. 회의준비, 진행, 안건구성, 3팀. 지역/부문별 설명회 조직, 국제 네트워크, 서명전략으로 나누어 조직하기로 함.
-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기획회의에만 속해있기로 결정함.
- 참석 단체 : 평화바람, 피스모모, 6.15남측위, 한베평화재단, 한반도평화행동, 평택평화센터, 공공운수노조, YMCA, 참여연대, 빠띠, 민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NCCK,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제주다크투어, 전쟁없는세상, 흥민통, YWCA

- ③ 3차 기획회의 : 2020년 4월 22일(수) 15:30~18: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석 : 김세민
 - 논의 : ▷지역별/부문별 설명회(안) 검토 및 결정 : 지역의 경우, 지역 단체 특수성이 있기에 지역 연단체에 협력을 요청하여 진행하기로 함. 설명회는 5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온/오프라인 서명 계획 검토 및 결정 : 오프라인 1차 계획) 서명 패키지 제작, 한국전쟁 관련 전시, 2차 계획) 지하철, 버스정류장, 광고, 신문 광고로 결정함. 온라인 서명은 1차)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 서명 배너 웹사이트 게시, 뉴스레터 발행. 2차) 각종 디지털기기 배경화면 제작, 단체별로 짧은 영상 제작으로 결정함. ▷국제연대 활동 계획 검토 및 결정 : 국제네트워크 및 파트너 단체에 온라인 서명 참여 촉구, 해외 언론/미국대선/유엔에 대응하기로 결정함. ▷웹사이트 구성(안) 검토 및 결정
 - 참석 단체 : 한선남(평화바람), 김영철/한광희(피스모모), 권희섭(1인 평화활동가), 박정윤(6.15 남측위),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김세민(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현옥(금정굴인권평화재단), 권오현/황은미(빠띠), 백가운(제주 다크투어), 신미지/이영아/황수영(참여연대), 이은석(한반도평화행동), 배수빈(흥민통), 허진선(민변), 김건태(공공운수노조), 소상엽(통일맞이) 강경란(정의기억연대), 한경아(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 ④ 5차 기획회의 : 2020년 5월 7일(목) 14:00~,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참석 : 김세민
 - 논의 : ▷분야별/지역별 설명회 일정, 섭외 담당 확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설명회 방식 외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다각화하여 후속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현재의 기획회의를 발족 전엔 준비위원회, 캠페인 시작 후엔 집행위원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함. ▷캠페인 필요성과 참여 독려를 위한 릴레이 인증샷이나 릴레이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함. 여러 단체 로고, 개인들의 참여를 비주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자와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보기로 결정함. ▷분담금은 대략 단체 5만원, 개인 1만원 이상 정도로 두고, 각 단위별 가능한만큼 관행에 따라 내는 방식으로 결정함. 2020년도 예산을 대략적으로 짜보고, 분담금 규모 등을 가늠하기로 결정함.
 - 참석 단체 : 한선남/오두희(평화바람), 황은미(빠띠), 정옥식(평화네트워크), 전준희(팍스크리스티코리아), 유병수(흥민통), 박정윤(6.15 남측위), 신미지/이영아/황수영(참여연대), 최수산나(YWCA), 허진선(민변), 김세민(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윤혜란/양다운(YMCA), 한경아(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이현옥(금정굴인권평화재단),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노혜민(NCKK), 백가운(제주 다크투어), 김건태(공공운수노조),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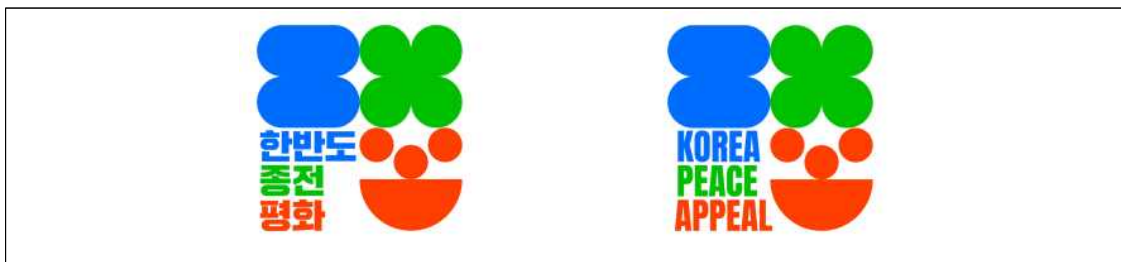
(2) <한국전쟁 70년,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End the Korean War> 캠페인 준비위원회 구성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5월 21일(목) 14:00~,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참석 : 김세민
- 논의 : ▷한국전쟁 종식 평화 캠페인(가칭) 개요 및 활동 계획(안)을 결정함. ▷한국전쟁 종식 평화 캠페인(가칭)의 조직 구성을 결정함. ▷2차례의 준비위원회 후, 6월 24일(수)에 캠페인 제안 기자회견 개최를 결정함. 서명운동 시작 및 웹사이트 오픈은 7월 27일 즈음으로 캠페인 발족 이벤트에 맞춰서 진행하기로 결정함.
- 참석 단체 : 한선남(평화바람), 백왕순(통일의병), 김진영(통일바루), 이두찬(문화연대), 허진선(민변),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최병현(주권자전국회의), 이근향(노근리국제평화재단), 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 이단아(형명재단), 신미지/이영아/황수영(참여연대),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이은석(한반도평화행동), 양다은(YMCA), 유병수(흥민통), 한광희(피스모모), 김세민(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현옥(금정굴인권평화재단), 박정윤(615 남측위), 백가운(제주다크투어), 노혜민(NCCK), 오혜란(평통사), 황은미(빠띠),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제안자/제안 단체 전체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6월 24일(수) 오전 10시,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
- 참석 : 김정수(제안단체 여성계 대표 발언), 김세민
- 안건 : 경과 보고, 사업계획(안),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예산(안),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호소문(기자회견문)
- 제안단체와 제안자 현황 : 2020년 6월 23일 현재 전국 165개 단체, 463명 개인

(4)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식 (발족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0년 7월 27일(월) 10:0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김세민 활동가
-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시다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

이제는 전쟁을 끝냅시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분단과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수백만의 사상자와 천만 이산의 고통을 가져온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입니다. 냉전 시대 한반도에서 벌어진 정치적·군사적 대결과 갈등으로 한반도 주민들과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분단과 적대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

다시 적대와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냉전이 끝난 30년 전 남북은 상호존중과 불가침에 합의하였습니다. 20년 전 남북은 첫 정상회담을 열고 전면적인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8년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한 대가로, 신뢰가 불신으로 바뀌고 긴장이 높아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뤄낸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슬픈 상황입니다.

지난 역사는 상대를 불신하고 굴복시키려는 적대 정책이 한반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화시켜 왔음을 보여줍니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핵 전쟁의 위협에 시달려왔고 세계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하는 장이 되어왔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한반도 비핵화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국 정부들이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인의 마음을 모아 대결과 분쟁의 상징이었던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의 산실로 바꿔냅시다

한반도 주민들과 동아시아, 세계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 우리의 자원을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환경,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전쟁을 끝내고, 지난 70년 오지 못했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전 세계가 공명할 만큼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칩시다.

(5) 한반도 종전 캠페인 (상임)집행위원회

① 2020년 7월 1일, 오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② 2020년 7월 8일(수) 오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

- 참석 : 김정수 (상임집행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함)

- 안건 : 상임집행위원 구성, 각 위원회별 상황 공유 및 논의, 정당 참여 여부, 정당 조직 방안 결정, 분담금 결정, 7월 21일(화) 전체회의 진행안 결정, 7월 27일(월) 발족행사 진행안 및 결정, dmz 포럼 관련 제안 검토 및 결정

- ③ 2020년 8월 13일(목)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 안건 : 차기 집행위원회 안건 검토, 캠페인 내부 토론회 진행안,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워크숍, 8.15 계기 활동계획, 민주평통 협력제안 관련 논의 등
- ④ 상임집행위원회+사무처 워크숍
 - 일시 : 2020년 8월 24일(월) 13:00, 온라인 zoom 회의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 안건 : 지금까지의 활동과 향후 계획 등
- ⑤ 집행위원회+사무처 워크숍
 - 일시와 장소 : 2020년 11월 23일(월) 14:00, 온라인 zoom 회의
 - 참석 : 김정수 대표
 - 안건 : 캠페인 2020년 활동 현황, 서명특별위원회, 정책위원회 평가 공유, 2021년 계획 논의 등
- ⑥ 상임집행위원회+사무처 워크숍
 - 일시와 장소 : 2020년 12월 17일(목) 14:00~, 서촌문화공간 별안간
 - 참석 : 김정수
 - 안건 : 보고서항, 신년 기자회견 <2021년 한반도 종전 평화를 바라는 2021명 코리아 피스 메이크> 선언 논의, 미국 대선 대응 논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공동대응 논의, '평화의 가게' 간판 제작 예산 사용 승인의 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단계별 목표(안)에 대한 논의, 2021년 사업계획(안) 논의
 - 참조: 2021년 주요사업(안) - 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과 선언운동, 시민 평화로비, 시민평화행동, 시민평화대화, 시민문화교류, 캠페인 네트워크 확대/강화 등

■ 2020년 10월 15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미 대선 후보에게 서한 발송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보내는 서한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는 전쟁을 끝냅시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한반도 종전과 평화에 대한 지지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대표단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로 67년이 된 올해 7월 우리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공동의 요구를 담은 한반도 평화선언을 기초하였고, 이에 대한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받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한국의 7대 종단을 비롯하여 360여 개의

다양한 종교·시민사회단체, 그리고 50여 개의 국제 파트너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하루속히 한반도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 주민들에게 큰 희생과 상처를 주었고, 이 전쟁에 참전한 미국인들과 그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끝내지 못한 한반도는 냉전 시대 이념과 체제 대결, 군사력 대결의 장이 되었고,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도 군비 경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반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남과 북의 주민들은 전쟁 위협의 말들과 군사 행동들이 펼쳐질 때마다 전쟁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위협과 공포를 끝내고 신뢰 구축과 평화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들에게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 등이 적극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 바탕이 될 것입니다.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노력이 함께 진행될 때 서로 좋은 성과를 내며 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의 남북 합의와 협력을 존중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남북 정상은 미국을 포함하여 관련국들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협력을 통해 신뢰가 구축된다면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성과를 낳는 의미있는 대화 창구가 많을수록 협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력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북미 협상의 역사를 돌아볼 때, 미국 정부가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협상 전략의 중심에 두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던 시기에 북미 협상이 성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남측 국민이 북측의 해역에서 피격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은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과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한반도에 어떤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 한반도에 종전과 평화가 왜 절실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이렇게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한반도 평화선언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요청에 미국 대통령 후보께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전쟁을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대표단

명예대표 : 원행(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이홍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오도철(원불교 교정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손진우(유교 성균관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송범두(천도교 교령,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김희중(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공동대표 : 구중서(기지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삼열(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원웅(광복회 회장), 문정

현(신부,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평화바람),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정숙(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기범(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현숙((사)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우(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강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기섭(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3) GPPAC 동북아위원회 : UB Process

※ 평화여성회는 GPPAC 동북아위원회의 서울 포컬포인트로 참여연대와 함께 활동하고 있음. 코로나19로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연례모임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 코로나 19 이후의 여성의 인간안보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평화여성회에서는 김정수 상임대표가 참여하고 있음

(1) GPPAC Northeast Asia - Ulaanbaatar Process 6, 2020 Online Meeting

- 주최 : GPPAC NEA, Blue Banner
- 일시 : November 3, 2020
- 안건 : ①What impact has COVID19 had on your peacebuilding work? ② What is the priority or key activity of your organisation/focal point this year? ③What is one achievement or challenge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the other participants?

(2) Looking Ahead: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in Northeast Asia

- 주최 : GPPAC NEA, UN Women, UNDP/PA
- 일시 : 11 November 2020 | 8:30 p.m. New York, 12 November 2020 | 9:30 a.m. Beijing/Ulaanbaatar | 10:30 a.m. Tokyo/Seoul
- 주제 : Sharing of challenges and lessons learned o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women's empowerment in the contex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 발표 : H.E. Ms. Minah Kang, Commissioner,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OK, Ms. Ulziibayar Vangansuren, Counselor, Department of Multilateral Cooperation, Foreign Ministry of Mongolia, Ms. Jeongsoo Kim,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ROK

(3) GPPAC Northeast Asia - Ulaanbaatar Process 6, 2020 Online Meeting Agenda

- 주최 : GPPAC NEA, Blue Banner
- 일시 : December 4, 2020
- 내용 : GPPAC NEA 지역 활동 공유 (서울, 교토, 동경, 몽골, 블라디보스톡), 미

국 선거에 대한 미국 측 논평, 2021년 활동 계획 등

(4) Webinar Series : Dialogue on Non-traditional Security and COVID19 in Northeast Asia

- 주최 : GPPAC NEA, Peace Boat, Heinlich Boell Institute Hong Kong
- 주제 : COVID-19 and Women in East Asia
- 사회 : Mery Joyce (Peace Boat)
- 발표 : Jeongsoo Kim(Women Making Peace, Seoul), Kozue Akibayasi (WILPF, Kyoto), Ros Sopheap (Gender and Development for Cambodia)

4) 성과와 과제

① **성과** : 2020년 한해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이 활발했다.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Korea Peace Now 캠페인에 함께 하는 단체활동가들에게 한반도 여성들의 평화과정에서의 참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또한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와의 협력 사업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를 파악하고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발굴하는 학습모임을 진행하여 국제관계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쌓고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참여단체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에도 기여했다. 평화협정 사례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도 3월 정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GPPAC 동북아위원회와 UNDP와 함께 WPS 의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면서,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여성참여의 성과와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여성들의 WPS 의제, 인간안보 개념 확대를 위한 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다시 과제를 모색하여 다시 동아시아 WPS 차원의 의제로 제안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여 동북아 여성평화 네트워크에서 평화여성회의 위치를 확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② **과제** : 평화여성회의 경험을 국내 여성시민사회와 공유하고 동시에 코로나19 상황과 특별히 미-중 갈등에 따른 동아시아 경쟁과 군사주의 심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여성평화 의제를 발굴할 과제를 지니며, 동아시아 지역-국내-지방을 연계하는 WPS 역량을 강화시킬 역할 또한 막중하다.

5. 인간안보와 다자안보를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 전개

【2020년 사업계획】

2019년 하반기 한국정부는 지체된 남북관계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불안정한 정세는 ‘힘을 통한 평화’ 기초를 바탕으로 한 국방비 증강,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내 한미동맹 역할 확대 등을 통한 동아시아의 군사화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군사동맹에 대한 문제제기와 평화주의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불가능한 바, 2020년에는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국내외적 연대와 협력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는 국방계획 수립 촉구 활동
-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군축 운동 전개

1)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 기획 및 공동주최

- 일시 : 2020년 5월 2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순서 (사회: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발언 1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발언 2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언 3 :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 발언 4 : 이아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대표
- 해외 연대 성명(Korea Peace Now, WILPF, GPPAC NEA) 소개 :
 -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세민 평화여성회 활동가, 홍희진 전국여성연대활동가
- 주관 :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 공동주최 : 6.15남측위여성본부 강정평화네트워크, 경기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광주여성회, 구로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당진어울림여성회, 부산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여성평화독서모임,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참여연대, 천안여성회, 평화철도전국여성위원회
- 본회 참석 : 김정수, 여혜숙, 김세민, 안김정애



주 최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한국여성연대, 평화물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공동주최 6.15남측위여성분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시민평화포럼, 여성평화독서모임,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평화철도전국여성위원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여성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 성과와 과제

인간안보와 다자안보 구축은 무엇보다 평화군축을 통한 준비절감, 보건, 복지, 환경 등에 대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간안보를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과의 보건의료 협력 제안을 하면서도 동시에 국방비를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면서, 평화군축 통한 북한과의 신뢰 형성, 실질적 인간안보 실현, 동아시아 여성평화안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8.15 민족자주대회, 5.14 평화군축을 위한 여성의 날 행사, GPPAC 동북아위원회 등 온-오프라인 행사와 세미나를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입장을 전달하는 활동을 지속했다. 아울러 WPS 의제 기반 동아시아 여성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동아시아 WPS 인덱스 개발 의견을 GPPAC 동북아, Peace Boat, 하인리히 뵐 재단이 개최한 웨비나에서 제안,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2021년도에 관련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4】 정보 및 홍보사업

【2020년 사업계획】

회원 사업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양성과 역량을 확대 강화한다.

정보 홍보 사업

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SNS 평화활동 등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 소식지 발송
3. 메일을 통해 본 회 소식 전달

재정 사업

1. 곳감 판매 등

4-11. 회원확대와 재정자립 기반 조성사업

매월 회원 가입을 통해 2019년 총 15명이 회원가입을 함으로 회원확대와 재정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회원가입

- 1월 강인화 정경훈
- 2월 조영미 정현기 이현희 백미순
- 3월 문경아
- 6월 전희정
- 8월 김정옥 정용숙 유임하 신정완 한모니까 박경로
- 9월 함경숙

4-2. 평화여성회 홍보 강화 사업

1. 온라인 소식지 발송

1) 정기총회 안내

- 일시 : 2020년 1월 10일(금)
- 내용 : 24차 정기총회 안내

2)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원분들께 보내는 신년인사

- 일시 : 2020년 1월 23일(목)
- 내용 : 회원분들께 보내는 신년 인사

3) 평화여성회 소식

- 일시 : 2020년 2월 3일(월)
- 내용 : 『여성과평화』 6호 글 모집 공고문

4) 3월 온라인 소식지

- 일시 : 2020년 3월 2일(월)
- 내용 : 총회 개최 결과 보고, 여성가족부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 참여확대 공모사업 선정 알림

5) 4월 온라인 소식지

- 일시 : 2020년 4월 6일(월)
- 내용 : 한국전쟁 종식 평화캠페인 참여 알림, 김귀옥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의 공조』 발간 알림

6) 5월 온라인 소식지

-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 내용 : 여성재단 <100인 기부금 릴레이> 참여 독려, 4.27 판문점선언 2주년 기념 여성·평화단체 공동 성명서 기획 및 발표, ‘통일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라’ 공동성명서 기획 및 발표

7) 평화여성회 소식

- 일시 : 2020년 5월 18일(월)
- 내용 :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 개최 알림

8)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식

- 일시 : 2020년 5월 18일(월)
- 내용 : 2020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심화과정 개최 알림

9) 평화여성회 소식

- 일시 : 2020년 6월 15일(월)
- 내용 : [성명] 6.15 공동선언 20주년, 깨어진 신뢰회복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공유

10) 평화여성회 소식

- 일시 : 2020년 7월 10일(금)
- 내용 : 여성·평화·안보 1325 국가행동계획과 성평등한 한반도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대화

11) 평화여성회 소식

- 일시 : 2020년 7월 29일(수)
- 내용 : 한반도 종전 캠페인 Korean Peace Appeal 서명 참여 안내

12) 평화여성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소식

- 일시 : 2020년 9월 25일(금)
- 내용 :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여성과평화』 6호 발간 및 판매 안내

13) 평화여성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소식

-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 내용 : 학술행사 <여성,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개최 및 참가 신청 공지

14)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식

- 일시 : 2020년 11월 4일(수)
- 내용 : <온라인 평화대화 - 비대면 회의나 교육 시 바람직한 대화 약속은?> 개최 알림

2. 홍보문자 발송

- 내용 : 평화여성회 행사 안내 및 회의 안내
- 일시 : 5/8, 5/9, 5/16, 5/17, 5/22, 6/21, 6/24, 7/5, 7/9, 7/15, 7/24, 7/29, 8/6, 8/13, 8/23, 9/2, 9/2, 9/6, 9/10, 9/11, 9/20, 9/27, 10/14, 11/4, 11/7, 11/15

3. 홈페이지 개선

- 일시 : 7월 4일(목)
- 주소 : <http://www.peacewomen.or.kr/>
- 개편내용 : 걸어온 길, 하는 일과 사람들, 연락처 및 약도

4. 평가

2020년은 신규회원 가입을 위한 홍보활동이 미흡했다.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성평화운동을 좀 더 대중적으로 전개하지 못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소식 업데이트,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활동도 시기적으로 늦게 이뤄지는 적도 꽤 있었다. 온라인 소식지 또한 상반기의 몇 차례를 제외하고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미흡한 활동은 2021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5] 연대 및 협력 사업

【2020년 사업계획】

1. 국내 상설 연대

- 1-1.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회, 이사회, 사무국장 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1-2.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의 국내네트워크 활동)
☞ 평화통일사업 보고 참조
- 1-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여성본부
-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 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대의원 총회, 수요시위 주관
- 1-6.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1-7. 통일교육협의회

2. 국내 사안별 연대

- 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2.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 2-3.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2-3. 기타

3. 국제 연대

- 3-1.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아지역위원회 - 울란바타르 프로세스
- 3-2.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 (국내캠페인인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와 연계 활동)
- 3-3. 기타

1. 국내 상설 연대

1-1. 한국여성단체연합

1) 이사회 회의

- ① 1차 이사회 : 2020년 2월 10일(월) 오후 1시,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안건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6회 한국여성대회 추진의 건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선정과 올해의 여성운동상 추천에 관한 건 등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 ② 2차 이사회 이후 총회 준비까지

2) 실무임원회 회의

- ① 1차 회의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참석 : 김정수
 - 안건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추진 상황 공유, 21대 총선 현안 논의 등

- ② 2차 회의 이후 '서울시 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관련 여성연합 상임대표 정보 유출의 건' 대책 회의에 참여함 : 11월 4일 이후 7회 참석

3) 제6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참여활동 사전오리엔테이션 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2월 14일(금) 오전 10시,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참석 : 64차 CSW 참여 회원단체 및 여성연합 활동가
- 내용 : 베이징+25 프로세스와 성평등에 관한 최근 글로벌 맥락 발제(조영숙)
여성연합 '제64차 CSW 참여활동 소개(오경진)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 비고 : 코로나19로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4차 세계여성지위위원회는 온라인으로 공식-정부간 행사 중심으로 개최됨

3) 성평등한 21대 국회를 위한 정책간담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5월 28일(목) 오후 3시, 국회본청 223호
- 주요 내용 :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제21대 국회의 역할, 제21대 국회 젠더정책 과제, 여성당선인과 여성단체 협력 방안, 성평등 국회 위한 과제 및 전략
- 참석자
 - 정의당 : 배복주 여성본부장, 배진교 원내대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류호정, 이은주, 장혜영)
 - 여성단체 대표 및 활동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영 공동대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김경숙 대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황연주 사무국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김정수 상임대표), 한국여성노동자회(박명숙 부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김영순 상임대표, 김민문정 공동대표, 양이현경 사무처장, 임선희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최진협 공동대표), 한국여성의전화(고미경 공동대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서승희 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이미경 소장) (10개 단체, 총 13인)

4) 제2회 여성 국회의원 어울 모임: 최초 여성부의장 탄생 & 제21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 축하

- 일시와 장소 : 2020년 6월 24일(수) 오후, CCMM빌딩 12층
- 주관 : 한국여성의정

- 후원 : 여성단체연합 등
- 내용 : 신임 국회부의장 인사,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인사 등
- 참석 : 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대표 등, 평화여성회 김정수 참석

5) 2020년 여성단체 간담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6월 26일,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내용 : 한국여성재단 신임 장필화 이사장 방문 및 여성계 주요 이슈와 사업방향 공유 및 한국여성재단 지원 요청 사항 등
- 참석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김민문정 대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대표,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노지은 사무총장, 윤연숙 지원사업팀방, 임공주 지원사업팀 과장

5) 민주당 발의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 일시와 장소 : 2020년 8월 21일(금) 19:00,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온라인 회의
- 안건 : 민주당 발의안 중 국회 여성가족위 통폐합 조항에 대한 여성계 대응 논의
 - (1) 단독상임위: 국가인권위원회 이관
 - (2) 통합상임위: 여성노동환경위, 여성문화체육관광위 등

※ 참고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는 1994년 6월 설립된 겸임위원회로서 여성단체들의 입법청원을 통해 설립된 역사성을 지님

- 참석 : 김정수

1-2.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민화협 회원단체로 2020년에는 공동의장(김성은 이사장), 여성위원회(김정수 상임대표, 여성위원장), 집행위원회 등에 참여함

1) 민화협 여성위원회 회의

① 1차 : 2020년 2월 12일(수) 오후 3시, 민화협 회의실(마포)

- 참석 : 김정수

- 안건 : 2019년 여성위 사업보고, 민화협 추진 사업보고, 2020년 여성위원회 사업논의 (여성평화포럼, 여성평화기행 등)

② 2차 위원회

③ 3차 : 2020년 11월 18일(수) 오전, 민화협 회의실 및 온라인 zoom 참석

- 참석 : 김정수

- 안건 : 2020년 여성위원회 간담회 보고, 민화협 추진사업 보고, 여성위원회 사업 논의, 기타논의 등

2) 2020년 민화협 여성위원회 간담회

① 1차 간담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7월 22일(수) 10:30, 설가온(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지하)
- 주제 : 최근 남북관계 전망, 여성 평화통일 인식과 과제
(발표: 김귀옥 한성대 교수, 민화협 정책위원)
- 참석 : (사회) 김정수 상임대표(민화협 여성위 공동대표), 김세민 활동가

② 2차 간담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12월 16일(수) 14:00, 온라인 zoom 회의
- 내용 : 특강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남북여성교류의 방향”
(강의: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 소장/북한학 박사)
라운드테이블 : 여성! 통일과 평화를 논하다!
여성 평화·통일사업 보고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안 등
- 참석 : 김정수

3) 집행위원회 회의

① 11기 12차 집행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8월 19일(수) 오후, 민화협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 안건 : 국민(회원) 참여 사업 보고, 민화협 사업변경에 관한 건, 민화협-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2020 평화음악회 및 심포지엄 추진에 관한 건, 2020 <1020 통일공감기자단> 제주워크숍 추진에 관한 건, 2020 통일문화축제에 관한 건, 사무처직원 채용에 관한 건, 정책위원 추가 위촉에 관한 건 등

-

② 11기 13차 집행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10월 23일(금) 오전, 제주도
- 참석 : 김정수
- 안건 : 국민(회원) 참여사업 보고, 기획.운영 보고, 정책.홍보사업 보고, 위탁사업 보고, 2020 민화협 창립 22주년 기념 및 후원의 날

-

③ 11기 14차 집행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11월 23일(월) 오전, 민화협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 안건 : 국민(회원) 참여사업 보고, 정책.홍보 사업 보고, 기획.운영 보고, 위탁사

업 보고, 연대활동 보고, 민화협 발전 방안을 위한 논의,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관련 논의 등

4) 기타 회의 및 행사

① 사업계획(안) 소위원회 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1월 21일(화) 오후 4시 민화협 회의실
- 안건 : 2019년 사업 결과 및 결산서 검토의 건
2020년 사업계획(안) 검토의 건 등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② 민화협 청년기자단 인터뷰

- 일시와 장소 : 2020년 5월 23일 오후, 평화여성회 회의실
- 방문 : 민화협 청년기자단 3명
- 인터뷰 : 김정수 상임대표
- 내용 : 평화여성회 활동 소개, 민화협 청년위 역할에 대한 제안 등

② 『민족화해』 106호(2020년 9월+10월호) 기고

- 대주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멈출 수 없는 도전
- 제목 :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가능할까? 전면적 군축으로 전쟁의 두려움부터 걷어내야” (김정수)

③ 민화협 집행임원-회원단체 [평화통일 리더십 역량 강화 연수]

- 일시 : 10월 22일(목)~10월 24일(토), 2박 3일
- 장소 : 제주도 일대
- 구성 : 민화협 집행임원, 회원단체 집행책임자(단체별 1인) 등 35여명
(* 민화협 집행 임원 ,회원단체 집행책임자, 사무처로로 구성)
- 평화여성회 참석 : 김세민, 박현선, 김정수

1-3.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및 여성본부

▣ 남측위원회 8기 활동

1) 6.15 남측상임위 신년하례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1월 8일(수) 오전 11:00 언론재단 12층 국제회의장
- 참석: 김정수 상임대표
- 각계 2020년 포부 발표 - 여성분과 상임대표로 발표함
- 비고: 통일뉴스/민중의 소리 등에 내용 나눔

2) 8기 상임대표 회의

① 8기 9차 상임대표회의 및 8기 2차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1시, 6.15 남측위원회 회의실
- 안건 : 8기 2차년도(2020년) 정기공동대표회의(총회) 준비의 건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② 8기 10차 상임대표 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4월 7일(화) 오후, 6.15 남측위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 안건 : 집행부 인준의 건, 6.15선언 사업준비의 건, 후원행사 및 재정마련의 건 등

② 8기 10차 상임대표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6월 3일(수) 오후, 6.15 남측위 사무실
- 참석 : 김정수
- 안건 : 6~8월 사업계획 논의의 건

③ 8기 11차 상임대표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8월 6일(목) 14:00, 6.15 남측위 사무실(안국동)
- 참석 : 김정수 여성본부 상임대표
- 안건 : (계획) 광복75주년 8.15 민족자주대회 준비 등

3) 4.27 공동선언 2주년 기념 행사 및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준비위원회 발족식

- 일시와 장소 : 2020년 4월 27일(월) 16:00, 기독교회관 강당(조예홀)
- 안건 : 6.15선언 20주년 사업계획 논의, 6.15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 구성 등
- 참석 : 김정수

4)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6월 17일(수),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명동)
- 주최: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
- 순서 : 참가자 인사, 각계 발언, 시국선언문 낭독
- 각계 발언 : 이창복(6.15남측위 상임대표), 김정수(평화여성회 상임대표), 김경민(한국(YMCA)사무총장), 박정은(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태성(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엄미경(민주노총 부위원장, 통일위원장), 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전경수(금강산기업협회 회장) 등

5) 남측위 상임대표단과 신임 이인영 통일부 장관 면담 참석

- 일시와 장소 : 2020년 8월 13일(월) 12:00, 경복궁 인근 식당
- 참석 : (통일부측) 이인영 통일부 장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실장 외
(6.15 남측위 측)
- 안건 : 상견례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6.15 남측위 의견 전달 등
- 비고 : 김정수 상임대표는 6.15 여성본부 상임대표로 참석하여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통일부의 적극적 역할 요청함

6) 광복 75돌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상임대표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8월 6일(목) 15:00, 6.15 남측위 사무실(안국동)
- 참석 : 김정수 여성본부 상임대표
- 안건 : 2단계 비상행동 조정의 건
8.15 민족자주대회 준비의 건

7) '8.15 민족자주대회를 준비하는 2단계 비상행동' 참가

- 주장 :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남북관계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등
- 일시와 장소 : 2020년 8월 14일(금) 15:00, 광화문광장 미국대사관앞
- 참석 : 김정수 6.15 여성본부 상임대표

8) 광복75돌, 8.15 민족자주대회

- 주제 : 오직 자주의 길로!
- 일시와 장소 : 2020년 8월 15일(토) 16: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 참석 : 김정수 6.15 여성본부 상임대표 - 대표자 보고연설로 참여함
- 순서 : 여는 영상, 민중의례, 여는 발언(이창복 남측위 상임대표), 연대사, 정세 및 기조연설, 노래공연, 영상(8.15추진위원회 활동보고 영상), 전국대표자 의견 보고, 우리의 과제 발표(자주적 입장으로 남북합의 이행-김정수 여성본부 대표), 미국반대 민족자주 실현전여농 회의),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현황, 노래공연, 영상, 결의문 낭독, 폐회
- 비고 : ①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으로 서울시에서 야외대중집회 불허하여 200명 규모의 실내행사로 진행함, ②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4,801개 전국시민사회(여성, 청년, 농민, 노동, 지역 등) 단체가 비상시국선언에 참여함
- 참고 '8.15 민족자주대회 결의문'

■ 6.15 여성본부 활동

1)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주년 성명서 발표

- 일시 : 2021년 4월 27일
- 성명서 참여 단체 : 6.15 남측위 여성본부 와 여성단체 (성명서 모음 참조)

2) 6.15 여성본부 2020년 제1차 정기운영위원회(총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7월 22일(수) 14:00~, 6.15남측위 회의실
- 참석단체 : 32개 단체중 21개 단체(참석과 위임 등)
- 안건 : 2019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2020년 사업 및 예산안 검토 등
- 비고 : 2020년 사업계획 등 미진한 부분은 여성본부 공동대표 회의를 통해 수립하기로 총회에서 위임함

3) 6.15 여성본부 “여성평화통일 과제 찾기” 간담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7월 22일(수) 16:00~, 6.15남측위 회의실
- 내용 (1) 주제발표 한반도 정세전망과 평화통일운동의 과제
(발표 : 최은아 6.15 남측위 사무처장)
(2) Q&A, 전체 토론

4) 8.15 광복 75년 여성본부 성명 발표

광복 75주년 8.15 민족자주대회를 맞이하여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성명서

- 여성의 힘을 모아 식민과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자!

2020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되는 날이다. 광복과 해방 75년을 기념하는 이날, 여성들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민족의 자주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이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 중 한반도 여성들은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극단의 전시 성폭력의 고통을 경험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해방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의 공식 인정과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고, 아직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전쟁 70년, 분단 67년은 여성들에게는 폭력의 다른 이름이었다. 여성들은 한국군‘위안부’, 미군‘위안부’, 이산가족으로 고통당했고, 분단으로 강화된 군사주의는 가부장적 성차별 문화와 함께 여성들의 일상의 삶에도 억압과 폭력으로 작용해 왔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통해 차별과 억압이 없는 삶을 희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율과 자주, 해방과 평화, 그리고 완전한 통일을 꿈꾼다.

남과 북의 모든 우리 민족의 삶 구석구석에 악영향을 미쳐온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 한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한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한반도에 거주하는 남과 북 모든 여성들의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운명에 대한 결정도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남북의 여성들은 함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함께 꿈꾸고 함께 현재를 누리고 또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원한다.

남북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6.15 남측위 여성본부와 단체들은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들이 꿈꾸는 배려와 환대가 이뤄지는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20년 8월 15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1-4.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 1) 여성분과위원회 회의: 9/24(목) 11:00-12:00 여성분과토론회 준비
- 2) 여성분과토론회 10/29(목),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유튜브방송)
 - 1주제: 청년들의 통일의식 고취 방안 및 통일단체의 역할
발표: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
토론: 안준희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총장)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2주제: 남북관계 진단 및 전망
발표: 김형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토론: 신수식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한수아 (세계평화여성연합 정책국장)

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1) 운영위원회 (참석: 여혜숙)
 - (1) 2/7(금) 10:30 -12:00 , 민주평통 사무처 대회의실
 - (2) 6/30(화) 10:30-12:30, 민주평통 사무처 대회의실
 - (3) 12/11(금) 10:30`12:30, 그랜드힐튼 호텔
- 2) 여성분과위원회
 - 위원장 : 여혜숙, 간사: 조영주, 상임위원: 김정수, 김귀옥
 - 역할 : 분기별 정책건의문 내용 토론회와 작성
 - 1/4분기 : 3/26(목) 13:00
 - 2/4분기 : 6/3(수) 13:00

3/4분기 : 8/18(화) 13:00

4/4분기 : 11/13(금) 13:00

3) 분과위원장, 간사 합동회의 (여혜숙, 조영주 참석)

- 1/3(금)-4(토), 양평 현대연수원

4) 2020 민주평통 여성평화회의

(1) 준비 회의 (여혜숙, 김정수 참석)

① 2020년 1월 13일(월) 14:00 민주평통 2층 회의실

② 2020년 1월 29일(수) 14:00 민주평통 사무처

③ 2020년 2월 4일(화) 오후 3시 민주평통 여성·청년위원실

④ 2020년 2월 24일(월) 오전 10시 민주평통 여성·청년위원실

내용: 해외 초청자(마사 만델라) 주제연설 요청내용 논의 등

⑤ 3/26(목) 15:00~17:00 민주평통 1층 회의실, 2020 여성평화회의 일정과 내용 조정

⑥ 4/16(목) 15:00 민주평통 여성·청년위원실

⑦ 4/27(월) 15:00 민주평통 사무처, 일정과 내용 조정

⑧ 8/3(월) 13:00 민주평통 사무처, 전체 일정 검토

⑨ 10/19(월) 11:00-12:30, 민주평통 사무처, 발표자 선정

(2) 2020 민주평통 여성평화회의

- 일시: 9월 22일(화) 13:00 -17:30, 온라인 송출 진행

- 주제: 여성 리더, 한반도 평화를 품다.

- 기조연설 : 김선욱(전 이화여대총장, 포스코장학회 이사장)

- 토크쇼1 사회- 최광기,

패널- 김정수 (평화여성회), 문아영(피스모모), 이수정(덕성대),

- 토크쇼2 : 사회- 여혜숙

5) 민주평통 여성시민단체 간담회

- 일시: 5월 15일(금) 15:00~17:00, 민주평통 사무처 대회의실

- 사회: 여혜숙

발표: 여성공공외교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토론: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한미미, 최수산나(YWCA), 문아영(피스모모), 최금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반아(경기여성단체연합), 김태우(여성평화외교포럼), 이승환(민주평통 사무처장)

6) 시,도 여성위원장 의견 수렴회의

- 일시: 12월 15일(화) 14:00-16:00, 민주평통 사무처

- 참석: 여혜숙, 김정수

1-6. 시민평화포럼

※ 평화여성회는 시민평화포럼 운영위 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 운영위원회 단체분담금 30만원 납부

1) 시민평화포럼 2020년 제11차 총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3월 20일(금) 오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참석 : 김정수
- 안건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임원 선임안, 정관 개정안 등

2)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회

① 2020년 4월 21일(화) 16:00~18:00, 참여연대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 안건 : 시민평화포럼 사무국 운영체계 검토, 2020년 시민평화포럼 예산안 검토, 2분기 정책포럼 기획안 검토,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 대표단 선임의 건 등

② 2020년 6월 30일(화) 16:00 참여연대 느티나무실

- 참석 : 김정수
- 안건 : 북한에 대한 이해와 시민사회운동 과제 모색을 위한 연중 세미나,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민의 한(조선)반도 평화협정 선언문 검토,

3) 민의 평화협정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4월 17일(금) 14:00~15:00, 흥사단 강당
- 프로그램
- 참석 : 김정수, 김세민

4) 정책워크숍

- 주제: 코로나시대 남북이 만나는 방법
- 일시와 장소 : 2020년 5월 25일(월), 참여연대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5) 시민평화포럼 학습모임

- 일시와 장소 : 2020년 7월 16일(목) 18:00,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제 : 북한영화를 통해 북한사회 이해하기

- 내용 : 영화 '자강도 사람들' 관람 및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사회 이해하기 등
- 강사 : 김영희(탈북여성,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 참석 : 김정수

1-7. 정의기억연대

1) 이사회

① 2020년 제1차 이사회

- 일시와 장소 : 2020년 2월 18일(화) 15:00, 정의기억연대 교육관
- 안건 :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정대협 30년 기념사업, 정대협의 박물관 운영법인화 건 등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② 긴급이사회 : 2020년 5월 18일, 오후, 정의기억연대 교육관

- 참석 : 김정수
- 안건 :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입장 논의, 이사회 입장문 발표 등

③ 3차 긴급 이사회 : 2020년 6월 1일(월) 오후, 정의기억연대 교육관

- 참석 : 김정수
- 안건 : 지난 회의록 공유, 진행상황 공유(수사, 행정기관 요청사항 관련, 수요시위, 언론대응 및 홍보, 사무처 실푸 진행사업, 연대단체), 향후 대책-가칭 비대위 구성 중심으로

3) 제1439차 수요시위 참석

- 일시 :
- 참석 : 김정수, 김세민

1-8. 기타 여성·평화단체 연대 및 활동

1) 여성계 2020년 신년하례회 참석

- 일시와 장소 : 2020년 1월 15일(수) 오후 오후 3:00 세종문화회관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2) 2020 평창평화포럼

- 일시와 장소 : 2020년 2월 9일(일) 13:00~ 2020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특별세션: UN+75& UN 75주년 기념 캠페인
World's Biggest Conversation: Shaping our future together
(2월 9일(일) 17:00~18:30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김정수 - 패널리스트로 참가

3) 참여연대 라운드테이블 :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 군사안보에서 시민안전으로

- 일시와 장소 : 2020년 5월 25일(월) 19:00~20:30, 참여연대 세미나실

- 주최: 참여연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 프로그램: (사회: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 이야기손님 : 김종대(정의당 국회의원, 20대국회국방위원회 위원), 이남주(성공회대학교 교수),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4) 아시아평화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 주제: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지 않는 전쟁? : 글로벌 전쟁 ‘한국전쟁’ 70년의 현재 70년

- 일시와 장소 : 2020년 7월 27일(월) 14:00, 중구 스카이라호텔 컨벤션홀

- 참석 : 김정수 (2차 라운드테이블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지 않는 전쟁?’ 패널 참석)

5) 한반도평화포럼

① 한평아카데미 강의

- 일시 : 2020년 9월 10일(금) 저녁 7시 - 온라인 강의

- 주제 : 한반도 평화제제와 성평등한 한반도 (김정수)

② 한반도평화포럼 -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오후 5시, 온라인 zoom 회의

- 비고 : 김정수 한반도평화포럼 부이사장으로 선출됨

6)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 연구자문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9월 14일(월) 오후 2시, 국제이해교육원

- 주제 : “유네스코 평화교육 맥락에서 본 한국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책임연구: 강순원 교수)

- 참석 : 김정수

7) 평화통일교육 시민사회단체 집담회 모임 (어깨동무 초청)

① 1차 : 2020년 9월 25일(금) 오전 10:00, 온라인 진행

- 본회 참석 : 김정수, 여혜숙, 김정아

- 참가단체 : 어깨동무, 겨레하나, 우리민족, 평화여성회, 경기평화교육센터

- 주제: 현재의 평화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향후 논의 계획 등

② 2차 집담회 및 시민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통일교육의 미래 타운홀미팅 기획단 모임(1차)

- 일시와 장소 :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2시 30분~4시 30분, 어깨동무 평화교육 센터
- 참가 : 경기평화교육센터(안영옥 사무처장), 어린이어깨동무(최혜경 사무총장, 김윤선 사무국장, 이성숙 팀장, 김찬유 간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장근영 부장, 댄가준 평화교육전문위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김정수 상임대표)
- 안건 : 지난 모임에서 공유한 문제의식 되짚기, 공유한 내용 심화토론1 : 평화통일교육 단체들의 자기반성, 타운홀미팅 기획회의 등

③ 한반도 평화교육 타운홀 미팅

타운홀미팅

'한반도 평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시민사회의 솔직한 이야기 -

2020. 10. 27 (화) 2시 유튜브 라이브 [어린이어깨동무](#)

1세션 **한국전쟁 70년, 한반도에 필요한 평화통일교육**

14:00-15:30	<p>사회 박종호 (서울고등학교 교사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연구위원)</p> <p>한반도 평화교육의 길 찾기 장영철 (서강대학교 교수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p> <p>새로운 시대, 평화통일교육이 나아갈 방향 김진환 (통일교육원 교수)</p> <p>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간우연 (계수초등학교 교사)</p> <p style="text-align: right;">온오프라인 통한 시민참여</p>	
-------------	--	--

15:30-16:00 휴식

2세션 **'한반도 평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16:00-18:00	<p>라운드테이블</p> <p>사회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p> <p>패널 김윤선 (어린이어깨동무 사무국장) 신미연 (겨레하나 교육국장) 안영옥 (경기평화교육센터 사무처장) 장근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p> <p style="text-align: right;">온오프라인 통한 시민참여</p>	
-------------	---	--

안내

일시	2020년 10월 27일 (화) 14시-18시
장소	공공그라운드 001 스테이지 (혜화역)
참여방법	온라인 - 유튜브 라이브 어린이어깨동무 오프라인 - 사전신청 10명
문의	peace_center@okfriend.org 02.743.7942
공동주최	어린이어깨동무, 겨레하나, 경기평화교육센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서울교육대학교 통일·평화·시민교육연구소
주관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신청하기

9)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포럼>

- 주제 : 대북지원과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딜레마
- 일시와 장소 : 2020년 10월 19일(월) 19:0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회의실
- 주최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후원 : 통일교육협의회
- 프로그램
 - o 발표 : 대북지원과 우리 사회의 딜레마, 성찰(전우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o 토론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10) DMZ평화생명동산 - 지구촌 생명평화교육 사례 연구

- 원고 제출: 지구촌 여성화생명평화교육운동
- 2020년 8월 31일

11) 경남여성연대 - 성평등한 통일한반도 강의

- 2020년 9월 19일(토) 15:00 (온라인 강의)
- 강의 : 김정수

1-9.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1) 상임운영위원회 (참석: 여혜숙)

- (1) 일시, 장소: 5월 14일(목) 8:00-10:00, 달개비
내용: 2020년 사업 진행사항 계획 보고 및 논의
- (2) 총회
일시, 장소: 6월 12일(금) 16:00-17:30, 흥사단 3층 강당
내용: 2020년 상반기 사업 보고 및 하반기 사업 논의

2) 사회적대화 퍼실리테이터 교육 및 참여

- (1) 교육논의 : 6월 24일(수) 15:00-16:30, 광화문 커피빈,
윤혜란(YWCA), 신미지(참여연대), 여혜숙
- (2) 서울시 사회적대화 퍼실리테이터 교육
일시, 장소: 8월 11일(화)~12일(수) 10:00-18:00, 서울자원봉사센터 교육장
8월 17일(월)~18일(화) 10:00-18:00, ORP 교육장
참석: 김정아, 박인혜, 손희정, 여혜숙, 이덕경, 손서정
- (3) 서울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퍼실리테이터 참여
9/19, 20, 26, 10/7, 8, 10, 11, 9:30-18:00, 온라인(ZOOM) 진행
 - 1주제: 1체제 통합인지 2체제 공존인지 발표를 듣고 질문 만들기
 - 2주제: 보건·의료·방역의 남북 협력에 대한 의견은?

- (청년) 북한 정보 개방에 대한 의견은?
 - 3주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의견은?
 (4) 통일국민협약 종합대화 퍼실리테이터 참여 12/5,6 9:30-18:00

1-10. 정부 부처 및 지자체 협력 활동

1) 통일부 관련

(1) 통일부 '6.25 70주년 계기,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가칭) 기획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2월 5일(수) 오후 17:00 통일부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 비고 : 국제회의 날짜 : 2020년 6월 23일 예정

(2) 통일부 2020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 관련 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9월 23일(수) 통일부 회의실
- 활동 내용
 - Keynote Speech 섭외 - Darynell Rodrigues Torres (GPPAC 사무총장)
 주제: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협력세션: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여성, 청년의 역할 - 발제자 섭외
-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조건들 : 고유경 WILPF 컨설턴트
- 비무장지대와 대인지뢰, 민간인 피해문제: 조재국 대표 평화나눔 상임이사
- Gender & Humanitarian Demining : Arianna Calza Bini (Head, Gender and Mine Action Programme,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
- DMZ 접경지역과 여성의 삶 - 전영숙 평화의 씨앗들 국경선 평화학교 사무국장
- DMZ 평화지대화에 대한 청년이 목소리 - 박아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전 청년위원장

2) 2020년 경기도 평화정책위원회 관련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박현선 이사)

- ① 2020년 1월 6일(월) 오후 2시, 경기도청 신관 4층 회의실
- ② 2020년 9월 7일(월) 서면자문 : 안건: 평화협력정책 현안사항,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 추진 및 주요기능,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통일(평화)경제특구 법안 관련 연구내용
- ③ 2020년 12월

3)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모임

- 일시와 장소 : 2020년 1월 28일(화) 오후 4:30 달개비

- 주관 :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 주제 : 시민공공외교 관련
- 내용 : 2020년 여성계 국제협력 사업 공유 및 협력사안 논의
- 참석 :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 권혜린 행정관, 김정수 상임대표

4) 서울평화포럼 추진단 회의

- 일시와 장소 : 2020년 8월 14일(금) 16:30, 달개비
- 안건 : 10월로 예정된 서울평화포럼 및 글로벌 정상회의 등 연기와 취소 등
- 참석 : 김정수

2. 국제연대활동

2-1.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위원회) 및 WPS 관련 국제회의

☞ 본회 사업보고 중 “한반도 종전 평화 활동 보고” 부분 참조

【6】 부설기구

1. 갈등해결센터

【2020년 사업계획】

1. 조직

- 센터장 : 여혜숙, 부소장 : 김지선
- 운영위원회 :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 기획자문위원 : 김희은, 이권명희
- 전문위원 : 김정아, 이덕경, 조영희
- 평화통일교육 연구팀 : 김다미, 김희은, 김지선, 박인혜, 서민순, 손서정, 손희정, 이권명희, 이현숙, 이향림, 여혜숙, 최영애, 신난희
- 매뉴얼팀 : 박인혜(팀장), 김정아, 김지선, 손서정, 여혜숙, 이덕경

2. 사업방향과 목표

- 정기적인 모임 운영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센터 구성원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센터의 활동이 구성원 각자에게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공동의 성과와 개인의 성취를 함께 추구하는 활동을 떠나가도록 한다.
- 새롭게 구성된 팀의 구성원들이 센터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지속적인 학습모임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활동의 폭을 넓히고, 평화통일교육 활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한다.

3. 세부사업 (안)

- 정기적인 학습모임에서 구성원들 간 새로운 내용과 방법론이 공유되고, 시도될 수 있도록 한다.
- 이전 ‘평화통일 교육 매뉴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별 평화통일 교육 관련 자료를 조사, 축적하고, 세부 교안 작성 등 센터 공통의 성과물을 만든다.
- 평화·통일·갈등해결 교육과 활동 확대를 위해 강사진과 진행자들을 구성한다.
- 교육청, 지역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 홍보 사업을 강화한다.
-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타 기관, 단체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평화·통일·갈등해결 활동을 활성화한다.

1. 조직

1) 구성

- 소장 : 여혜숙
- 부소장: 김지선
- 운영위원 : 김지선, 박인혜, 여혜숙, 김정아, 손희정, 손서정

- 전문위원 : 이덕경, 조영희
- 평화통일교육 연구팀 : 김다미, 김희은, 김지선, 박인혜, 서민순, 손서정, 손희정, 여혜숙, 이권명희, 이향림, 이현숙, 최영애 (12명)
- 매뉴얼팀: 박인혜 (팀장), 김정아, 손서정, 손희정, 이덕경, 여혜숙

2. 회의

1) 운영위원회 (격월 진행)

① 1차 : 2020년 1월 8일 (수) 18:30-20:00

- 장소: 합정역 카페
- 참석: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 논의내용: 2020년 사업목표·방향 정하기, 조직운영 논의 (평화통일교육 연구팀 격월, 매뉴얼팀 월 1회), 2020 평화토크쇼(통교협 프로젝트), 베트남 평화기행 (한국여성재단 심 프로젝트)

② 2차 : 3월 23일(월) 16:00-19:00

-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 논의내용: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지원금 사업 논의 <2020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심화 과정>으로 신청

③ 3차 : 7월 2일(목) 20:30- 21:30, 온라인 회의

- 참석: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 논의 내용: 2020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심화 과정 논의, 갈등해결 청소년 교안집 재인쇄건, 매뉴얼팀, 연구팀 진행 논의

④ 4차 : 8월 30일(일), 17:00-18:00, 온라인 회의

- 참석: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 논의 내용: 온라인 교육 대응 방안, ‘코로나19와 평화’ 온라인 모임 제안, 운영위원회 확대 건

⑤ 5차 : 10월 19일(월) 19:30~21:00, 온라인 회의

- 참석: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김정아, 손희정, 손서정
- 논의 내용: 회원 온라인 대화모임 ‘코로나19와 평화’ 준비, 온라인 강의를 위해 필요한 것과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하여

⑥ 6차 : 12월 14일(월) 20:00-21:30, 온라인 회의

- 참석:
- 논의 내용: 2020년 사업평가, 2021년 조직, 사업 계획

2) 평화평화통일교육 연구팀

온라인(카톡방)으로 소식과 자료를 공유하였고, 따로 모임은 갖지 못함

3) 매뉴얼팀

- ① 1차 : 2020년 2월 5일(수) 16:00~18:00
 - 장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의실
 - 참석: 박인혜, 김정아, 이덕경, 여혜숙
 - 논의내용: 매뉴얼팀의 역할 목표 브레인스토밍
- ② 2차 : 2020년 4월 14일(화) 19:00-21:0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김정아, 박인혜, 이덕경, 여혜숙 온라인: 김지선, 손서정
 - 논의내용: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발제, 사회: 김정아)
- ③ 3차 : 2020년 5월 13일(수) 18:30 ~21:0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박인혜, 이덕경, 여혜숙, 온라인(김정아, 김지선, 손서정)
 - 논의내용: 코로나19와 평화 (사회, 발제: 손서정)
- ④ 4차 : 2020년 6월 22일(월) 19:00 - 21:00, 온라인회의
 - 참석: 박인혜, 이덕경, 여혜숙, 김정아, 김지선, 손서정
 - 논의내용: 코로나19와 혐오 (사회, 발제: 박인혜)
- ⑤ 5차 : 2020년 8월 17일(월) 18:30-19:30, 내방역 근처 카페
 - 참석: 김정아, 박인혜, 이덕경, 여혜숙
 - 내용: 향후 매뉴얼팀 작업 관련 논의
- ⑥ 6차
 - 일시, 장소: 2020년 9월 28일(월) 10:00-12:00, 온라인 회의
 - 참석: 김정아, 박인혜, 이덕경, 손서정, 김지선
 - 내용: 향후 매뉴얼팀 작업 관련 논의
- ⑦ 7차 : 2020년 10월 28일(수) 10:00-11:00, 온라인 회의
 - 참석: 김정아, 박인혜, 이덕경, 손서정, 김지선, 손희정
 - 내용: <온라인 평화대화> 온라인 약속정하기 건
- ⑧ 8차 : 2020년 11월 16일(수) 20:00-21:00, 온라인 회의
 - 참석: 김정아, 박인혜, 이덕경, 손서정, 손희정, 여혜숙
 - 내용: <온라인 평화대화> 세부계획, 역할 나누기
- ⑨ 9차 : 2020년 12월 22일(화) 20:00-21:50, 온라인 회의
 - 참석: 김정아, 김지선,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여혜숙, 이덕경
 - 내용: 온라인 대화 약속정하기 논의, 2021년 계획

4) 기획자문위원 모임

- 일시: 2020년 2월 11일(화) 16:30
- 장소: 라 그릴리아
- 참석: 김희은, 이권명희, 여혜숙

- 논의내용: 평화통일 연구팀 2020년 내용, 부설 갈등해결센터 사업 자문

5) 번개모임

- 일시: 2020년 5월 19일(화) 12:30~ 16:00
- 장소: 닥터 로빈 광화문점
- 참석: 김희은, 김정아, 박인혜, 서민순, 손희정, 여혜숙, 이덕경, 이향림(8명)
- 내용: 그간 살아온 이야기

3. 2020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심화 과정 (후원: 통일교육협의회)

1) 기획회의 및 준비모임 (박인혜, 이덕경, 여혜숙)

- ① 5/3(일) 14:00 -16:00 , 프로그램 확정
- ② 6/7(일) 14:30 -17:00, 프로그램 진행안 검토
- ③ 6/29(일) 17:00 - 19:00, 전체 점검

2) 홍보 및 모집 : 42명 신청 (참석자 30명 선정), 수료 14명

○세부 교육 일정표 (22시간) ○장 소 : 여성미래센터 지하 소통홀

횟수	일자	시간	강의명(주제)	강사
1회차	7/7(화)	18:30~ 19:00	오리엔테이션	박인혜 (갈등문화연구원 원장)
		19:00~ 21:30	북한 영상을 통해 알아보는 주민의 삶과 문화	김성경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
2회차	7/14(화)	18:30~ 21:30	북한의 결혼, 가족제도 이해	박현선(이화대학교 교수)
3회차	7/21(화)	18:30~ 21:30	북한의 아동·청소년 교육, 문화 이해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4회차	7/28(화)	18:30~ 21:30	북한여성의 일과 경제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5회차	8/22(토)	13:00~ 15:30	진행자의 평화 감수성 훈련	박인혜 (갈등문화연구원 원장)
6회차		15:30~ 18:00	진행자의 소통능력 심화훈련	이덕경(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에듀피스 강사)

7회차	8/29(토)	13:00~ 15:30	교육진행, 사회적 대화진행 실습1	박인혜 (갈등문화연구원 원장) 이덕경(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에듀피스 강사)
8회차		15:30~ 18:00	교육진행, 사회적 대화진행 실습2 평가 및 수료식	이덕경(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에듀피스 강사) 박인혜 (갈등문화연구원 원장)

2020

7.07. Tue
8.29. Sat



평 화 통 일 교 육

진 행 자

심 화 과 정

대상

2019평화통일교육 전문가과정 참석자
평화통일교육에 관심있는 교육진행 경험자

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 스톱홀

문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929.4846/4847, 010.2695.2637

신청

<https://forms.gle/69z95F7oChEgbJGf8>

주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원

통일교육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부설 갈등해결센터)는
 2019년에 이어 여성관점의 평화통일 역량을 기르는 진행자 심화과정을 엽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현장에 진행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배움과 성장을 함께 하고자합니다.
 관심있는 분들 주저없이 문을 두드려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회차	일자	시간	강의명(주제)	강사
1회차	7/7(화)	18:30~19:00	오리엔테이션	박인혜(갈등문화연구원 원장)
		19:00~21:30	북한 영상을 통해 알아보는 주민의 삶과 문화	김성경(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
2회차	7/14(화)	18:30~21:30	북한의 결혼, 가족제도 이해	박현선(이화대학교 교수)
3회차	7/21(화)	18:30~21:30	북한여성의 일과 경제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4회차	7/28(화)	18:30~21:30	북한의 아동·청소년 교육, 문화 이해	조청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5회차	8/22(토)	13:00~15:30	진행자의 평화 감수성 훈련	박인혜(갈등문화연구원 원장)
6회차		15:30~18:00	진행자의 소통능력 심화훈련	이덕경(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에듀피스 강사)
7회차	8/29(토)	13:00~17:30	교육진행, 사회적 대화진행 실습	박인혜(갈등문화연구원 원장) 이덕경(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에듀피스 강사)
8회차		17:30~18:00	평가 및 수료식	박인혜(갈등문화연구원 원장)

4. 외부 교육 보고

- ① 동탄중앙초등학교 교사연수 “포래조정”, 2/17(월) 12:40~14:20 (2시간), 인원 30명, 진행: 이덕경
- ② 영등포마을지원센터 동지원관 교육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3/20 (금) 13:00~17:00 (4시간), 인원 9명, 진행: 여혜숙
- ③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활동가 교육 “회복적 관점 생활교육-해결을 위한 워크숍” 3/25(수) 10:30-12:30(2시간), 인원 5명, 진행: 여혜숙
- ④ 대전 은어송 중학교 교사 연수 주제: 회복적 생활교육
전체교사대상 연수: 4/21(화) 14:00-15:50, 진행: 여혜숙
학년별 연수: 4/22(수) 14:20-15:50, 진행: 박인혜, 여혜숙, 이덕경

5. 프로그램 퍼실리테이션 (Facilitation)

1) 여가부 프로젝트 “1325 국가행동계획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진행

- 총진행: 여혜숙, ○모 둠 진행: 박인혜, 이덕경, 김정아

① 1차: 7/23(목) 18:30 ~ 21:00,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강의: 이현숙(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여성·평화·안보 유엔결의안 1325를 아시나요?’

질문1> 강의를 듣고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2> 여성·평화·안보와 내 삶의 연관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질문3> 여성이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② 2차: 8/13(목) 18:30 ~ 21:00,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강의: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여성들이 평화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질문1> 강의를 듣고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2> 여성이 평화롭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생각한 때는 언제인가요?

질문3>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 <온라인 평화대화> 온라인 회의·교육 약속 만들기

- 총진행: 이덕경 ○ 소모임 진행: 김정아, 손서정

- 일시·장소: 2020년 11월 23일(월) 20:00-21:45, 온라인 회의

- 참석: 김다미, 김세민, 김정아, 김지선,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여혜숙, 유정은, 이덕경, 이향림, 이현숙 (12명)

- 질문

- * 나와 평화여성회의 인연과 최근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 * 내가 경험한 온라인 대화는 무엇이며,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 * 온라인 약속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모듬진행)
- * 모듬 발표
- * 소감나누기

3)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주최)

(1) 서울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 ① 심화교육 참가: 오프라인 교육 2시간, 온라인 실습 2시간 참여
: 김정아,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여혜숙, 이덕경
 - ② 퍼실리테이터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9/17 (목) 9:00~11:30, 김정아, 박인혜, 여혜숙, 이덕경
 - ③ 서울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퍼실리테이터 참여
- 9/19, 20, 26 10/7, 8, 10, 11 (8:30~18:00)
- 참여: 김정아, 박인혜, 여혜숙, 이덕경
 - ④ 퍼실리테이터 평가회의
- 일시,장소: 12월 16일(수) 19:00, 온라인(zoom)
- 참석:
- (2) 2020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종합 토론회
- 12/5(토), 6(일) 9:00-18:00, 온라인(zoom)
 - 참여: 여혜숙

6. 평가

1) 성과:

- 운영위원회와 매뉴얼팀의 구성원이 확대되고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코로나로 인한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여 온/오프라인을 겸하여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6번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매뉴얼팀은 9차의 모임이 진행되었다. 매뉴얼팀은 정기적인 학습모임과 토론을 통해 구성원들 간 새로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시도되었다. 또한 매뉴얼팀에서 제안하여 <온라인 평화대화>를 개최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 회의등에서 경험한 것을 공유하고 서로 지킬 약속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에 있는 회원이 참여하여 온라인 대화의 장점이 살아났고, 2021년도에도 시도해 볼만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 2019년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과정>에 이어서 진행된 <2020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심화 과정>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신청자가 있었고, 그 중 30명을 선발하고, 그 중에 14명이 수료하였다. ‘북한·북한의 변화·북한여성’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갈등해결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데 최근의 북한의 변화를 알려주는 내용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어 시기적절하고 좋은 기획이었다. 2019년에 이어서 심화된 내용으로 진행되어 만족도도 높았다. 향후 수료자를 대상으로 갈등해결과 평화·통일 교육을 접목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 ‘서울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참여로 갈등해결센터 내부의 퍼실리테이터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주제의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한 평화여성회의 주력사업인 ‘여성·평화·안보 유엔결의안 1325 국가행동계획’의 대중 교육과 홍보사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기획단계부터 참여하고 진행한 것도 큰 성과로 남는다.

2) 과제:

- 세부사업안에 있는 대상별 성과물을 만드는 것과 평화통일교육 홍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 운영위원회와 매뉴얼팀의 구성원이 늘어 난 성과는 있는 반면 구성원이 겹쳐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활동회원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역량을 발휘할 다양한 모임의 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
- 센터의 사회적대화 퍼실리테이션의 역량의 전문성을 살려 이 부분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팀의 이름을 내용과 사업내용에 맞추어서 바꾸기로 하다. (평화통일교육 연구팀 → 평화통일교육팀, 매뉴얼팀 → 교육매뉴얼 연구팀)

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 조직

- 연구원 이사회 (이사장-김성은, 이사-강명숙, 김귀옥, 김성보, 송연옥, 안자코 유카, 원재연, 정경훈, 조영주, 조정아, 한운석, 홍승희)
- 연구원장 (김귀옥), 부원장 (조영주), 연구위원 (강인화, 김성경, 김정아, 박현선, 손서정, 유진아, 윤보영, 이애덕, 이현희, 정용숙)
- 연구원 간사 (김태원)
- 편집진 편집위원장 (김귀옥), 부편집위원장 (윤보영, 정용숙), 편집위원 (강인화, 김성경, 김정아, 박현선, 손서정, 유진아, 이애덕, 이현희), 편집간사 (김태원)
- 연구원 후원회원 (강성천, 강지윤, 김동환, 김선일, 김진환, 박경로, 박배균, 박병인, 박선옥, 송혜련, 신정완, 유임하, 이충진, 정경훈, 정경희, 지혜경, 천정환, 최은영, 한모니까, 허영란)

2. 회의

1) 연구원 이사회 및 연구위원 회의

① 연구원 2기 이사

- 활동 중단-서승, 유정애
- 신임 이사-원재연(2월, 연세대), 조정아 이사(8월, 통일연구원), 한운석 이사(8월, 독일 튀빙겐대)

② 연구위원 변경

- 활동 중단-이나영
- 신규 가입-강인화(숙명여대), 이현희(민주평통), 정용숙(중앙대)

2) 연구원 이사 서면회의

- 서면 이사회의 개최
- 6월 17일 이사님들께 보고 진행

3) 연구위원 워크숍과 회의

① 1차 연구위원 워크숍

- 일시 : 1월 18일 오전 11시
- 발표 : 평화운동과 청년
- 발표자 : 문아영(평화모모 대표)
- 장소 :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석자 : 김성은, 김귀옥, 김성경, 김정수, 김정아, 손서정, 유진아, 윤보영, 이애

덕, 김태원

② 2차 연구위원 비대면 워크샵, 도구: 줌(Zoom)

일시 : 5월 18일(월) 6:30pm-8:30pm

주제: 한국전쟁과 한국군'위안부

『그곳에 한국군'위안부'가 있었다』 (김귀옥 저, 2019) 북 콘서트

사회 : 김성경

토론 : 손서정

참석자: 김귀옥, 김성경, 김정아, 김태원, 손서정, 윤보영, 이애덕, 여혜숙, 정용숙, 조정아

③ 3차 연구위원 비대면 워크샵, 도구: 줌(Zoom)

일시 : 7월 6일(월) 8pm-10pm

주제: 영국 청년의 한국전쟁 이야기

『영국 청년 마이클의 한국전쟁』 (이향규 저, 2019) *참고문헌: 후아유 (이향규 저, 2018)

사회자: 박현선

발제자: 이애덕, 김정아

참석자: 강인화, 김성경, 김정수, 김정아, 김태원, 박현선, 손서정, 윤보영, 유진아, 이애덕, 이현희, 정용숙

특별손님: 이향규(영국 체류 중)

④ 4차 연구위원 비대면 워크샵, 도구: 줌(Zoom)

일시: 9월 24일(목) 8pm-10pm

주제: 러시아 여성이 말하는 2차 세계대전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문학동네, 2015)

사회자: 김귀옥

토론자: 윤보영, 김성경

참고 발제: 정용숙

참석자: 김귀옥, 김성경, 김정아, 김태원, 손서정, 윤보영, 정용숙

⑤ 5차 연구위원 비대면 워크샵, 도구: 줌(Zoom)

날짜: 11월 26일(목) 8pm-10pm

주제: 이효재의 『분단시대의 사회학』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기

사회: 김성경

발제: 조영주

참석자: 김귀옥, 김성경, 김정수, 김정아, 김태원, 손서정, 윤보영, 여혜숙, 이애덕, 이현희, 조영주

⑥ 연구원 회의, 도구: 줌(Zoom)

날짜: 12월 21일(월) 8pm-9pm

주제: 송년 모임과 2021년 연구원 활동 계획 윤곽 설정

참석자: 강인화, 김귀옥, 김성경, 김정아, 김태원, 손서정, 이애덕, 이현희, 정용숙

3. 『여성과 평화』 6호 준비와 발간

1) 1차 『여성과 평화』 6호 편집회의

일자: 1월 20일 오후 6시

참석: 김귀옥, 윤보영, 김태원(간사)

① 큰 주제 및 방향

- 특집: “페미니즘과 평화”--논문

- 에세이--다양한 집필자의 평화 관점의 다양한 주제 환영

② 모집 관련

- 2월 3일 오즈메일 발송

* 7편 정도 기고 신청

- 3월 11일 오즈메일 재발송

2) 2차 『여성과 평화』 6호 편집회의

일자: 5월 7일 오후 7시

장소 : 사당역 인근 스테디룸

참석: 김귀옥, 윤보영, 김태원(간사)

① 출판사 컨택 및 교정양식 통일(김태원 간사)

- ‘평화여성’ 이름으로 출판, 배포는 선인 측에서(배포처 제공해야)

- ISSN 직접 등록

- 책 사이즈 등 협의

② 원고 수정

- 저작권 문제가 있는 사진 등 검토 및 수정 요청

③ 카테고리 변경

- 자유기고의 박성은, 손서정 글을 평화에세이로

- 페미니즘과 평화 카테고리를 ‘페미니즘과 여성, 평화’로 변경

3) 3차 『여성과 평화』 6호 편집회의

일자 : 6월 15일 오후 8시

장소 : ZOOM 화상회의

참석자 : 김귀옥, 김태원(간사)

- ① 『여성과 평화』 6호 목차 최종 검토
- ② 출판사: 평화여성; 인쇄 및 배본: 도서출판 선인

4) 7월 『여성과 평화』 6호 진행 상황

- 머리말(김귀옥) 수정 및 검토
- 1차 교정·교열 작업 완료
- 도서출판 선인에 내지 디자인 작업 의뢰(선인에 『여성과 평화』 1호, 5호 발송)

5) 8월 『여성과 평화』 6호 진행 상황

- 원고 작성자들에게 수정작업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작성 요청
- 1교 및 표지안 수정사항 선인에 전달
- 출판지원금 후원 : 3월 여혜숙(30), 4월 김귀옥(50), 7월 김귀옥(30), 정경훈(10), 김정아(10), 이애덕(10), 김성경(30), 이현희(5), 본회(김정수-30), 8월 김성은(50), 정병하(여혜숙-50), 김지영(50) 총 355만원

『여성과 평화』 6호 목차

발간사(김성은) 머리말(김귀옥)
[특집] 페미니즘과 여성,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미니즘 시선에서 바라본 평화(윤보영)- ‘여성’이면서 ‘청년’인 ‘평화활동가’이거나 ‘평화활동가’인데 여성이고 ‘청년’이거나(문아영)- 5·18 민중항쟁 정신을 평화운동으로 계승하고 있는 오월의 여성(김귀옥)
한반도 평화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왜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참여해야 하는가?(김정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여성 참여: 한계와 기회, 그리고 도전과제(정연주)
남과 북이 바라보는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정(정영철)- 북한의 평화관 연구(김희정)
내가 만난 북한여성, 내가 겪은 남녘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만난 북한여성(박현선)- 북녘녀성의 남녘 체험기(김련희)
평화에세이

- 전쟁의 피해자, 가족의 희생자 미군 위안부(박성은)
- 바이러스 그 이후, 평화(손서정)
- 남성다움을 둘러싼 우문에 현답찾기(김태원)

선생님과 학생이 쓰는 평화.통일 이야기

- 교동도와 평화를 연결하다(김영만)-평화와 통일(전재희)
- 통일과 평화의 길(방운수)



4. 기타 행사

일시: 7월 25일 토요일 저녁 8시

주제: “7월 25일 대화의 밤”, 도구: 줌(Zoom)

주관: 한국여성평화연구원과 갈등해결센터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진행: 여혜숙

참석자: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김태원, 이애덕, 손서정, 윤보영

5. 11월 16일 학술행사 - 통일부의 학술행사 지원 사업

- 통일부 학술행사 지원서 제출(4월 29일) 및 선정(5월 8일: 지원금 560만원)

- 발표, 토론, 진행자 등 섭외

- 대관 절차 진행(대관비: 48만원)--코로나19로 인해 대관이 제한되어 장소 선택

의 폭이 좁은 문제 발생

- 9월 21일(월)까지 발표 제목 받은 후 포스터 제작
- 10월 26일(월)까지 발표문 제출
- 토론문 제출은 11월 9일(월)까지
- 행사 후 10일내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통일부에 제출

여성,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한반도평화 구축을 위한 여성주의적 성찰

일시 | 2020년 11월 16일(월) 13:00-18:00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본 행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 온라인 참여 링크와 PDF 자료집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신청 | <https://forms.gle/zgsgHzpT2sJPgQE57>



개회

사 회 |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개회사 | 김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1부 남북한 여성교류: 30년간의 대화

사회 | 한정숙 (서울대학교)
 발표 | "의미있는 참여의 관점에서 본 남북여성교류: 성과와 과제"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남북여성 교류를 통한 분단극복 모색" -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변화하는 북한사회 속 여성의 목소리" -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토론 | 조영숙 (수원여성회)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2부 한반도평화를 바라보는 여성의 시선

사회 | 김성보 (연세대학교)
 발표 | "탈식민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징병제의 역사" - 강인화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코로나19 이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여성주의적 개입 가능성"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남한에서 북한을 본다는 것은" - 윤보영 (동국대학교)
 토론 | 김귀옥 (한성대학교)
 손서정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전원근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주최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원 | 통일부

여성,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여성주의적 성찰 -

일시 : 2020년 11월 16일 (월) 13:00 - 18:00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주최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원 : 통일부

토론회 순서 ▶▶▶

시간	구성	내용	
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	사회: 김귀옥(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개회사: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영상축사: 이인영(통일부 장관)	
14:00-15:40	1부	의제: 남북한 여성교류: 30년간의 대화 사회: 한정숙(서울대학교)	
		<발표> 1991-2020, 남북여성교류 30년의 성과와 과제 -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남북여성 교류를 통한 분단극복 모색 -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변화하는 북한사회 속 여성의 목소리 - 박현선(이화여자대학교)	<토론> - 조영숙(수원여성회) - 유성희(한국YWCA연합회) - 한미경(전국여성연대)
15:40-16:00	휴식	다과	
16:00-17:40	2부	의제: 한반도 평화를 바라보는 여성의 시선 사회: 김성브(연세대학교)	
		<발표> 탈식민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 징병제의 역사 - 강인화(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코로나 19 이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여성주의적 개입 가능성 -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남한에서 북한을 본다는 것은 - 윤보영(동국대학교)	<토론> - 김귀옥(한성대학교) - 손서정(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전원근(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17:40-18:00	폐회		

2020년 결산보고

2020년도 결산안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본회 결산

계정과목	수입부				지출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계정과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예산	결산	달성율				예산	결산	달성율		
회비수입	41,000,000	29,072,300	70.91%		29,072,300	사업비	14,250,000	10,482,500	73.56%		32,160,200
회원	30,000,000	21,072,300	70.24%		21,072,300	회의비	850,000	525,000	61.76%		525,000
이사	11,000,000	8,000,000	72.73%		8,000,000	평화통일사업	3,000,000	1,884,500	62.82%	21,602,200	23,562,200
후원금	22,600,000	20,783,460	109.39%		20,783,460	재정사업	2,000,000	2,895,500	145%		2,895,500
개인	18,600,000	9,981,460	66.54%		9,981,460	연대사업비	3,000,000	3,077,500	103%		3,077,500
재정모금	4,000,000	7,222,000	180.55%		7,222,000	출판지원금	3,000,000	2,100,000	70%		2,100,000
단체후원		3,580,000			3,580,000						
참가수입	500,000	0			0	부설기구 교부금		2,400,000	100%		2,400,000
자료제공	200,000	240,000	120%		240,000	갈등해결센터		1,200,000	100%		1,200,000
기타수입	3,000,000	1,783,679	59.46%		1,783,679	여성평화연구원		1,200,000	100%		1,200,000
차입금		2,100,000			2,100,000	인건비	37,200,000	24,500,000	65.86%		24,500,000
						업무추진비	7,200,000	2,400,000	33.33%		2,400,000
						인건비	30,000,000	22,100,000	73.67%		22,100,000
사업후원1 (여성가족부)				18,000,000	18,000,000	운영비	14,350,000	13,007,861	94%		13,007,861
사업후원2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15,000,000	15,007,796	관리비	7,500,000	7,149,368	95.30%		7,149,368
이자수입				7,796		복리후생비	3,000,000	1,704,870	50.30%		1,704,870
						사무비	2,600,000	2,458,931	93%		2,458,931
						통신비	900,000	810,092	88.80%		810,092
						기타지출	350,000	884,600	251%		884,600
						미지급금	1,550,000	550,000	35%		550,000
						차입금	550,000	550,000	100%		550,000
						연대회의비	1,000,000	0	0%		0
						차입금 반환					
						적립금	1,800,000	1,500,000	83%		1,500,000
						퇴직적립금	1,800,000	1,500,000	83%		1,500,000
						예비비	205,739				
소계	67,300,000	53,979,439		33,007,796	86,987,235	소계	69,355,739	52,440,361		21,602,200	74,042,561
전년이월금	2,055,739	2,055,739			2,055,739	차년 이월금		3,594,817		11,405,596	15,000,413
누계	69,355,739	56,035,178		33,007,796	89,042,974	누계	69,355,739	56,035,178		33,007,796	89,042,974

2. 2020년도 갈등해결센터 결산

수입부					지출부						
계정과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계정과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예산	결산	달성율				예산	결산	달성율		
						사업비	2,120,000	1,504,529	70.9%		9,504,529
전입금	1,200,000	1,200,000	100%		1,200,000	회의비	720,000	227,500	31.5%		227,500
후원금	3,785,572	3,649,640	96.4%		3,649,640	강사비	400,000	0	0%		0
참가수입	150,000	0	0%		0	프로젝트사업비	1,000,000	1,277,029	127%	7,514,070	9,277,029
자료제공	100,000	59,000	59%		59,000	운영비	3,200,000	3,177,650	99.2%		3,177,150
기타수입	200,000	509	00.1%		509	인건비	3,000,000	2,700,000	90%		2,700,000
						사무관리비	50,000	135,650	271%		135,650
						복리후생비	100,000	333,000	333%		333,000
						기타지출	50,000	9,000	17%		8,500
						예비비	300,000				
프로젝트1 (통일교육협의회)					7,514,070						
소계	5,435,572	4,919,149			7,514,070	소계	5,620,000	4,682,179		7,514,070	12,196,249
전년이월금	184,428	184,428			184,428	차년 이월금		421,398			421,398
누계	5,620,000	5,103,577			7,514,070	누계	5,620,000	5,103,577		7,514,070	12,617,647

3.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20년 결산(안):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수입부						지출부					
계정과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계정과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예산	결산	달성율				예산	결산	달성율		
본회교부금	1,200,000	1,200,000	100.00%		1,200,000	사업비	5,300,000	4,929,330	93.01%		10,527,330
이사회비	5,000,000	5,000,000	100.00%		5,000,000	회의비	1,800,000	36,000	2.00%		36,000
참가수입	150,000	0	0.00%		0	강사비	500,000	100,000	20.00%		100,000
자료제공	100,000	0	0.00%		0	[여성과평화] 제작 및 추진비	3,000,000	3,665,000	122.17%		3,665,000
기타수입	200,000	3,597	0.00%		3,597	프로젝트 사업비		1,128,330		5,598,000	6,726,330
차입금	0	0			0	운영비	6,400,000	6,023,330	94.11%		6,023,330
후원금		200,000	0.00%		200,000	인건비	6,000,000	6,000,000	100.00%		6,000,000
출판지원금	3,000,000	3,550,000	118.33%		3,550,000	사무비	100,000	10,830	10.83%		10,830
						복리후생비	200,000	0	0.00%		0
						기타지출	100,000	12,500	12.50%		12,500
사업후원(통일부)				5,598,000	5,598,000	기관 후원비		200,000			200,000
						차입금반환	0	0			0
						예비비	599,010	0	0.00%		0
소계	9,650,000	9,953,597		5,598,000	15,551,597	소계	12,299,010	11,152,660		5,598,000	16,750,660
전년이월금	2,649,010	2,649,010			2,649,010	차년 이월금		1,449,947		0	1,449,947
누계	12,299,010	12,602,607		5,598,000	18,200,607	누계	12,299,010	12,602,607		5,598,000	18,200,607

2020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부설기관 포함)의 재정 현황

1-1. 일반회계

수 입		지 출	
2020년 수입	68,852,185	2020년 지출	68,275,200
본 회	53,979,439	본 회	52,440,361
갈등해결센터	4,919,149	갈등해결센터	4,682,179
한국여성평화연구원	9,953,597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1,152,660
전년이월	4,889,177	차년이월	5,466,162
본 회	2,055,739	본 회	3,594,817
갈등해결센터	184,428	갈등해결센터	421,398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649,010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449,947
합 계	73,741,362	합 계	73,741,362

1-2. 특별회계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 참여확대 공모사업 “여성·평화·안보 의제 대중적 확산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홍보영상 제작사업”	18,000,000	18,000,000	여성가족부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지원사업 “2020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심화과정”	7,514,070	7,514,070	통일교육협의회
2020년 통일분야 학술행사 지원사업 “학술행사 <여성,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5,598,000	5,598,000	통일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한국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협력사업 “한반도 평화체제와 성평등한 한반도” 학습모임 외	15,007,796	3,602,200	한국여성평화 운동네트워크
잔액		11,405,596	
4건	46,119,866	46,119,866	

1-3. 남북교류기금

내역	수 입	지 출	잔 액	내역
전년이월	77,741		77,741	
2020년 이자	76		76	
합 계	77,817	0	77,817	

1-4. 자산 및 부채

- 1) 부동산 자산 : 여성미래센터 전세금 55,711,000원
- 2) 채무 : 3,100,000원
 - 2019년도 차입금 : 1,000,000원, - 2020년도 차입금 : 2,100,000원

2020 회원회비 현황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번호	이름	금액
1	강경란	60,000	51	박소영	20,000
2	강미연	120,000	52	박순옥	80,000
3	강성천	240,000	53	박은미	120,000
4	강인화	90,000	54	박인숙	120,000
5	강지윤	240,000	55	박인아	120,000
6	고유경	110,000	56	박인혜	100,000
7	권희수	110,000	57	박정렬	55,000
8	권점옥	10,000	58	박주혜	120,000
9	김경미	120,000	59	박지용	180,000
10	김귀옥	120,000	60	박진경	60,000
11	김귀희	120,000	61	박현선	160,000
12	김다미	120,000	62	박현숙	360,000
13	김동환	360,000	63	박희진1	120,000
14	김명신	10,000	64	박희진2	120,000
15	김미경	360,000	65	밤남희	120,000
16	김민화	240,000	66	백미순	110,000
17	김선일	120,000	67	백영민	120,000
18	김선혜	140,000	68	부윤경	60,000
19	김성경	360,000	69	상호문화 Style 연구소	80,000
20	김숙임	120,000	70	서명숙	240,000
21	김연수	110,000	71	서미숙	120,000
22	김영리	40,000	72	서민순	120,000
23	김영순	110,000	73	손빛나리	30,000
24	김예슬	20,000	74	손서정	120,000
25	김은진	120,000	75	손은정	120,000
26	김정수	120,000	76	손희정	120,000
27	김정아	120,000	77	송소희	60,000
28	김정옥	50,000	78	송혜련	70,000
29	김정자	10,000	79	신난희	130,000
30	김지선	90,000	80	신민시	7,000
31	김지호	40,000	81	신정완	40,000
32	김진영1	10,000	82	심용선	30,000
33	김진영2	30,000	83	안경호	120,000
34	김현희	120,000	84	안김정애	360,000
35	김혜경	120,000	85	안수경	120,000
36	김홍희	30,000	86	안영미	90,000
37	김화숙	240,000	87	안지영	15,000
38	김희순	60,000	88	양덕열	120,000
39	김희은	120,000	89	여혜숙	600,000
40	김희정	120,000	90	오미영	110,000
41	남인순	100,000	91	오미영	10,000
42	노귀남	120,000	92	오순애	60,000
43	문영금	120,000	93	오종열	120,000
44	민정숙	60,000	94	유시대	55,000
45	박경로	80,000	95	유은주	240,000
46	박나미	20,000	96	유임하	40,000
47	박난희	100,000	97	유지연	60,300
48	박배균	120,000	98	윤경원	240,000
49	박병인	120,000	99	윤보영	120,000
50	박선옥	120,000	100	윤수경	45,000

101	윤은주	330,000	151	최영애	120,000
102	이경민	40,000	152	최윤태	120,000
103	이경순	120,000	153	최은순	360,000
104	이권명희	120,000	154	최은영	120,000
105	이금순	120,000	155	최정남	60,000
106	이덕경	120,000	156	한모니까	80,000
107	이명화	120,000	157	한산석	110,000
108	이상화	220,000	158	한옥자	120,000
109	이소윤	40,000	159	한옥화	120,000
110	이애덕	240,000	160	한정숙	120,000
111	이영분	40,000	161	함경숙	20,000
112	이예정	240,000	162	함영미	120,000
113	이유란	220,000	163	허영란	120,000
114	이윤아	110,000	164	허목	120,000
115	이은영	120,000	165	홍승희	120,000
116	이정은	120,000	166	황영주	120,000
117	이진옥	120,000	167	홍승희	120,000
118	이충진	120,000	168	황영주	120,000
119	이향림	60,000			
120	이현숙	120,000			
121	이현주1	30,000			
122	이현주2	60,000			
123	이현희	190,000			
124	장근석	360,000			
125	장효순	120,000			
126	전상희	240,000			
127	전희정	60,000			
128	정경란	120,000			
129	정경훈	120,000			
130	정경희	240,000			
131	정범진	110,000			
132	정용수	120,000			
133	정용숙	40,000			
134	정원진	120,000			
135	정인석	5,000			
136	정현기	110,000			
137	정혜진	120,000			
138	조구희	600,000			
139	조배원	60,000			
140	조영미	110,000			
141	조영숙	360,000			
142	조영순	60,000			
143	조영주	120,000			
144	조영희	90,000			
145	지혜경	120,000			
146	천정환	120,000			
147	최민정	60,000			
148	최수지	60,000			
149	최안진경	30,000			
150	최영숙	60,000			
소 계					21,072,300

2020 이사회비 현황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김성은	1,000,000
2	김귀옥	1,000,000
3	김정수	1,000,000
4	김지영	1,000,000
5	김정아	1,000,000
6	백미순	1,000,000
7	여혜숙	1,000,000
8	한정숙	1,000,000
소 계		8,000,000

2020 개인후원 현황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김성은	1,000,000
2	김세민	3,000
3	김숙임	200,000
4	김영순	300,000
5	김윤옥	1,000,000
6	김정수	700,000
7	김정아	200,000
8	김지선	151,540
9	김지영	500,000
10	박수선	400,000
11	박인혜	100,000
12	손희정	151,540
13	여혜숙	474,900
14	윤수경	100,000
15	윤은주	12,000
16	이덕경	100,000
17	장명숙	1,000,000
18	정대환	274,880
19	정병하	500,000
20	정연주	100,000
21	정현백	1,173,600
22	조윤희	100,000
23	한정숙	1,000,000
24	함필주	200,000
소 계		9,741,460

2020 여성재단 100인 릴레이 후원 현황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김귀옥	10,000
2	박인혜	10,000
3	김지선	20,000
4	김정아	10,000
5	이덕경	10,000
6	이애덕	10,000
7	여혜숙	10,000
8	정병하	10,000
9	정현기	10,000
10	정지은	10,000
11	김세민	10,000
12	김성은	10,000
13	박희진	10,000
14	김정수	20,000
15	손무수	10,000
16	김귀선	10,000
17	김정희	10,000
18	김정량	10,000
19	이은주	10,000
20	이진	10,000
21	양진솔	10,000
22	김귀희	10,000
소 계		240,000

2020 『여성과평화』 6호 출판지원금 현황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김귀옥	800,000
2	김성경	300,000
3	김성은	500,000
4	김정수	300,000
5	김정아	100,000
6	김지영	500,000
7	여혜숙	800,000
8	이애덕	100,000
9	이현희	50,000
10	정경훈	100,000
소 계		3,550,000

임원 인선안

임원 인선 안

임원 인선(안)을 토대로 연임 및 신임 임원안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1항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2항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임원 선출 (안)

이사(연임) : 김성은, 김지영, 김정아

이사(신임) : 배현주, 윤은주

사업감사(연임) : 박유희

○ 2021년 임원 임기

구분	명 단	임기	비 고	인선(안)
이사회	김성은 (이사장)	2021		
	김귀옥	2020~2022	연임	
	김정수	2020~2022	연임	
	김지영	2021~2023	연임	
	김정아	2021~2023	연임	
	박현선	2020~2022	연임	
	배현주	2021~2023	신임	
	여혜숙	2020~2022	연임	
	윤은주	2021~2023	신임	
	이나영	2020~2022	연임	
	조영희	2020~2022	연임	
	한정숙	2020~2022	연임	
상임대표	김정수	2020~2022	중임	
공동대표	여혜숙	2020~2022	중임	
감 사	안수경	2020~2022	신임	
	박유희	2021~2023	연임	
부설기구	소장 여혜숙	2019~2021		
	원장 김귀옥	2019~2021		

2020년 평화회원상

손희정 회원

◎ 평화회원상 선정 이유

1. 손희정 회원은 2006년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에 참여하면서 청소년교육팀에서 회원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부설 갈등해결센터 평화통일연구팀의 팀원으로 적극적 활동을 시작하였고, 2020년에는 매뉴얼팀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의 폭을 넓혔습니다.

2. 손희정 회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유의 긍정적이고 능동적 자세로 활동영역을 전환, 선도적 아이템 개발에 대처함으로써 다른 회원들에게 신선한 도전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3. 손희정 회원은 대중적인 관심사를 잘 파악하여 부설 갈등해결센터의 사업이 일반대중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평화회원상

윤보영 회원

◎ 평화회원상 선정 이유 : 윤보영 선생님 추천의 말씀

그녀는 언제나 밝게 웃으며 말한다.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문제에도 자신의 입장만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며 말한다.

그녀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 손님으로 왔다.
그러나 어느 듯 그녀는 “제가요~~”하며
주인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녀는 10년 만에 발간한 『여성과 평화』 6호 실무를 기꺼이 맡았다.
연구하라, 강의하라, 돈 벌라, 연애할 시간이 있을까?
그래도 6호 만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
가고 있다.

2020년을 넘어 2021년에도 여성과 평화의 힘을 더 키워 나갈
우리의 자매이자 동지를 추천하는 제 가슴도 뜨거워진다.

- 김귀옥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2021년 사업계획안

2021년 사업기조와 방향(안)

2021년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2019년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후퇴된 북미대화가 새로이 전개될지 여부가 한반도 평화 과정 진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취임으로 출범하여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관련 장관, 차관, 담당관에 대한 청문회와 정책안 마련이 되려면 2021년도 상반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또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미지수이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자력갱생 기조를 강화하고 코로나19와 홍수 피해를 겪으면서도 2021년 1월의 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 체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위한 북미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20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를 보인 바, 2021년 상반기 어떻게 다시 당사자인 동시에 중재자로서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단된 남북관계 개선, 남북의 군사 부문 긴장 완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보다 담대하고 용기있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와 환경 속에서 평화여성회는 2021년에는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적극 매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여성운동, 시민사회, 국제네트워크와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여성들의 종전과 평화의 목소리를 국내외 특별히 유엔과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청년여성들이 참여하여 창의적인 방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동시에 2020년까지 축적된 ‘여성평화안보’(WPS) 의제 관련 네트워크와 콘텐츠, 그리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코로나19가 던져준 인간안보에 대한 질문을 여성의 관점에서 수용하여 여성의 인간안보 담론과 구체적 내용 발굴을 통해 여성들이 참여하는 성평등한 한반도에 대한 구상을 좀 더 진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21년에 재개된 K-1325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동아시아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

동시에 1991년~199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중단된 남북여성교류를 복원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내적-국제적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1.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형성을 위한 적극적 평화 만들기 활동

2021년은 국내외적 차원에서 여성과 평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이다. 미국

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북미 관계의 재정립, 2021년 상반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5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캠페인 등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전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평화여성회는 정세와 현안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담은 논평과 성명서 등 입장문을 발표하여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 성명서, 논평 발표 (SNS 언론 활용 등)
-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여성, 평화, 안보 정책 공약 제안 활동
- 통일, 외교, 안보 관련 시민사회 연대활동 참여

2. 여성이 만들어 가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국내외 전개

202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70년을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본회는 2020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으나, 2021년에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을 개발하여 여성들의 종전평화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고, 국내외 여성평화운동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동을 적극화한다. 특별히 GPPAC NEA, UNDPFA 주도 동아시아 WPS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엔총회와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한다.

- Women's Korea Peace Appeal 전개
- Korea Peace Now 글로벌 캠페인 연대 및 한국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활동 참여 (네트워크에는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전국여성연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
-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수립을 위한 여성시민공공외교 참여

3. WPS(여성·평화·안보) 의제와 1325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2021년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국가행동계획 (2021~2023)이 시작되는 해이다. 특별히 3기 국가행동계획 기간 동안 본회는 K-1325 네트워크와 함께 WPS 거버넌스 구축, 여성평화안보 역량강화, 지방화 행동계획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분단과 평화 과정에서의 여성들의 의미있는 참여, 코로나19와 기 후 위기 속에 인간안보 개념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여성평화안보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 한반도 평화 과정에의 의미있는 여성 참여와 성인지적 개입 실현을 위한 활동

- K-1325 네트워크 역량 강화와 1325 국가행동계획 대중적 확산 사업
- 동아시아 WPS 협력 강화 활동

4.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위한 남북여성 협력 기반 조성 활동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년 기념 사업

남북여성교류는 지난 해 북미 하노이협상 결렬 이후 다시 남북관계가 교착되면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성평화운동은 남북협력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남북여성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지닌다. 본회는 1991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민간교류의 역사를 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최 30년을 맞이하여 흠어진 각 토론회 자료들을 모아 자료화하여 남북여성교류와 여성평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동시에 남북여성교류 30년을 기념하고 향후 남북여성의 연대화 협력을 위한 ‘202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칭) 개최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여성운동 연대와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내어 평화여성회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한다.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사업 : 자료집 정리와 토론회 참여자 초청 간담회 등
- 남북여성교류 30년 기념 ‘202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칭) 개최 추진 및 이를 위한 국내외 여성운동 연대와 네트워크 활성화

5. 여성평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갈등해결센터는 2020년에 진행한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심화 과정의 성과를 이어받아 2021년에도 평화통일교육 방법론 개발과 여성평화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전개한다.

- 대상별, 주제별 교육 매뉴얼 개발
- 참여활동을 촉진하는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 대화모임, 평화적 대화를 확산

6. 성인지적 여성평화 담론 형성과 확산활동 전개

2020년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이사회와 연구위원 정비, 후원회원 모집 등을 통해

여성평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위원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꾸준히 진행했고, 『여성과 평화』 6호를 복간하였으며, <여성,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 문제와 활동에서 여성주의적 성찰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젠다와 과제를 모색하였다. 2021년에는 이를 이어나가 성인지적 관점의 한반도 평화과정과 평화제체 형성에 대한 담론 생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여성평화 연구자 워크숍 - 연구위원, 연구원 이사들 결합
- 『여성과 평화』 7호 연구지 발간
- 학술토론회 개최(군‘위안부’ 문제와 유엔안보리 ‘여성’ 관련 주제)
- 1325 대중화를 위한 기고 활동 등 (통일시대 - 민주평통 월간지 등)

【1】 조직사업

1. 회의

1-1. 총회

- 1) 역할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 2021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1-2. 이사회

- 1) 역할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 : 김성은
 - 이 사 :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박현선, 배현주, 여혜숙, 윤은주, 이나영, 조영희, 한정숙

1-3. 운영위원회

- 1) 역할 :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1-4. 사무국회의

-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 김정수(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 김세민(활동가)
- 3) 내용 : 매주

2. 위원회

2-1. 정책위원회

- 1) 역할 :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평화.통일운동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제안한다.
- 2) 구성
 - 위원 : 김정수, 고유경, 안김정애

2-2.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 1) 역할 : 1991~1993 4차에 걸쳐 열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 2) 구성
 - 위원장 : 한정숙 이사
 - 위 원 : 구성 중
- 3) 세부 사업 : 사업계획 참조

【2】 평화통일 사업

1.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형성을 위한 적극적 평화 만들기 활동

- 성명서, 논평 발표 (SNS 언론 활용 등)
-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여성, 평화, 안보 정책 공약 제안 활동
- 통일, 외교, 안보 관련 시민사회 연대활동 참여

2. 여성이 만들어 가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국내외 전개

- Women's Korea Peace Appeal 전개
- Korea Peace Now 글로벌 캠페인 연대 및 한국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활동 참여
(네트워크에는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전국여성연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
-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수립을 위한 여성시민공공외교 참여

3. WPS(여성·평화·안보) 의제와 1325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 여성·평화·안보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 한반도 평화과정에서의 의미있는 여성참여와 성인지적 개입 실현을 위한 활동
- 동아시아 WPS 인덱스 개발을 통한 동아시아 여성평화네트워크
- K-1325 네트워크 역량강화와 1325 국가행동계획 대중적 확산 사업

4.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위한 남북여성 협력 기반 조성 활동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년 기념 사업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사업 : 자료집 정리와 토론회 참여자 초청 간담회 등
- 남북여성교류 30년 기념 ‘202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칭) 개최 추진 및 이를 위한 국내외 여성운동 연대와 네트워크 활성화

【3】 정보 홍보 사업

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SNS 평화활동 등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 소식지 발송
3. 메일을 통해 본 회 소식 전달

【4】 회원 사업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양성과 역량을 확대 강화한다.

【5】 재정 사업

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모금 활동
2. 연말연시 기금 마련 활동 (꽃감 판매 등)

【6】 연대 및 협력 사업

1. 국내 상설 연대

- 1-1.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회, 이사회, 사무국장 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1-2.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의 국내네트워크 활동)
- 1-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여성본부
-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 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네트워크 총회, 수요시위 주관
- 1-6. 시민평화포럼
- 1-7.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2. 국내 사안별 연대

- 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2.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2-3. 기타

3. 국제 연대

- 3-1.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아지역협의회 - 울란바타르 프로세스
- 3-2. 기타

【7】 부설 갈등해결센터

1. 조직

- 센터장 : 여혜숙 , 부소장 : 박인혜(신임)

- 운영위원회 :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김정아, 손서정, 손희정
- 기획자문위원 : 김희은, 이권명희
- 전문위원 : 이덕경, 조영희
- 평화통일교육팀 : 김다미, 김희은, 김지선, 박인혜, 서민순, 손서정, 손희정,
이권명희, 이현숙, 이향림, 여혜숙, 최영애, 신난희
- 교육매뉴얼 연구팀 : 박인혜(팀장), 김정아, 김지선, 손서정, 손희정, 여혜숙,
이덕경

2. 사업방향과 목표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해결적 관점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을 연구, 발전시킨다.
- 조직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의 다양한 역량발휘 및 활동의 기회를 넓히도록 한다.
- 센터 회원들과의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하여 소속감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소모임 구성과 관련하여 대면, 비대면 상의 다양하고 유연한 구조를 마련하여 회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펼치도록 한다.
- 평화·통일교육과 갈등해결교육의 통합적 교육모델 개발을 통해 우리사회 내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3. 세부사업 (안)

- 평화·통일 교육의 다양한 매뉴얼 개발을 위해 대상별, 계층별 이해를 반영한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 소모임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교육과 사업내용을 개발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 평화·통일 역량 확산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실천적이고 대중적인 평화·통일·갈등해결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 평화·통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지역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8】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 조직

- 소통과 화합
-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회의 개최—특히 연구원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

- : 2021년 상반기에는 비대면 이사회 회의 추진 예정
- : 본회, 센터와의 유기성 강화를 위한 활동
- : 갈등해결센터-연구원 워크숍을 2021년에도 개최를 희망

2. 연구원 주요 활동 계획

1) 연구원 워크숍

(1) 연구원 이사 중 연구자의 발표와 토론

- 연구원 이사의 연구원 워크숍 발표 및 참여 활동
- 예) 미중 관계의 현황과 전망(원재연 연구원 이사)
일본에서 본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이해와 과제(송연옥 연구원 이사) 등
- 연구위원의 워크숍 발표 예상 주제
- 예) 독일 언론의 전시‘위안부’ 문제 보도와 이해(정용숙 연구위원),
파주 지역 기지촌의 유산, 기억, 인권문제(강인화 연구위원) 등
- 그 외, 사회적 쟁점이 있는 여성, 평화 주제의 연구물 토론회
- COVID19 상황이 호전되면 여성과 평화의 주제가 흐르는 현지 답사회, 참가 희망 회원들과 함께 추진

2) 『여성과 평화』 7호 발간

- 2021년 1월 총회에서 승인 절차 후
- 2021년 2월 공개 모집
- 8월경 발간
- 『여성과 평화』 7호 실무편집위원진 정비: 위원장-김귀옥, 부위원장-윤보영, 정용숙, 편집간사-김태원

3) 학술토론회 개최

- 2021년 11월 예정
- 주제
1세션-군‘위안부’ 문제와 유엔안보리 ‘여성’ 관련 주제
2세션--열린 주제

4) 담론 생산 활동

- 여성, 평화, 안보(유엔안보리 1325호결의안) 키워드와 관련 주제의 칼럼 기고
조직화를 통하여 1325의 대중화 및 사회적 소통을 위한 담론화

2021년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본회 예산안

수 입 부				지 출 부			
관	항 목	2020년도 결산	예 산	관	항 목	2020년도 결산	예 산
일반 회계	전년이월	2,055,739	3,594,817	일반 회계	사업비	10,482,500	14,500,000
	회비	29,072,300	36,000,000		회의비	525,000	1,000,000
	회원	21,072,300	24,000,000		평화통일사업	1,884,500	2,000,000
	이사	8,000,000	12,000,000		재정사업	2,895,500	4,000,000
	후원금	20,783,460	22,600,000		연대사업비	3,077,500	4,500,000
	개인	9,981,460	10,000,000		[여성과평화] 출판비	2,100,000	3,000,000
	재정모금	7,222,000	9,000,000		부설기구교부금	2,400,000	2,400,000
	부설기관후원	3,580,000	3,600,000		갈등해결센터	1,200,000	1,200,000
	참가수입	0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200,000	1,200,000
	자료제공	240,000	200,000		인건비	24,500,000	28,000,000
	기타수입	1,783,679	1,605,183		업무추진비	2,400,000	3,600,000
	차입금	2,100,000			인건비	22,100,000	24,400,000
					운영비	13,007,861	14,200,000
					관리비	7,149,368	7,500,000
					복리후생비	1,704,870	2,000,000
			사무비	2,458,931	2,500,000		
			통신비	810,092	1,000,000		
			기타지출	884,600	1,300,000		
			차입금 반환				
			미지급금	550,000	3,100,000		
			차입금	550,000	2,100,000		
			연대회의비	0	1,000,000		
			적립금(퇴직적립금)	1,500,000	1,800,000		
			예비비				
			차년이월	3,594,817			
	합 계	56,035,178	64,000,000	합 계		56,035,178	64,000,000

2. 부설 갈등해결센터 예산안

수입부				지출부					
관	항목	2020년도 결산	예산	관	항목	2020년도 결산	예산		
일반	전년이월	184,428	421,398	일반	사업비	1,504,529	2,100,000		
	전입금	1,200,000	1,200,000		사업비	회의비	227,500	400,000	
	후원금	3,649,640	6,828,000			강사비	0	200,000	
	참가수입	0	150,000			프로젝트 사업비	1,277,029	1,500,000	
	자료제공	59,000	100,000		일반	운영비	3,177,650	6,500,000	
	기타수입	509	200,602			회계	인건비	2,700,000	6,000,000
							사무관리비	135,650	150,000
			복리후생비	333,000			300,000		
			기타지출	9,000	50,000				
				차년이월금	421,398				
				예비비		300,000			
합계		5,103,577	8,900,000	합계		5,103,577	8,900,000		

3.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예산안

수입부				지출부				
관	항목	2020년도 결산	예산	관	항목	2020년도 결산	예산	
일반	전년이월	2,649,010	1,449,947	일반	사업비	4,929,330	6,300,000	
	전입금	1,200,000	1,200,000		사업비	회의비	36,000	800,000
	이사회비	5,000,000	6,000,000			강사비	100,000	500,000
	참가수입	0	150,000			[여성과평화] 출판비	3,665,500	4,000,000
	자료제공	0	100,000		프로젝트 사업비	1,128,330	1,000,000	
	기타수입	3,597	200,053		일반	운영비	6,023,330	6,400,000
	차입금	0				회계	인건비	6,000,000
후원금	200,000	400,000	사무비	10,830			100,000	
출판지원금	3,550,000	4,000,000	복리후생비	0			200,000	
			기타지출	12,500	100,000			
				기관 후원비	200,000	200,000		
				차입금반환	0			
				예비비		600,000		
				차년이월금	1,449,947			
합계		12,602,607	13,500,000	합계		12,602,607	13,500,000	

부 록

- 평화여성회 정관
- 평화여성회 조직도
- 2020년 성명서 목록
- 2020년 홍보자료
- 회원가입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 2010년 1월 20일, 제14차 정기(제15차)총회 의결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1. 평화통일사업
2. 평화교육
3. 통일교육
4. 평화통일연구
5. 국내외 연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②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③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징계)

-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권 제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② 회원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
-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

장자 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 ②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 ⑥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공동대표 3인 내외 (상임대표포함)
- ② 이사 15인 이내 (공동대표 포함)
- ③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⑤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제한)

- ①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그 중 1인은 상임대표가 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 유고 또는 결위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가 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한다.
- ③ 필요한 경우 후원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임시 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25조(개최 및 통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발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

-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두고,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부설기구의 장)

- 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수입)

-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의 수립)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40조(구성 등)

- ①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법인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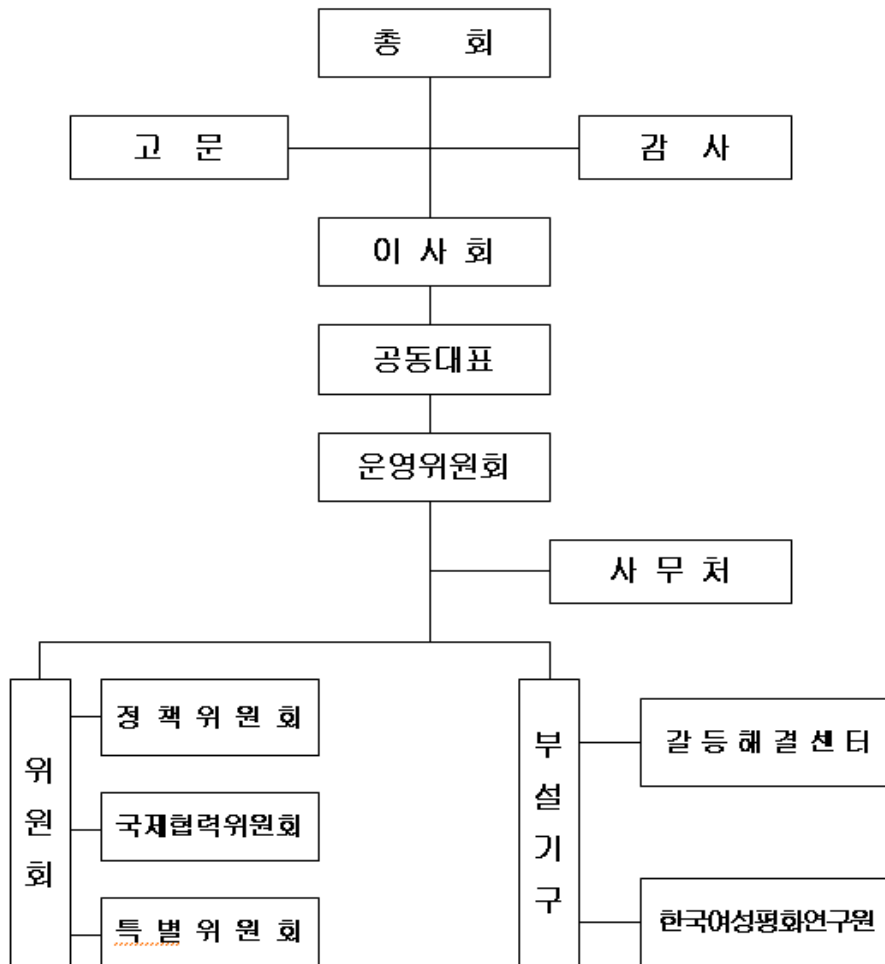
제44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2. 1. 25 4차 개정
 2003. 1. 28 5차 개정
 2004. 1. 9 6차 개정
 2010. 1. 20 7차 개정

【 부록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조직도



【 부록 】 2020년 성명서 목록

날 짜	제 목
1/10	[기자회견]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No War on IRAN!
1/16	[성명]노동자 기본권 무시 삼성 규탄 기자회견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1/17	[성명]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주권침해 발언에 대해 사과, 철회하라
1/22	[기자회견] 한국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규탄한다! 파병 결정 철회하라!
2/19	[기자회견]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2/22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2/28	[성명] 삼성의 '꼼수사과'를 규탄한다.
3/17	[기자회견] 강압으로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3/19	[기자회견] [삼성불법사찰꼼수사과규탄및고발기자회견]"불법사찰감추는꼼수사과,삼성을규탄한다"
3/31	[성명]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3/31	[성명]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4/21	[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4/21	[성명] 현직 의원 비서관의 가정폭력에 대해 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와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에 책임을 다하라.
4/27	[성명] 4.27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건강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공동체 만들자!

날 짜	제 목
5/11	[성명] 통일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라!
5/12	[성명]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에 파병이 웬 말이나!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분쟁 개입이 우려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
5/12	[성명]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5/22	[기자회견]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문
6/15	[성명]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깨어진 신뢰의 회복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6/18	[기자회견] Statement from Korea Peace Now! Urging an End to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6/18	[성명]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즈음해 남북 당국에 드리는 글
6/24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호소문]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6/25	[기자회견] ‘한국전쟁 70년’ -용산 전쟁기념관, 전쟁을 기념하는 곳에서 인권과 평화를 말하는 곳으로-
7/27	한반도 평화 선언 Korea Peace Appeal
8/15	광복75주년 민족자주대회 기념 6.15 남측위 여성본부 성명 : 여성의 힘을 모아 식민과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자!
11/10	무기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각계 공동선언
12/18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기자회견]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No War on IRAN!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공언했던 이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지대지 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이란 외무부 장관이 상황 악화나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최악으로 치달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등 암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act of war)다.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와 레바논, 시리아의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 역시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국이 먼저 공격을 당했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제3국에서, 이라크 정부에 통보도 없이 군사작전을 진행하여 주권 국가의 고위 인사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외교부 역시 "미국의 공격은 이라크 주권과 이라크 내 미군 주둔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였다는 점도 상기한다.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 합의를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이 이란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수차례 검증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이란이 몰래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비난하며 2018년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답이 될 수 없다. 군사행동으로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이후 IS의 등장으로 이어져 온 지난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로 인해 고통 받은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떤 전쟁에도 승자는 없었다.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군수산업체들은 큰 돈을 벌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왔다. 무고한 민간인

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난민이 되었다.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과 이란은 어떠한 추가적인 군사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의 연락장교 파견,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 편에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자국민 보호' 등의 이유를 대더라도,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파병 지역에서 한국군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해온 한국이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절실한 시간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또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칠 것이다.

- 미국의 전쟁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 미국과 이란은 추가적인 군사행동 시도 말라
-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절하라

2020년 1월 10일

미국의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겨레하나,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경남여성회, 경제정의실천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평화재단,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기억공간 re:born,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난민X현장, 녹색당,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중지성의정원, 대구경북겨레하나,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 두바퀴로보는세상사, 문화나눔다가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적 사회주의자, 번역공동체 있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장연, 부평 에스컴시티 공부모임,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폭력평화물결, 생명안전 시민넷,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서울대녹색당, 서울인권영화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수요평화모임, 시민정치마당,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에스타시옹1913,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수용소' 세미나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술해방전선,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은하수살롱,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인권영화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귀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권자전국회의,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설모, 청소년녹색당(준), 통일나무, 팩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팟캐스트 인터내셔널 리뷰(인터: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살롱 레드박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포항여성회,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 한국YMCA전국연맹,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흥사단, ALiM: (Animal Lights Me:) (총 107개 단체)

[성명]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그룹이 2013년 시민단체를 임의로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사내 임직원 386명의 기부금 내역 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불법 수집하여 감시해 왔음이 ‘삼성 노조 탄압 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그룹 차원에서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노조 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경악하고 분노한다. 삼성은 소위 ‘글로벌 일류기업’이라 일컬어지면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불법 사찰은 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말하기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를 숙아내고 통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의도야말로 ‘불온’ 그 자체다. 노동자는 기업이 구축한 체계를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지향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함께 고민하고 조성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다. 삼성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향린교회를 비롯한 11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불온단체’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지원을 받은 한 보수단체가 2010년에 발표한 목록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를 규정한 기준에는 이미 편향된 정치적 시각이 함의되어 있어 더욱 문제적이다. 과연 자산총액 1위에 달하는 대표기업으로서 경영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성장해온 삼성그룹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고위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노조에 대한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불법 사찰과 노조 무력화를 일삼아온 비열하고 위선적인 행태는 전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에 미래는 없다.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업 윤리를 고민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해온 지난 행적을 철저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삼성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철학,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 위선과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6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군포여성민우회,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더불어민주당희망연대노동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반올림, 부산여성단체연합, 삼성그룹사노동조합대표단, 새언론포럼, 새움터,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한부모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향린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성명]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주권침해 발언에 대해 사과, 철회하라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관광은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논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북한 관광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특정하여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권국가이자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고유한 권한이다. 해리스 대사 스스로도 인정하듯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책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 이후 구성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해 사사건건 가로막아 왔으며, 유엔사 또한 교류,협력 목적의 비군사적 통행에 대해서까지 부당하게 간섭하고 통제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대사까지 나서 사실상 대북정책에 대해 일일이 미국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스스로 가중시키는 것일 뿐이다.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는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2020년 1월 17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한국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규탄한다! 파병 결정 철회하라!

정부가 기어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고 말았다. 1월 21일 국방부는 미국의 대對 이란 공세로 긴장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한다고 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불안정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린 곳이다. 한국군이 이곳으로 파병된다면, 그 위기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번 파병 결정은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한, 즉 헌법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마저도 무시한 결정이다. 정부는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에 대한 위험이 보고된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 지역이 불안정해지고 위험이 커진 일차적 책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백기투항을 강요하며 이란을 위협했다.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하며 경제 제재를 가했고, 군사 위협도 강화했다. 미국의 이런 대對이란 공세 강화가 지난해 내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지역에 긴장이 쌓이게 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하고,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군 파병은 그 지역 안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 위험과 불안정 고조에 기여할 뿐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 이어진 IS의 등장까지 끊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중동 민중이 받는 고통과 희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군사 부담을 덜어 주고, 미국의 공세를 정당화하는 데도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와 공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 장교 2명이 이 연합체에 파견된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그랬던 것처럼 앞서 파병된 일본 자위대와도 협력하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정면충돌 위기는 당장에는 피한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지속할 것이고 이 때문에 중동 불안정이 악화될 수 있다. 언제든 위험천만한 상황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청해부대가 휘말릴 수 있으며, 파병 군인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도 더 취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해 왔다. 그런데 그 촛불은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는 대중과 함께 끝까지 정부의 파병에 반대하는 항의를 지속할 것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즉각 철회하라!

2020년 1월 22일

파병에 반대하는 90개 단체 일동

(사)겨레하나,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통일나무, jejueye, 경제정의실천사

민연합, 고창군 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기억공간 re:born,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법과인권연구소,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사단법인 평화철도,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 안티파,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아주노동자운동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인권영화제,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북건설노조, 전북녹색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기억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제주녹색당, 제주도청앞 천막촌 연구자 공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의길, 팩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평등노동자희 제주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피스모모,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베평화재단

[논평]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미국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 주에는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드러났다. 우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동맹’의 허울을 쓰고 무례하고 도를 넘어선 요구를 하는 미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가 결코 이를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지난해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요구해왔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5조와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SMA 위반이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완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이다. 결국 한국의 세금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압박하는가 하면,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 정화 비용 부담도 떠넘겼다. 더욱 경악할 일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 모든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 최초 협정 당시 1,703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0배 가까이 증가해 1조 원을 넘어섰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액은 한 해 5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불합리한 협정에 대한 검증이나 국회 감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등에 불법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겼다. 현재 한국의 1년 치 방위비 분담금보다도 많은 약 1조 3천억 원의 미집행액이 남아있고, 지금까지 감액 편성·불용액 등까지 포함하면 2조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다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만 한없이 ‘특별’한 이 협정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주 미국 정부가 2021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의 탄약고, 전기시설, 배수시설, 도로 등 공사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590억 원)를 책정한 것과 이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사드 장비 운용이나 기지 보수를 위한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현재 사드는 정부가 공언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진

행되지 않고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다.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공사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군이 2021년 사드 체계 성능 개선에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를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을 언급하며,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통합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 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뻔하다. 미국은 불법적인 사드 기지 공사를 비롯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고 확장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미국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든 한국 정부의 결정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굴욕 협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더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분담금을 증액해주거나, '작전태세' 항목 등을 신설해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청해부대의 파병도 백지화해야 한다. 미국의 사드 배치 못박기를 중단시키고 사드를 철거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이 모든 사안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무엇을 위한 '동맹'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2020년 2월 18일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Jejueye, 강동노동인권센터,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사월혁명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시민정치마당, 신대승네트워크,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베평화재단 (총 48개)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2020년 한반도에 펼쳐진 새로운 국면 속에서 올해 한반도 정세의 가늠자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019년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고, ‘19-1동맹’으로 훈련 명칭을 변경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 연기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지난 2월 7일 국방부는 “연기를 검토한 바 없다”며 “이미 작년과 같이 조정된 훈련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19-1 동맹 연습’,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명명하며 기간과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제타격, 북 정권 제거 등이 포함된 공격적인 한미 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 확인된 바 없으며, 최근 주한미군이 공개한 연합훈련 사진과 내용은 북에 대한 적대적인 훈련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높이기엔 충분합니다.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 최신 무인정찰기 MQ-4C 및 스텔스 전투기 F-22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며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대북 적대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드 체계 성능 개선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계획,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기지 공사 계획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할 뿐입니다.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으며, 적대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상대를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고, 남북 군사 합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과감한 중단 결정을 한미 양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북측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같은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남북미 모두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야말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최소한의 신뢰 조치이자 멈춰진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남북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북미의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202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손잡읍시다. 우리가 손잡고,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 전 세계에 호소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도 더욱 연대하고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 매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미 양국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 추가 배치 등 MD 강화, 군비 확장 계획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사)겨레하나,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 연구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광주본부, 6.15경기본부, 6.15대구경북본부, 6.15대전본부, 6.15전북본부, 6.15제주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북본부,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경실련통일협회, 광주진보연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인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도교청년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나무, 평택시민재단,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이상 83개 단체)

[성명]

삼성의 '꼼수 사과'를 규탄한다

삼성의 '꼼수사과'를 규탄한다.

삼성은 오늘(2020. 2. 28.)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불법사찰 범죄의 실체를 가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꼼수사과', '위장사과'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밝힌다.

지난 연말 선고된 삼성 노조파괴사건 판결에서 법원도 인정했듯이 삼성의 불법사찰은 분명 수년간 지속적이었다. 심지어 범죄의 내용도 단순히 시민단체 후원내역을 열람한 것이 아니라, (1)노동조합을 조직 내지 가입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력'을 특정하고 (2)MB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보수단체가 선정한 반국가 친북좌파 단체를 토대로 '불온단체' 명단을 만들어 (3) '문제인력'의 연말정산 자료를 뒤져 '불온단체' 후원내역을 찾아낸 후 (4) 이를 미전실이 각 계열사에 보내 밀착감시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단 한 번의 후원내역 열람만을 했다면서 이를 사과문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분명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기만이다. 우리는 불법사찰 범죄에 대한 그룹차원의 강력한 비호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현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건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는데, 오늘 발표된 사과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온 사회가 우려한 바대로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임의조직에 불과함을 실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불법사찰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과마저도 허울뿐인 조직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삼성의 행태에 분노한다.

삼성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꼼수사과 뒤에 숨지 말고, 피해 노동자들과 단체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피해자구제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에 충실히 답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헌법을 서슴없이 유린하고 있는 삼성의 범죄의 전모가 모두 드러나고 명백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목소리내며 싸울 것이다.

2020년 2월 28일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

[성명]

강압으로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수조 원의 한국인 혈세 갈취하려는 트럼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2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를 무급휴직으로 내몰아 50억 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무도한 전략으로 협상을 지연시킨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미국은 한 푼이라도 방위비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남북관계마저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우리는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정권이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종하여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물론이고 미국산 무기구매나 호르무즈 파병 등 다른 명목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들어주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이른바 주한미군 '준비태세'를 앞세워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비용 갈취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이번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미 의회 보고서, 2017. 6. 14)하는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거나 군수지원비 등의 세부항목에 끼워 넣어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등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보전받고 한반도 역외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의 일부까지 받아내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 1항),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모두 위배되는 불법적인 요구다.

2.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1/3 만 분담하며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되돌아온다는 미 국무·국방장관의 주장은 양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2020.1.16)를 통해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며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3만 부담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2015년 기준

으로 미국은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미군 인건비 포함)로 3조 1620억 원을 부담(미 국방부, 『FY17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했고, 한국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로 5조 4563억 원(국방부, 『2018 국방백서』)을 부담했다.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한국은 1/3이 아니라 1.7배나 많이 부담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의 90%가 한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주장도 방위비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우리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 소파에 따라 원래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은 일단 미국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한국 돈이다. 따라서 한국에 되돌려 준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증액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만큼 우리 예산을 국민경제와 민생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게 되어 우리 경제와 민생 복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된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 예산을 갖다 쓰면서 그것도 우리 군이나 국민을 위해서가 미군이나 군무원, 그 가족을 위해 쓰면서 그 돈이 한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주장은 몰염치한 것이다.

3.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불모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불모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야비한 짓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막아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조차 외면하고 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선타결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연합뉴스, 2020. 2. 29)이라면서 일축한 것이다.

10,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군 군무원의 임금 1/3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으로 주한미군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미국인에 비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주한미군 운영·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따라서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을 담보로 잡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과 다를 바 없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켰을 때 주한미군은 준비태세에서 큰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참모장도 인정하는 바 그대로다. 그런데도 주한미군 스스로 준비태세를 갇아먹는 무급휴직이라는 조치를 서슴치 않는 것은 소위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권의 행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가를 미국과 주한미군 스스로가 폭로하는 것과 같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마다 미국과 주한미군이 무급휴직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노동 3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도록 한미소파를 비롯한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4. 남북관계를 불모 삼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해리스 미국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개별관광 추진 발언에 대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연합뉴스, 2020. 1. 16)며 제동을 걸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에 나서겠다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심지어 에이브러햄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 지

상군 작전사령부 사령관의 DMZ 방문까지 시비를 걸고 나왔다. 이 모두가 미국의 대북 제재의 틀에서 한국이 단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미국의 편협함과 남북교류협력을 볼모 삼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등의 남북교류협력은 결코 제재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국가 주권에 관한 사안이자 민족 고유 권리이며, 더구나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한 미국의 얽박한 수단일 수 없다. 트럼프 정권과 주한미군은 더 이상 따지 부리지 말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즉각, 전면 협력하라.

5.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는 것은 위헌·위법으로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소성리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2018년에 방위비분담금 5만 달러(약 6000만 원)를 전용했으며, 2021회계연도에는 사드부지 내 탄약고 3개 동과 관련 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전용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양해했거나 동의하였음을 의미한다.

방위비분담금을 탄약고 등 소성리 사드부지 건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 위배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불법이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2016. 3. 4)을 근거로 한국이 사드부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약정이 사실이라고 해도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드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 등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소성리 사드부지는 적법한 공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불법 공여이며, 공여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다. 또한 불법적인 부지 쪼개기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시행되지도 않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중단되어 있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차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소성리 사드 부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지도 않은 임의 시설에 불과하다. 이처럼 적법한 부지 공여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전공사의 금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 위반이다. 법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지에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탄약고 등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임시배치를 정식배치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6. 방위비분담금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 사용되는 것은 터무니없다.

2021년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된 경기 성남의 전지 지휘통제소 'CP 탱고'와 전북 군산 공군 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 예산 845억 원이 여전히 배정되지 않았다. 당시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예산 전용 결정은) 미 의회가 관련 예산을 복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비용 부담 개선을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겨레, 2019. 9. 5) 이는 미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이들 사업 예산을 충당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분담금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여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다.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이 트럼프 정권의 명분 없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7. 미국 압력에 짓눌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5차 협상에서 한미 협상 책임자들이 이른바 '4~8% 수준의 인상'으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듯하였으나 미국은 6차 협상에서 이를 뒤집었다. 미국이 여전히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 이상(약 40억 달러)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7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설득할 새로운 합의안을 준비"(아시아경제, 2020. 3. 13)했다고 한다. 이는 6차 협상 직후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협상안'으로 검토했다는 '20~30% 인상안'(헤럴드경제, 2020. 1. 17)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 2. 25)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한국은 최소 10%에서 최대 30%를 허용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2019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에서 1조1500억 원~1조3500억 원으로 증액되는 것이다. 이는 역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증액이다. 더구나 미국산 미국 도입과 호르무즈 파병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그 증가폭은 역대 어느 협상과도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 대폭적인 증액이다.

이 같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증액을 반대하는 96.3%의 국민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어야 할 아무런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편, 한미당국은 미국 요구분 중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등 경상 비용은 기존 SMA 틀 내에서 타결하되, SMA 틀을 벗어나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선 한국 국방예산에 별도로 반영하는 '투 트랙 접근'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중앙일보, 2020. 1. 16) 이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포괄되지 않는 '준비태세' 비용을 국방예산을 통해 별도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을 고수하는 듯이 보이는 정부의 입장이 사실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이뤄지던 무기도입이나 파병과 같은 비용 부담이 제도화되고 더욱 확대된다. 소위 '투 트랙 접근'이란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려는 한국 외교·국방 관료들의 알팍한 수이자 대미 굴종을 드러내는 것이다.

8. 미국산 무기구매, 환경오염 미군기지 조기 반환, 호르무즈 파병 등의 이른바 협상 카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우리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키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막기 위한 '협상 카드'로 제시했던 미국산 무기도입, 호르무즈 파병, 환경오염 미군기지 조기 반환 등은 모두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들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사안은 우리에게 더욱 더 안보적·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미국은 한국에 신형 유도형 다연장 로켓(GMLRS) 판매를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상감시정찰기(J-STARS), SM-3 함대공 미사일,

공군 전자전기, 아파치 공격헬기 등의 한국 판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0. 3. 4) 글로벌호크, P-8 초계기, F-35 20대 추가도입 등은 도입이 확정됐거나 추진 중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에 이른다. 지난 12년간 미국산 무기도입에 쓴 비용만 36조 원이나 된다. 2020년 한 해의 미국산 무기도입비만 약 4조 원에 이른다. 미국산 무기도입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 외에도 남북,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행했다. 국방부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하나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항행의 자유'를 든 것은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 족쇄가 될 수 있다.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후에도 미국이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막대한 자산을 희생물로 바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권과 역내외 평화를 크게 해치는 일이다.

정부가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우선 반환받고 추후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과 환경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도 대국민 기만일 뿐이다. 이미 정부가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치유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가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완화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은 1조5000억 원을 웃돌 수 있는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동아일보, 2019. 12. 12)

9.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려줘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보려는 것이라면 유아적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구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자주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교착상태의 북미대화에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이른바 선순환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줌으로써 개별관광 등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증액대로 해주고,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미국의 볼모로 잡히게 될 것이다.

10.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의 길을 열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둘도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 육군은 태평양 지역 주둔군을 강화할 것"(연합뉴스, 2020. 1. 11)이라는 미 육군장관의 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주둔을 허용하고 제주, 평택, 성주 등 수많은 미군기지/미군사용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새삼 한국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임을 말해 준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목적은 결코 한국 방어에 있지 않다.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북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고도 남을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다. 이는 미국의 국방부와 군관료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터이다.

따라서 이미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나 미국의 안보 이익과 세계패권전략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임대료 등을 비롯한 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를 즉각 폐지하며 우리 군이 우리 돈 들여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도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이 돈(50억 달러)을 다 쓸 확실한 방법이 없다 (뉴시스, 2020. 1. 8)”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는 불법 무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까지의 수세적 협상 자세에서 벗어나 트럼프 정권에 맞서 공세적으로 임해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는 최대 무기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20년 3월 17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불법사찰 감추는 꼼수사과, 삼성을 규탄한다

지난 2월 28일 삼성은 자사 임직원들의 시민사회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에 대해 사과한 바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당일 성명을 발표, 이것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불법사찰 범죄의 실체를 가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꼼수사과', '위장사과'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연말 선고된 삼성 노조파괴사건 판결에서 법원도 인정했듯이 삼성의 불법사찰은 분명 수년간 지속적이었다. 심지어 범죄의 내용도 단순히 시민단체 후원 내역을 열람한 것이 아니라, (1)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력'을 특정하고 (2) 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보수단체가 선정한 반국가 친북좌파 단체를 토대로 '불온단체' 명단을 만들어 (3) '문제인력'의 연말정산 자료를 뒤져 '불온단체' 후원내역을 찾아낸 후 (4) 이를 미래전략실이 각 계열사에 보내 밀착감시 하였다. 이는 두말 할 것 없는 명백한 불법사찰 범죄이다.

사과문 발표 이전에 각 시민사회단체를 만나려 애를 쓰던 삼성 측은, 사과문 발표 이후 돌변하여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면담을 거부하였다. “이미 사과했으니 끝났다”라는 식의 태도이며, 그 어디에서도 “불법사찰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미안하다”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행태이다. 이는 삼성이 이번 사안을, 이재용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 그저 ‘준법감시위가 활동하고 있고, 삼성이 그 결정을 수용하고 있는 척’ 국민을 속이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불법사찰 범죄사실에 대한 사과조차 이재용 실형 면제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써먹으면서도 정작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피해자 구제책 마련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외면하는 삼성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삼성의 불법사찰 범죄에 대한 법적 심판을 위해 고발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미전실 등 컨트롤 타워를 통해 자행되는 전사적 불법 사찰... 다른 이들이었으면 감옥에 가도 몇 번을 가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어도 몇 번을 매장되고도 남았을 일이다. 삼성도 이러한 상식적 정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총수에 대한 최종 책임 부과가 우리 사회에서 재벌들이 임직원들을 불법 사찰하는 반인권, 반노동 범죄를 막는 가장 빠른 길임을 확신하며,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안을 밝힌다.

1. 삼성의 시민사회단체 불법 사찰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었으며, 소위 ‘불온단체’는 어떤 단체였는지, 개인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임직원을 감시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하게 조사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
2. 불법 사찰 관련자 및 책임자를 밝히고, 삼성측은 이들에 대해 처벌해야 하며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 해야 한다.

3. 불법 사찰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삼성의 불법 사찰 대상자인 임직원들에게 향후 조직 내에서의 인사 등에 어떠한 보복이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4. 피해 임직원 및 피해 단체에게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마련 피해구제방안 마련 등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삼성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꼼수사과 뒤에 숨지 말고, 피해 노동자들과 단체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피해자구제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에 충실히 답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헌법을 서슴없이 유린하고 있는 삼성의 범죄의 전모가 모두 드러나고 명백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목소리 내며 싸울 것이다.

2020년 3월 20일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

[성명]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면서 그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은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미 의회 보고서, 2017. 6. 14)한다는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거나 군수지원비 등의 세부항목에 끼워 넣어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비,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주한미군 한반도 역외작전비용 등을 받아내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의 거둬드는 협상 제안을 거부하며 협상을 2개월이나 고의로 지연시켰으며,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 자체 예산으로 일단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연합뉴스, 2020. 3. 20)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까지 불러 왔다.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을 불모로 한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과 그 배경이 되고 있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요구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미국은 불법으로 점철된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즉각 철회하라!

미 국방부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한미소파와 한국 노동법,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모두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주한미군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 해고’ 규정을 근거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고 한다(민중의소리, 2020.3.24.).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한미소파나 한국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상위 법령을 위반한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불법이며, 무급휴직도 당연히 무효다.

한미소파 17조 3항은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동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군사상 필요’란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17조의 양해사항 3).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 조건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이 아닌 경우 한국 노동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의 한국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은 한미소파와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요, 원천 무효다.

나아가 한미는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3절)에서 “주한미군사는 …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고용이 미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했다. 앞서 밝힌 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정당한 이유도, 군사상 필요도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 이행약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소파와 한국 노동법령을 위배하며 강행된 주한미군의 이번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불법적인 무급휴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을 전면 보장하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헌법에 의해 보장받아야 할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권익 쟁취를 위한 힘을 갖지 못하고 주한미군의 불법적, 임의적 횡포를 속수무책으로 허용해야 하는 반노동자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 오래다. 이에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미소파 노무조항 등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정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서 주한미군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노조 해산권과 노동자 해고 권한(한미소파 4항(가)(4)) 등의 삭제에 비롯하여 단체행동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미소파의 독소조항부터 먼저 삭제, 개정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군사상 필요'를 명분으로 한국 노동법령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17조 3항, '고용주(주한미군)'에게 노동조합 설립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는 합의의사록 17조 5항,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행 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 노동조합 승인 철회와 고용원 해고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는 한미소파 17조 4항(가)(4), 합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전 쟁의를 금지하면서도 합동위원회 협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양해사항 17조 4항(가)(5), 합동위원회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배제하도록 한 한미소파 17조 4항(나) 등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면 제약하거나 부정하는 한미소파 노무조항은 헌법(33조 1항),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5조) 등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자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박탈하고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로 내모는 악법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한미소파 노무조항은,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지만, 독미소파(독일 보충협정)와 일미소파에 비해서도 미국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어 있는 대미 굴종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한국 노동부도 자체 내부 문건에서 독미소파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으며(한겨레신문, 2020.3.17.),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도 한미소파 노무조항의 개정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2019.9.1.) 한미소파 노무조항의 전면 개정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해서도,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바로잡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다.

미국은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장기간 교착상태, 이로 인한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 등 이 모든 파행은 전적으로 트럼프 정권의 터무니없는 40~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파행을 해결하는 길은 트럼프 정권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는 길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보와 세계패권을 위해서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한국 노동자들의 인건비도 당연히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

해 왔다.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과 함께 한국이 미국에 베푸는 은전인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이를 고집하며 은전을 베푸는 한국과 한국인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몬다면 우리는 이 은전을 거두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안녕을 위협하고 한국 정부에 온갖 압박과 횡포를 일삼는 것은 미군 스스로가 주둔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계속 체결할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31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AWC한국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민연합,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제일교회사회부, 소성리사드철폐성주주민대책위원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향린교회(29개 단체)

[성명]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지난 3월 25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G7 등 모든 나라가 계속 단합하여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의 공중 보건, 그리고 수백만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북한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일축한 것이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은 인도적 지원을 제안해도 거절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은 유지한 채 북한의 인도적 지원 거절을 핑계 삼는 것은 현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처럼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측과 협조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를 완화 혹은 중단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제재를 완화 혹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광범위한 제재가 시급히 재평가되어야 한다며,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란 등에서 제재가 의료 활동을 방해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모두의 위험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G20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의료 지원과 필수적인 물품, 음식 공급을 위해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도 제재가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건별로 제재 면제 승인을 하고 있고 최근 승인 기간도 단축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체온계나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진단 시약, 인공호흡기 등 필수적인 의료 물품 지원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면제 승인을 위해서는 지원 목적, 물품의 이동 위치, 선적 수량과 방법, 화물 이동 경로, 달러로 환산한 가치, 면제 요청 이유, 이용할 금융기관 등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지원을 진행하면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면제 승인을 받더라도 금융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 등으로 지원 물품 대금 지급, 현지 NGO나 유엔 기구 운영비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을 찾거나 송금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통제 등으로 현금 직접 전달도 어려워져 지원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대북 제재가 급속히 확산하는 전염병에 대한 긴급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막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공표했으나 앞으로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북한은 확산 초기부터 항공편을 막는 등 국경 폐쇄 조치를 시행하고 자체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러시아에 진단키트를, 국경없는의사회나 유니세프 등에 의료 물품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의 보고대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 전문가들은 한 국가라도 방역에 실패해 걸잡을 수 없이 번질 경우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다자간 협력이나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라도 제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지난 26일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첫 번째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세계적 대응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 연대, 국제협력'을 다짐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세계

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여러 국가로부터 국제 공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공조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에 함께 사는 북한이다. 한국 정부와 민간의 지원, 남북 보건의로 협력은 제재에 막혀 왔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피해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방역, 격리, 치료 물자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지만, 이는 대북 제재의 광범위한 완화 혹은 중단,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제재 완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방역 협력 제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은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남북은 2018년 11월 열린 남북 보건의로 분과회담을 통해 ▷쌍방의 전염병 정보교환 등 남북 전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 및 예방치료 협력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로 협력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례적 협의와 해결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는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강조했다듯이 “지금엔 배타가 아니라 연대의 시간”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막고 있는 대북 제재를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해야 한다. 끝.

2020년 3월 31일

(사)나눔과함께, (사)녹색교통운동,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평화삼천, (사)하나누리,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재)나이스피플,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 건강과나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교육기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제민주연대, 김제정의평화행동, 김천교육너머,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정치포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울산시민연대,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람, 이윤보다인간을, 인간무늬연마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겨레하나,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와, 참여연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나무, 통일맞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화네트워크,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철도, 피스모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형명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총 87개 시민사회단체)

[논평]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홍콩자유언론(HKFP)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2020년 4월 18일 홍콩 민주당을 창당한 마틴 리(李柱銘)를 비롯해 마가렛 응(吳靄儀) 전 공민당 의원, 리척안(李卓人) 홍콩직공회연맹 주석, 령궈홍(梁國雄) 사회민주연선 전 주석, 융섬(楊森) 민주당 전 주석, 지미 라이(黎智英) 빈과일보 창립자 등 14명 이상의 주요 민주인사들을 지난해 8월 18일과 10월 1일, 10월 20일 불법 시위·행진을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홍콩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28일에도 지미 라이와 융 섬, 리척안 등 3인을 지난해 8월 31일 개최된 시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혐의를 이유로 체포한 바 있다.
2. 국제인권법은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모든 사람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그 권리의 행사가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등 그 필요성이 엄격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은 “집회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집회를 하기 위한 허가를 얻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원칙으로 제시하며, 단순히 집회신고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불법으로 보아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3.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등을 통해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스스로 어떠한 폭력적 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개별적 집회 참가자 또는 주최자가 다른 사람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이유로 기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집회 주최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홍콩 경찰의 이번 대규모 민주인사 체포는 위와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4. 우리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홍콩 경찰이 자의적 체포 등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 사회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번 체포는 민주인사들을 상징적으로 불법을 행위한 자로 만들어 홍콩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와 민주주의를 위한 의사 표현을 범죄로 만들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홍콩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권리로써 행사한 사람들을 체포하기 전에 집회가 자유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로서의 의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시위 내내 이어진 홍콩 경찰의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5. 우리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 이 시기에 이루어져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 곳의 부정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말처럼,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의는 결국 전 세계의 민주 사회가 수호해야 할 정의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평화로운 저항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홍콩 정부에게 민주 인사들에 대한 부당하고 자의적인 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년 4월 21일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광주홍콩연대회의, 광화문TV,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노동당 'Fine-tune', 노동도시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문화사회연구소, 미래대안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예술해방전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수니즘 코믹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 정의당 광주시위원회,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서울대학교 학생위원회,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아주대 학생위원회,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해방전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플랫폼c, 해방필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특별위원회 미대의외침,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 (총 52개 단체)

[기자회견]

현직 의원 비서관의 가정폭력에 대해 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와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에 책임을 다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의 가정폭력 가해 혐의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해자는 S대 출신의 변호사·현 국회의원의 비서관이라는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위협 등 공포감을 조성하여,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대응을 일체 할 수 없도록 장기간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통제해왔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성적·경제적 폭력도 지속적으로 자행했다. 해당 의원실은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서관을 사직 처리했다고만 밝힌 채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해당 의원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 비서관을 곧바로 사직 처리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준다. 실질적으로 비서관 임면권을 쥐고 있는 의원실이 이 사건을 여성폭력의 문제로 인식했다면 소속 비서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혐의를 명확히 밝힌 후 해고나 징계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 의원실의 조치는 국회와 정당 등이 가정폭력 문제를 사적인 문제만으로 치부하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 및 처벌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회사무처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의원의 비서관에 대한 법적 임면권은 국회 사무총장에게 있고, 이들은 국회사무처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비서관에게 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게 할 의무, 여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징계할 권한 등도 국회사무처에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비서관은 「양성평등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포함된 폭력 예방 의무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지만 교육 이수자 명단 제출이나 공개 등의 강제 조항이 없어 국회의원과 그 비서관들이 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통계조차 없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비서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행해져야 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건과 의원실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역할을 하게 될 소속 의원의 비서관이 여성폭력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입장도 발표하지 않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성폭력의 문제를 얼마나 후순위에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 의원실이 미비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슈퍼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책임을 다할 것을 보여줘야 한다. 개원을 하기도 전부터 가정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21대 국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 개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여성 단체들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및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조항을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서 피해

자와 가정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 폐지 ▲사건 현장에서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피해자가 ‘방어’를 위해 한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현 국회의원 비서관의 가정폭력 가해 혐의에 대한 해당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사무처, 더 나아가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대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경찰과 정당이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21대 국회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고,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언제까지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개정안 발의에만 급급하다가 법안 제·개정도 하지 못한 채로 국회 문 닫기를 반복할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에 관한 법안 개정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21일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19개소)

[기자회견]

4.27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건강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공동체 만들자!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하여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외 여성단체 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며 발표한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환호하고 기뻐했다. 지구상 가장 오래된 전쟁이 이제야 종식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어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19 평양 정상회담까지 한반도에는 본격적인 평화 과정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남북여성들도 2019년 2월 금강산에서 열린 새해맞이 연대모임의 상봉행사에서 오랜만의 만남을 기뻐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함께 약속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2년이 되는 이즈음, 두 정상이 약속한 종전과 평화는 도래하지 않았다.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남북이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 현실을 맞이하여, 여성들은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자 한다.

- 하나, 여성들은 판문점 선언 1항의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지난 2년간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하여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는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충실할 때라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과는 다시 시작된 남북관계의 지체이고 상호 불신과 절망이며 그 끝에 연로한 이산가족의 한(恨)이 있다. 따라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의 이행을 위한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하나, 여성들은 판문점 선언 2항의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 합의한 내용을 다시 강조한다. 판문점 합의는 한국전쟁 종식과 더불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년 동안 남북관계의 진전은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말미암아 진전되는 계기를 놓치곤 했다.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2020년 최초로 50조가 넘는 국방예산을 수립했고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 나아가겠다고 한 남북합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동시에 군사안보 중심의 힘에 의한 평화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평화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 2항의 합의를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하나, 여성들은 판문점 선언 3항인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라는 내용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2년 동안 북미관계의 진전과 비핵화협상은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거의 해제되지 않았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안전보장 조치는 마련되지 못했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는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정부 역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만 한다.

- 하나, 여성들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가 특별히 전대미문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시기와 맞물려 있는 데 주목한다. 모두에게 알려진 것처럼 코로나19는 여성과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협력과 지원정책에서의 우선적 고려가 요구된다. 우리는 현재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중국에서 코로나19 발발하여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이후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어려움이 나타날지, 여기서 여성과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춰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남북교류협력, 특별히 보건의료협력 분야에서 성인지적 접근 및 여성보건의료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의 모든 여성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를 되살려 성평등한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2020년 4월 27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외 80개 여성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로여성회, 기독교민회,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한불교조계종불교여성개발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여성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새움터, 서귀포여성회, 성남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계평화여성연합,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여성회, 여성.엄마 민중당, 여성사회교육원,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원불교여성회, 인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정의기억연대(정대협), 정의당 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해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창원여성회, 천도교여성회, 천안여성회, 평택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하남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중앙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 한민족통일여성교육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함안여성회, 화성여성회

[성명]

통일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라!

정부 부처 내 '성평등 전담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설된 지 1년이 지났다. 올해 5월 1일 기준 정부 부처 중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부, 복지부, 고용노동부(이상 성 평등 전담 부서 신설), 경찰청, 대검찰청(이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정규직제 반영), 국방부(성희롱·성폭력 근절 담당 전담부서 마련)가 △성평등 정책수립, △소관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업무, △성평등 문화 확산, △성주류화 정책 강화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아직 '성평등 전담부서'나 '양성평등 담당관'을 신설하지 않았다. 이에 전국의 84개 여성·평화시민단체는 통일부에 성평등전담 부서 혹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올해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채택 20년을 맞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리결의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진행될 3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부처로, 특별히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에 참여하는 부처로서, 부처 내 성평등 정책수립과 성희롱·성폭력근절 업무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과정에 관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성주류화 전략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촉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하루 빨리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배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담인력 배치, 운영예산 확보,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시에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020년 5월 11일

전국 84개 여성단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여성본부, 경기여성네트워크,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로여성회, 기독교민회,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한불교 조계종불교여성개발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여성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부산성폭력 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새움터, 서귀포여성회, 성남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계평화여성연합,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여성회, 여성.엄마민중당,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원불교

여성회, 인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해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창원여성회, 천도교여성회, 천안여성회, 평택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하남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 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 한민족통일여성교육협의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함안여성회, 화성여성회

[성명]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1991년 8월 14일 여성인권운동가 김학순님이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로서 최초로 피해 경험에 대해 공개 증언했다. 이후 수많은 여성단체가 모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결성하였고 현재의 '정의기억연대'로 이어지면서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전 세계적인 여성인권운동이자 여성평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그동안 피해생존자들은 여성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운동가로서 전 세계를 누비며 일본군 성노예제의 참담함을 고발했고, 그로인해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운동이자 여성평화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여성들과 민주적 시민들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도화되고 악랄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이러한 범죄의 책임을 피해생존자에게 지움으로, 피해생존자의 증언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해방된 지 반세기가 지나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피해생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나 온 30여년의 세월 동안 전 세계에 평화비가 세워졌고, 한국 정부는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등 많은 변화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본군 성노예제를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조직화된 제도였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존재한다. 역사의 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정의기억연대와 몇몇 특정인이 만들어 온 운동이 아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해야겠지만 한국의 여성운동과 평화운동, 학계 그리고 양심적인 일본의 학계와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 왔으며 전 세계가 이 '정의'와 '진실'에 조응했기에 가능했다.

우리들은 국내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분열시키고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으며 일본군 성노예제를 가능하게 했던 부정의가 지금도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다. 우리 여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단단하게 연대해 갈 것이다.

2020년 5월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성명]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파병이 웬 말이냐!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분쟁 개입이 우려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

5월 11일 오전 11시 청해부대 32진이 부산작전기지에서 아덴만으로 출항했다. 31진의 왕건함과 교대하는 32진의 대조영함(DDH-Ⅱ, 4400t급)은 왕건함과 마찬가지로 제주해군기지 제7기동 전단 소속이다. 32진 청해부대는 대조영함 승조원 들 외에 특수전(UDT) 장병들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해상작전헬기 '링스'(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1일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결정'이란 말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지 않는 '독자 파병' 이라 했지만 필요한 경우에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은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분쟁지역에 전투부대를 투입하는 경악스러운 결정이다.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아덴만에 파병될 32진 청해부대는 "임무기간 중 선박 호송작전, 안전항해 지원을 비롯해 연합해군사령부 대해적작전부대(CTF-151)가 주도하는 해양안보작전, 유럽연합(EU) 소말리아 해군사령부가 주도하는 '아탈란타(ATALANTA) 작전에 참여" 한다. 아울러 1월의 결정에 의해 31진과 마찬가지로 그 작전 구역이 아덴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만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페르시아/아라비아만까지로 3.5배 확대된다.

청해부대 31진이 4개월의 임무 기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하거나 미국주도 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나 '독자 파병'은 말 뿐이며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위험한 군사 작전에 언제라도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19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북아와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대유행 시기에 경제 제재로 이란을 더욱 압박하는가 하면 4월 22일(현지시간) '이란 무장 고속단정이 바다에서 우리 [미국] 군함을 성가시게 굴면 모조리 싸버려 파괴하라'고 미 해군에 명령했다. 4월 22일 당일 첫 군사위성을 발사한 이란은 5월 11일 해군 훈련 중 자국 군인에 오발을 했다. 그 만큼 미국-이란간 군사적 긴장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대유행 시기에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행보는 곳곳에 보인다. 4월 10일 자로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칼빈슨함, 로널드 레이건함, 니미츠 함 등 4개의 미핵항모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4월 안으로 26개의 미국 군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 심지어 미군 장성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위기에 있다. 5월 11일에는 미해군 참모총장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가 격리되었다.

미국 군함뿐 만 아니라 그 동맹국들의 군함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4월 17일에는 북대서양 작전을 마친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에 탑승한 천명 이상의 승조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음이 알려졌다. 방역 모범이라는 대만 해군 함대의 승조원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것이 알려진 것은 4월 22일이었다. 당시 해당 문무함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해군과의 연합 훈련에 참여하거나 미국령 괌에 들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군대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8월 17일-31일 26개국이 참여한다는 림팩(RIMPAC, 환태평양합동해상 군사훈련) 그리고 한국 해군의 림팩 참가가 지탄을 받는 한 이유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위협이란 인식 때문에 호주 정부는 2년에 한 번 있고 8천명이 대규모로 참가하는 군사훈련 하멜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란 표현으로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은폐하고 국회동의도 거치지 않은 꼼수를 부리지만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는 그 자체 침략으로 지탄받는 미국 주도 대이란 군사작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명명백백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 5조와 공격과 점령을 금하는 국제법 모두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청해부대 32진 승조원들의 출항시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것이 11월까지 임무가 지속될 승조원들의 건강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 더구나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참가하거나, 청해부대가 중동지역에 기항할 경우, 우리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

-한국은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라는 방침아래 언제든지 호르무즈 해협 분쟁 개입 우려가 있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생태계 회복과 우애와 연대에 힘써야 할 시기에 해양 생태계 파괴하고 군사적 갈등 고조시키는 파병이 웬 말이나! 한국은 헌법과 국제법 모두를 위반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말뿐인 유네스코 3관왕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침략전초기지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미국은 대 이란 적대정책, 무력 공격, 경제 제재를 중단하고 전 세계인들과 함께 생태계 회복, 평화 정착에 나서라!

2020년 5월 12일

강정국제팀,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기억공간 re:born, 노동자연대, 대안문화연대 군축반전평화행동,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 민중당 제주도당, 부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사월혁명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외병, 서귀포 농민회, 성미산학교,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송악산 개발 반대 대책위원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육지사는 제주사람, 이상의 이상,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농 제주도 연맹, 제주 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제주문화예술공동체, 제주여성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베평화재단 (37개 단체)

[기자회견]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문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이다. 1981년 5월 24일 유럽 11개국 여성 49명이 모여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로 정하고, 1983년 5월 24일에는 약 100만 명의 여성들이 모여 핵무기와 군비경쟁을 비판하며 다양한 형태로 평화를 촉구하는 행동을 펼쳤다. 이후 매년 5월 24일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평화와 군축을 위한 목소리를 전하는 날로 지켜져 왔다.

국내에서는 1997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평화와 군축을 위한 요구와 주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2015년 5월 24일에는 30명의 국제여성 평화활동가들이 분단된 한반도의 DMZ를 북에서 남으로 통과하는 역사적인 Women Cross DMZ 행사를 전개하면서, 이후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은 글로벌 여성평화운동의 의제가 되어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Korean War.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은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한국의 여성.평화.시민운동에 던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이동을 멈춰야 했고 경제활동도 위축되었다. 코로나19는 취약계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가운데, 우리는 돌봄과 양육을 담당한 여성들, 비정규직 여성들,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더 큰 한계 상황에 몰리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차별 구조로 인해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는 노동, 사회보장,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 대응 마련에 있어서는 젠더 관점이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긍정적 변화를 환영한다. 여성.평화.시민운동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인간안보’ 개념이 취임 3주년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통해 제안되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재정을 추경하는 과정에서 1조 4,675억 원의 국방예산을 줄여 조달하는 일도 발생했다. F-35 대금 등의 지급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가 예상되는 국외 시험평가 비용 등을 감액한 것이기에 무기 획득 예산을 실제로 삭감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인간안보와 시민안전을 확보하려면 레토릭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군축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 정부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2020년 처음으로 50조가 넘는 국방비 예산을 수립했다. 한국은 올해 글로벌 군

사력 6위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는 군사 안보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방역과 취약 계층 보호, 경제적 안전망 확대 등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틀을 잘 갖추고 또 위기를 관리하는 동시에 예방하는 연대와 협력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감으로써 극복해야 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이 언급한 인간안보의 기본 철학과 가치관에 알맞은 국가재정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국방비의 과감한 감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미국 정부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는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반인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과도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바, 애초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6조 원은 2020년 한국정부 통일부/외교부 예산을 합친 5.5조를 훨씬 초과하며, 최근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13억 달러 역시 코로나19로 재정 긴축 상황에 처한 한국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이다. 더욱이 미국은 최근까지도 대북정찰 비행을 지속하면서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중단함과 동시에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군사행동을 즉시 중단하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하여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인도적 위기를 더욱 악화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별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군비 확산과 경쟁이 아니라 인간안보와 시민안전을 지지하는 상호공동체성을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 군사주의를 넘어서는 인간안보와 공동안보를 통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오늘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모인 우리 여성.평화.시민단체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식, 남북한과 동북아의 무장갈등 예방, 이를 위한 평화군축, 인간안보와 공동안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이로써 군사력을 통한 안보와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 여성들의 안녕, 청년들의 미래, 그리고 군사화된 지역이 평화 지대로의 전환이 보장되는 적극적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5월 22일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6.15남측여성본부 강정평화네트워크,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광주여성회, 구로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당진어울림여성회, 부산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여성평화독서모임,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참여연대, 천안여성회, 평화철도전국여성위원회

[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성명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깨어진 신뢰의 회복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지난 20년 동안 남북여성들의 만남과 교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평화통일 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남북관계의 현재를 바라보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이 평화롭게 살 것을 약속한 화해와 공존의 원리와 원칙을 제시했다. 6.15 여성본부는 남북여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바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하여 그동안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청와대,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남북공동선언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국회비준을 당장 서둘러야 한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파탄의 지경까지 이른 것은, 결국 남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따지며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당장 6월 25일 100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탈북민단체의 계획을 중지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점검하고 방해하고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남북의 주민들이 전쟁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또 번영을 구가하며 살 권리를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6.15 여성본부를 비롯한 남측의 여성평화통일 시민사회는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한반도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하여, 건강한 한반도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남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020년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기자회견문]

**Statement from Korea Peace Now!
Urging an End to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June 15, 2020,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historic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signed by the lead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That landmark agreement committed the two Koreas to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developing South-North relations and realizing peaceful reunification." Given the heightened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we, women from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Canada and across the world, urge the leade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immediately end hostilities and work toward officially ending the Korean War, which is now in its 70th year.

Three generations of Koreans have endured unspeakable violence and the trauma of division. How much longer will the Korean people remain separated and live under the constant threat of war?

Perpetuating tensions and hostilities undermines the Korean people's right and long-held desire to live in peace. What we have learned from decades of engagement with our North Korean sisters is that fundamental to peacefully coexisting after 70 years of war and division is to stop vilifying and attempting to destroy each other's systems and way of life.

The two Koreas must take all the necessary steps to implement the vision Chairman Kim and President Moon made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7, 2018, in which they declared that "there will be no more war and a new era of peace has begun on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they must revive efforts as laid out in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18 and joint military agreement that set forth a demilitarization process, including disarming soldiers in the Joint Security Area and demining portions of the DMZ. Both sides made bold commitments to revive cooperation, including establishing family reunions and linking the inter-Korean railroad. We urge Chairman Kim and President Moon to deliver on those promises, not rescind them.

The US and the DPRK must also continue to build on the steps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made after three meetings and committing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and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Stalled talk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have not only delayed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but have served to set back inter-Korean reconciliation.

Progress on inter-Korean cooperation has been further delayed by foreign powers, including the US. Sanctions impos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for example, have impeded joint projects intended to help reunite families and improve humanitarian conditions in the DPRK. Given the urgent need for inter-Korean cooperation to respond to COVID-19, the UN Security Council must lift sanctions that impede these initiatives. Tomás Ojea Quintana ,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cently called on the UN Security Council to seriously reconsider “any sanctions … that impact on the livelihood of people and hinder the Government’s capacity to respond to COVID-19.”

As people around the world face the triple threat of the coronavirus, economic crisis, and climate change, we must come together to create the world we envision for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We can either choose to continue the conflict that is militarizing every aspect of our lives and robbing us of our humanity, or step forward together and invest in a future where everyone is truly safe. Critical to building that just and secure future is to halt weapons tests and military exercises, abandon “maximum pressure” sanctions that harm innocent people, and sign a peace agreement to permanently eliminate the threat of nuclear war. To ensure that a peace agreement is signed and lasting, the process must include women.

We appeal to the world’s peoples to join our global movement working to end the Korean War. Seventy years is enough. Korea peace now!

[기자회견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즈음해 남북 당국에 드리는 글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라!
북한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극한 대결로 치달고 있는 것이다. 2년 전 남북 정상들이 천명한 '새로운 평화시대'는 정녕 이대로 뿌리 뽑히고 마는 것인가?

아니다! '새로운 평화시대'는 계속되어야 한다.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다시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민족의 명운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판문점/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한다. 이는 8천만 겨레와 세계평화애호민에 대한 준엄한 약속으로 남북 당국이나, 미국의 이해에 따라 그 구현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그 끝이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과 전쟁일 수밖에 없는 모든 정치군사적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고 판문점/평양 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전면적으로 취해 나갈 것을 남북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평양 선언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

이번 남북대결의 발단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남한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며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한 데 있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약속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 위반이다.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는 확성기 방송과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어 왔다.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하에도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지고 전쟁 위기를 맞은 바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당국의 수많은 경고에도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 대북 전단 살포 방치가 남북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리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무능의 극치요 알고도 방치했다면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대북 적대적 입장을 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11차례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바 있다. 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북 전단 살포 중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작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노래한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막지 않았다. 이 모순을, 이 무책임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6·15 공동선언 20주년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들도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하나도 없이 추상적인 내용뿐이다.

해결 방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너무나 자명하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연결 등 판문점/평양선언의 즉각, 전면 이행에 그 길이 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단절되지 않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북한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마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폭파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재건하며 대남 전단 살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남 군사적 대결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런 대응 또한 모순이다.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 방지에 대한 북한의 일련의 대남 극한 대응이 남한의 판문점/평양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재군사화는 남한 당국의 판문점/평양선언 이행의 길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며, 이로써 북한 스스로가 판문점/평양선언을 파탄낸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폭파 방식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기는 이미 남한 국민들에게 씻기 어려운 큰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군사화 조치까지 더해지면 '새로운 평화시대'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진정성은 남한 국민들로부터 근본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서도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야말로 교각살우의 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우리는 북한 당국에 더 이상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오로지 대화와 협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은 민족을 수차례나 공멸시킬 수 있는 가공할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의 대결과 위기 국면이 자칫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치닫는다면 핵전쟁의 참화 속에서 민족의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재래식 군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이 소중하며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판문점/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에 나서야 한다. 지금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 내일이란 없다.

2020. 6. 17

고난함께, 개헌민회, 동학마당사람들,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일병, 서울제일교회, 아나키스트,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의열단, 전교조성남지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연사람들, AWC한국위원회

[기자회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호소문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4.27 판문점 선언으로 돌파구가 열렸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후 답보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남과 북 두 정상은 손을 잡고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고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 군사적 충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평화 정착과 분단 극복을 향한 온 겨레의 간절한 꿈이 다시금 불신의 멍에 걸리고 대결의 악순환에 휘말려 가뭇없이 스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툭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북미 간, 남북 간, 한미 간 협상은 작년부턴 교착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상 간 선언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서로가 취해야 할 ‘상응 조치’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태도로 압박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오래된 관성이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정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마음만큼 절박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걸림돌입니다.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 제재와 봉쇄를 유지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민간 교류협력조차 가로막혔고, 한반도 주민들의 지혜와 염원이 담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의 성과 역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역사는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적대 정책이 한반도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도리어 악화시켜 왔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영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압박과 적대를 멈추어야 합니다. 한반도 핵 문제 역시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관계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 당국의 협상에만 맡겨두지 말고 시민이 나서서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시민의 힘으로 국제 여론을 움직여 난관에 부딪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냉전 대결에 휘말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서 일어난 3년간의 참혹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온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불안과 증오,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주민들의 삶을 지배해왔습니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세계가 탈냉전의 시대를 맞은 이후에도 줄곧 군사 패권의 각축장이 되어왔고, 국제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하는 도화선 구실을 해왔습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다고 선포합니다. 온 겨레에,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동료 시민들에게,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호소합니다.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함께 해 주십시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범국민적이고 국제적인 평화 행동입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올해부터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3년간, 시민사회 공동의 요구를 담은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시민 서명과 각계 지지 선언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전 세계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호소하여 국제적인 평화 캠페인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서명과 지지 선언을 모아 남·북·미·중 등 한국전쟁 관련국과 유엔에 전달할 것입니다.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합의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한반도 주민과 세계 평화 시민의 이름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 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온 겨레가 소중히 보듬어온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냅시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70년 이어진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오늘 이 땅에 깃들여 사는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전 세계가 공명할 만큼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칩시다.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과 환경에 투자하자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2020년 6월 24일,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앞두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제안자 일동

[기자회견]

‘한국전쟁 70년’

-용산 전쟁기념관, 전쟁을 기념하는 곳에서 인권과 평화를 말하는 곳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다. 올해 정부 차원으로 진행되는 한국전쟁 70주년 사업내용에는 노근리 사건 70주년 추모제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합동 추모제 등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나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성찰하는 행사로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움직임이다.

그렇다면 한국전쟁과 관련한 국가의 ‘공식기억’이라 할 수 있는 이 곳 용산 전쟁기념관은 어떠한가.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인정되고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제주4.3은 공산좌익들의 끈질긴 선거방해 책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재심 결정에서 국가권력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 한 여순사건은 전쟁 전 남한의 전투력을 소모시키기 위한 좌익과 게릴라의 무장투쟁으로 설명된다. 개전 직후 군 통수권자였던 이승만이 국민을 버리고 벌인 도피행각은 감춰지고 수백여 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수장시킨 한강 인도교 폭파는 북한군을 방어한 성공적인 전술로 평가된다. 인천상륙작전을 맥아더의 영웅적 작전으로 묘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희생된 월미도 주민들의 죽음은 배제된다.

민간인들의 희생만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휴전회담이 시작되며 멈출 수 있었던 전투, 고지전의 과정에서 숨겨진 수많은 군인들의 이야기는 국군의 성장에 기여한 평가 속에 감춰지고 전쟁의 숨은 영웅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착취에 가까운 강제동원 과정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았던 노무자들의 고통은 삭제된다. 그 외에도 보도연맹 학살사건, 부역혐의자 학살사건, 미군의 무차별적인 공중 폭격으로 숨겨진 민간인들, 전시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군, 연합군 ‘위안부’ 동원 등 한국전쟁 중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고통과 참상을 전쟁기념관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전쟁 그리고 그 전후의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4.3 당시 불법적인 군법회의에 회부돼 처벌받은 수형인들에 대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있었으며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한국전쟁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진실규명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된 군대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들의 권고사항에는 관련 사실을 역사 기록물에 추가하고 잘못된 기술은 정정해야 하며 전시인권교육과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용산 전쟁기념관은 국가차원에서 밝혀진 진실들에 대한 전시의무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해 전쟁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조의 내용이다. 전쟁기념관이 수집하고 보존한 전쟁에 관한 자료란 과

연 어떤 내용인가. 주지하다시피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전시 내용의 대부분은 전투와 무기,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다는 전쟁영웅에 대한 기념으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전시 내용의 근간에는 전쟁은 군인만의 일이며,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죽음 중 오로지 국가를 위한 죽음만이 기념할만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한다. 군인이 한국전쟁을 겪은 당사자임은 분명하지만 또 다른 전쟁 피해 당사자의 경험을 전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쟁기념관의 관람자들은 진정한 전쟁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 성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년에 2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전쟁기념관을 관람하며 그 중 70만 명 이상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다. 전쟁에 대한 기억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과 인권의 가치를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전쟁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같은 참화가 없기 위한 성찰을 위해서도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은 변화되어야 한다.

전쟁기념관이라는 명칭도 바꾸어야 한다. 기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함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전쟁기념'이라는 복합 명사는 전쟁을 미화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현대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인 한국전쟁을 기념하고 미화해서야 되겠는가.

한국전쟁 70년,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떻게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한반도의 평화가 다시 위태롭다. 어렵사리 이어지던 대화와 협상의 움직임이 멈춘 여러 이유 중에는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적대의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군사정권시절 전후세대 반복 안보관 확립을 목적으로 기획되고 건립된 용산 전쟁기념관이 있다.

적대와 힘에 의한 평화, 왜곡된 역사인식으로는 전쟁을 멈출 수도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갈 수도 없다. 용산 전쟁기념관의 한국전쟁 관련 전시내용이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43개 시민사회단체는 용산 전쟁기념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6월 2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사)제주다크투어/(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4·9통일 평화재단/NCCK 화해통일위원회/경계를넘어/군인권센터/금정굴인권평화재단/녹색연합/다산 인권센터/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대안문화연대/두레방/문화연대/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섬돌향린교회/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식민지역사박물관/아시아평화인권연대/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인권중심사람/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쟁없는세상/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 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평택평화센터/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바람/평화재향군인회/피스모모/한베평화재단/향린교회 (가나다순, 총 43개 단체)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시다
-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

이제는 전쟁을 끝냅시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분단과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수백만의 사상자와 천만 이산의 고통을 가져온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입니다. 냉전 시대 한반도에서 벌어진 정치적·군사적 대결과 갈등으로 한반도 주민들과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분단과 적대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

다시 적대와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냉전이 끝난 30년 전 남북은 상호존중과 불가침에 합의하였습니다. 20년 전 남북은 첫 정상회담을 열고 전면적인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8년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한 대가로, 신뢰가 불신으로 바뀌고 긴장이 높아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뤄낸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슬픈 상황입니다.

지난 역사는 상대를 불신하고 굴복시키려는 적대 정책이 한반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도리어 악화시켜 왔음을 보여줍니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핵 전쟁의 위협에 시달려왔고 세계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하는 장이 되어왔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한반도 비핵화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국 정부들이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인의 마음을 모아 대결과 분쟁의 상징이었던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의 산실로 바꿔냅시다

한반도 주민들과 동아시아, 세계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 우리의 자원을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환경,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전쟁을 끝내고, 지난 70년 오지 못했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전 세계가 공명할 만큼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칩시다.

광복 75주년 8.15 민족자주대회를 맞이하여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성명서

- 여성의 힘을 모아 식민과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자!

2020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되는 날이다. 광복과 해방 75년을 기념하는 이날, 여성들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민족의 자주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이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 중 한반도 여성들은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극단의 전시 성폭력의 고통을 경험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해방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의 공식 인정과 진정 한 사과를 받지 못했고, 아직 정당한 해결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전쟁 70년, 분단 75년은 여성들에게는 폭력의 다른 이름이었다. 여성들은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이산가족으로 고통당했고, 분단으로 강화된 군사주의는 가부장적 성차별문화와 함께 여성들의 일상의 삶에도 억압과 폭력으로 작용해 왔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통해 차별과 억압이 없는 삶을 획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율과 자주, 해방과 평화, 그리고 완전한 통일을 꿈꾼다.

남과 북의 모든 우리 민족의 삶 구석구석에 악영향을 미쳐온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 한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한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한반도에 거주하는 남과 북 모든 여성들의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운명에 대한 결정도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남북의 여성들은 함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함께 꿈꾸고 함께 현재를 누리고 또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원한다.

남북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6.15 남측위 여성본부와 단체들은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들이 꿈꾸는 배려와 환대가 이뤄지는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20년 8월 15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공동선언]

무기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각계 공동선언

국회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총지출예산으로 555조 8천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다뤄지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적합하게 짜여 졌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 중 특히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각계 시민사회는 계속되는 무기 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노력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 인상하여 52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평균 국방비에 비해서도 1.5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째 40조로 시작했던 국방예산은 3년 만에 50조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1조를 투입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방비 팽창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2023년경이면 일본을 추월해 세계 6위 규모의 국방지출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진 반면, 오히려 끝없는 무기증강의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는 경향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F-35B 신규 도입 등 한국방위에는 쓸모가 없는 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국 봉쇄에 동원될 수 있는 무기체계 관련 비용 또한 예산에 반영하여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였습니다.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원될 무기를 국민 혈세로 사들여서는 안됩니다.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선제공격과 보복응징을 위한 킬 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사업이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3년 사이 2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북 요인 암살 및 잠수작전 등을 위한 특수전지원함 및 침투정 사업 예산 등은 대북선제공격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부적절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심지어 국회 예결특위 차원에서도 사업계획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 선제공격에 기초한 무기증강과 관련 예산 증액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4.27판문점선언의 합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어려워진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고 새로운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삭감해야 마땅합니다.

폭증하는 무기도입과 군비증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주권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주국방, 전작권 전환의 명분으로 남북관계 파탄과 평화위협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속에서 불요불급한 무기 증강에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한정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필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무기 증강을 위해 국방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들을 위한 긴급 생활지원, 사회안전망 확보,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는 촉구합니다.

평화를 위협하고, 자주국방과도 인연이 없는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국방비 삭감으로 마련된 예산을 코로나 민생예산에 긴급히 투입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무기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각계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

<공동선언 참가자 명단 총202명>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홍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강보향(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상임대표), 강은주(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고다은(성남청년회 회장), 고진형(6.15전남본부 상임대표), 공정욱(전교조 고양초등지회), 광지은(놀이하는사람들 전 지회장), 광호남(진보대학생넷 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선경(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권영길(평화철도 이사장), 권오현((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근래(진보당 일반대표(사무총장)), 김기완(진보당 진보당 노동자대표), 김다은(터사랑청년회 회장), 김도현(경기청년연대 사무처장),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수(사천진보연합 공동대표), 김동한(6.15학술본부 공동대표), 김래곤((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김미경(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병국((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김보민(안성사랑청년회 회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석원(문화공동체 더나은 대표), 김성남(민주노점상연합총청지역연합회 지역장), 김수형(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 김식(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김애자(전여농경복연합 회장), 김영국(한국노동총연맹대전본부 의장), 김영호(진보당 충남도당위원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용복(한국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의장), 김용우(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상임대표), 김원진(대전청년회 대표), 김은진(국민주권연대 상임대표), 김은진(두레방 원장), 김재연(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하(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김재환(고양평화청년회 회장), 김정길(6.15광주본부 상임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주업(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준기(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김종태(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지부장), 김지선(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자주통일위원장), 김진영(통일바루 회장), 김차경(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찬수,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태중(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대외협력국장), 김혜순((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환석(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김희운(분당청년회 회장), 김희철(보훈개혁연대), 남궁석(진보당 강원도당위원장), 남성민(경남도연맹 부의장), 남주성(6.15대경본부 상임대표), 노수희(범민련서울연합 명예의장), 노정현(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대표), 문성인(진보당), 문성호(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문영미(정의당인천시당 위원장), 문예련(경기청년연대 교육위원장), 문창길(창작21작가회 대표), 문홍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민점기(6.15전남본부 상임대표), 박규용((사)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덕신(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원로목사), 박범수(경기청년연대 (안산청년회) 의장), 박봉열(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준(대구통일열차 대표), 박성철(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 박정원(6.15강원본부 상임대표), 박정원(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장), 박정호(진주교육사랑방 대표), 박중기(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명예대표), 박태우(부천청년회 회장), 박현아(즐거운 청년 커뮤니티 이끌림 회장),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방석수(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배득현(수원청년회 정치위원장), 백선기(동학민족통일회 운영위원), 백창환(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대표), 서경옥(경기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서종수(한국노총서울본부 의장), 성희영(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손동대(6.15청년학생본부 집행위원장), 손정목(4.27연구원 연구위원), 송명숙(진보당 진보당 청년대표), 송명식(주권자전국회의 조직위원장), 송원석(전교조 고양중등지회 지회장), 송재영(6.15경기중부 상임대표), 송준호(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송해철(보훈개혁연대 상임대표), 신건수(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신금순(통일엔평화), 신미연((사)겨레하나 사무총장 직무대행), 신선희(인천여성회 회장), 신수식(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신창현(진보당 인천시당위원장), 신창현(진보당인천시당 위원장), 신혜원(사)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심지선(고양여성민우회 대표), 안건수(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안재영(겨레하나 파주지회 대표), 안주용(진보당 진보당 농민대표), 엄미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오인환(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 용순옥(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 유영임(경기여성연대 운영위원), 유은옥(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윤기종((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이사장), 윤병일(민주노총 성남지역지부 조합원), 윤주형(6.15충북본부 집행위원장), 윤진섭(진보당), 윤희숙(진보당 일반대표), 이강일(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경민(진보당 진보당 빈민대표), 이경민(하남청년회 회장), 이광호(6.15인천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의장), 이길우(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본부장), 이대동(대경진보연대 공동대표), 이대식(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본부장/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이명주(진보당 충북도당위원장), 이미애(동학민족통일회 운영위원), 이병호(남북교육연구소 소장), 이상덕(청주청년회 회장), 이상현(진보당 사천시위원회 위원장), 이상훈(민중민주당(민중당)), 이성재(노동희망발전소 대표), 이소영(청년다락 대표), 이양수(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이영범(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이영복((사)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이영진(6.15진주본부 집행위원장),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우원(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이은미(6.15울산본부 공동대표), 이인화(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이장희(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재선

(천도교청년회 회장),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정이(6.15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종철(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지범(평화통일불교연대 위원장),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해성(남북연극교류위원회 위원장), 이현옥(금정굴인권평화재단 대표), 이해진(민들레 대표), 임상호(6.15울산본부 상임대표), 임차진(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현장사업단장),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장수경(인천겨레하나 집행위원장), 장지창(강릉청년센터 대표), 장지철(전교조 경기지부장), 전덕용(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전윤경(진주진보연합 집행위원장),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운영위원), 정선영(사천비정규직센터 센터장), 정일용(6·15남측위 언론본부 상임대표), 정종성(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정종해(평택청년플랫폼 피움 대표), 정지성(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집행위원장),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해랑(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정현우(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 정현우(진보당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조성우((사)겨레하나 이사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용신(진보당 일반대표), 조원호(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조현정(예수살기 상임대표), 채수근(민주노동총고양파주지부 본부장), 천기창(대구경북주권연대 대표), 최경은(서울청년네트워크 총회준비위원회), 최동성(대한도덕회 회장), 최미정(경기여성연대 회원), 최순영(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최영민(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을상(전국빈민연합 의장), 최창훈(전농경북도연맹 의장), 최형권(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하동협(전교조인천지부 지부장), 하연호(새로하나 공동대표), 하재길(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허상수(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현지(6.15광주본부 상임대표), 홍동희(전교조 부산지부 지부장), 홍희덕(새로하나 상임대표), 황순규(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철하(6.15경남본부 상임공동대표)

[공동성명]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난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 확산기 방송 행위 등을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면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한 지 2년 8개월 만에 관련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국회가 갖고 있는 ‘대의의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십수년간 탈북자단체들의 전단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 전단을 날릴 때마다 마음 조아려야 했고 논밭에서 농사일을 하다가도 불안에 떨어야 했다. 실제로 2014년 10월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측의 고사총 사격으로 연천군 중면사무소에 총탄 자국이 생기기도 하였다.

접경지역에서의 갈등과 충돌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악화와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4.27판문점선언>에서는 각별히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법적, 행정적 조치가 미진한 틈을 타 일부 탈북자 단체가 남북합의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탈행위를 함으로써 남북간 갈등을 부추겨 왔으며, 급기야 지난 6월에는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4.27판문점선언의 합의가 다시 훼손되고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위기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단살포를 몸으로 막아 나섰다. 경기도의 대북전단살포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주민 77%가 지지하였으며,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각계 4,900여개 단체에서 발표하였다.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남북 신뢰회복을 위해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촉구해 왔다.

이에 힘입어 지난 14일 국회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간 합의준수를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도모하고,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이라는 헌법 책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 이라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북전단살포금

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탈북자 단체는 이미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니 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비난하고 있다. 대북전단살포를 재정적, 정치적으로 후원해 온 미국의 관련단체들과 정치인들도 합세하여 관련 법률 통과를 비난하는 등, 내정간섭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를 지지해왔던 쿀타나 유엔북한인권대사 또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냉전과 분단체제에 기생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저의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대북 전단살포는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갈등 조장행위이다. 해당 단체들의 ‘돈벌이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전단살포를 집요하게 추진해 온 탈북자 단체들은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이라는 공동체의 숙원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이간질하거나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의 관련 단체들과 정치인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비전을 훼손하는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하며, 쿀타나 북한인권대사 역시 갈등조장, 평화파괴 행위를 더이상 ‘인권’의 이름으로 미화하거나 지원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이 법의 조속한 공포를 통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3개월 동안 혹시 있을 수 있는 전단살포 시도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법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법’으로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개성공단 기업비상대책위원회, 금강산기업협회, 남북경제협력협회, 겨레하나, 독립유공자유족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YWCA 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흥사단

【 부록 】 2020년 홍보자료

【2020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심화과정 웹자보】

2020

7.07. Tue
8.29. Sat



평화 통일 교육

진행자

심화과정

대상 2019평화통일교육 전문가과정 참석자
 평화통일교육에 관심있는 교육진행 경험자

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 소통홀

문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929.4846/4847, 010.2695.2637

신청 <https://forms.gle/69z95F7oChEgbJGf8>
 30명 이내 (선착순 마감)

주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원 통일교육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부설 갈등해결센터)는
 2019년에 이어 여성관점의 평화통일 역량을 기르는 진행자 심화과정을 엽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현장에 진행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배움과 성장을 함께 하고자합니다.
 관심있는 분들 주저없이 문을 두드려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회차	일자	시간	강의명(주제)	강사
1회차	7/7(화)	18:30~19:00	오리엔테이션	박인혜(갈등문화연구원 원장)
		19:00~21:30	북한 영상을 통해 알아보는 주민의 삶과 문화	김성경(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
2회차	7/14(화)	18:30~21:30	북한의 결혼, 가족제도 이해	박현선(이화대학교 교수)
3회차	7/21(화)	18:30~21:30	북한여성의 일과 경제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4회차	7/28(화)	18:30~21:30	북한의 아동·청소년 교육, 문화 이해	조정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5회차	8/22(토)	13:00~15:30	진행자의 평화 감수성 훈련	박인혜(갈등문화연구원 원장)
6회차		15:30~18:00	진행자의 소통능력 심화훈련	이덕경(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에듀피스 강사)
7회차	8/29(토)	13:00~17:30	교육진행, 사회적 대화진행 실습	박인혜(갈등문화연구원 원장)
				이덕경(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에듀피스 강사)
8회차		17:30~18:00	평가 및 수료식	박인혜(갈등문화연구원 원장)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과 성평등한 한반도 담론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대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과 성평등한 한반도 담론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지하1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1 차	2 차
일시	2020. 7. 23.(목) pm6:30 ▶ 9:00	2020. 8. 13.(목) pm6:30 ▶ 9:00
1부	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소개 동영상 보기	
특강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를 아시나요?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여성들이 평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2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사회적 대화I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사회적 대화II
대상	사회적 대화 참여자 (20명 선착순 / 참가비 무료) 2030 청년세대, 평화통일교육자, 여성·평화·시민단체 활동가 등	
신청	https://bit.ly/3fm5NeZ	
문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929.4846/4847	



주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원  여성가족부

【“여성·평화·안보(WPS)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과 성평등한 한반도”
- 콘텐츠 발굴회의와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보고서】

여성가족부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여성·평화·안보(WPS)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과 성평등한 한반도”
- **콘텐츠 발굴회의와**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보고서

2020.11.30.

주 최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 원 :  **여성가족부**

【학술대회 여성,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여성,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한반도평화 구축을 위한 여성주의적 성찰

일시 | 2020년 11월 16일(월) 13:00-18:00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본 행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 온라인 참여 링크와 PDF 자료집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신청 | <https://forms.gle/zgsgHzpT2sJpGQE57>

개회

사회 |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개회사 | 김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1부 남북한 여성교류: 30년간의 대화

사회 | 한정숙 (서울대학교)

발표 | "의미있는 참여의 관점에서 본 남북여성교류: 성과와 과제"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남북여성 교류를 통한 분단극복 모색" -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변화하는 북한사회 속 여성의 목소리" -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토론 | 조영숙 (수원여성회)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2부 한반도평화를 바라보는 여성의 시선

사회 | 김성보 (연세대학교)

발표 | "탈식민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징병제의 역사" - 강인화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코로나19 이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여성주의적 개입 가능성"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남한에서 북한을 본다는 것은" - 윤보영 (동국대학교)

토론 | 김귀옥 (한성대학교)

손서정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전원근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주최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원 |  통일부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관심분야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 원 가 입 서

이 름		주민번호	
이동전화		전자메일	
집 주소			
거래은행		예금주	약정금액
계좌번호			이 체 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관심 분야	<input type="checkbox"/> 정세대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남북교류 <input type="checkbox"/> 갈등해결 <input type="checkbox"/> 전쟁반대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 <input type="checkbox"/> 평화문화 <input type="checkbox"/> 여성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입 동기			
가입 일자			

- ◎ 후원 388-810005-03104 (하나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계좌 347-01-0018-351 (국민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21년 제25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기총회

발행일 : 2021년 1월 27일

발행인 : 김정수

발행처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_여성미래센터 401호

전화 02-929-4847 / 팩스 02-929-4843 / 이메일 wmpeace@naver.com

홈페이지 www.peacewomen.or.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eawmp

후원계좌: 388-810005-03104(하나은행) 예금주: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